

## 필라델피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세들에게 그들의 뿌리인 한국으로부터 이 땅에 온 초기 이민자들이 걸어온 기독교 신앙의 발자취를 남김으로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동시에 바른 신앙으로 이 땅에 공헌하려는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함과, 미국 독립 발상지인 이 필라델피아시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처음 세워진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교회가 그 뿌리를 내려 2003년에 교회설립 50주년을 맞게 됨으로... **한 인 장 로 교 회**

# 50년사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50년사

미 독립의 발상지  
필라델피아시의 첫 열매

1953년 9월 27일 ~ 2003년 현재

**The Philadelphia Korean Presbyterian Church**

5842 - 58 Hoffman Avenue, Philadelphia, PA 19143



#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50년사





#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50년사

---

## 차 례

서 론	7
제 1 장 초창기 또는 캠퍼스 기간 (1953년 9월 27일~1959년 8월)	11
제 1 절 초기 또는 캠퍼스 전기 (1953년 9월 27일~1955년)	12
제 2 절 초기 또는 캠퍼스기 후기 (1956년~1959년 10월)	22
제 2 장 우드랜드(Woodland) 기간 (1959년 9월~1966년 10월)	37
제 3 장 체스터 52(Chester 52nd) 기간 (1966년 11월~1974년)	71
제 4 장 이스턴 채플(Eastern Chapel) 기간 (1975년~1979년)	165
제 5 장 자체 교회당 기간 (1980년 1월~2003년 현재)	175
맺는 말씀	208
부 록 50주년 기념예배에서 있었던 오기형 선교사의 설교 내용과 관련된 자료	209



# 서론

## 1) 이 책의 목적과 쓰게 된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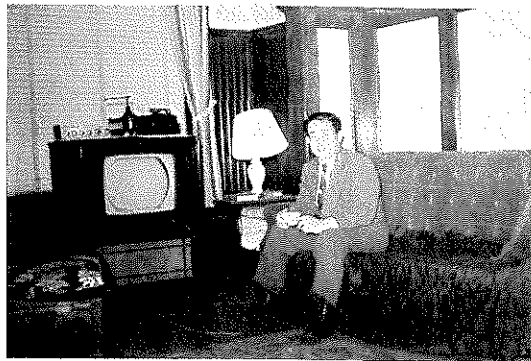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 설립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와 고락을 함께 해 온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세들에게 그들의 뿌리인 한국으로부터 이 땅에 온 초기 이민자들이 걸어온 기독교 신앙의 발자취를 남김으로 계속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동시에 바른 신앙으로 이 땅에 공헌하려는 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함과

둘째로 - 미국 독립 발상지인 이 필라델피아시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처음 세워진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교회가 그 뿌리를 내려 2003년에 교회설립 50주년을 맞게 됨으로 그 기념의 뜻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동기와 목적이 있다.



오기항 목사(Faith  
신학교 재학중, 1953년)



신학교 졸업당시(1955년)

## 2)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50년사 연대 나눔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 50년사를 엮음에 있어서 편리상 그 기간을 교회가 모임에 사용했던 장소에 따라 다음 다섯 기간으로 나누어 쓰기로 한다.

### 1) 초창기 또는 캠퍼스 기간 (1953년 9월 27일~1959년 8월)

약 6년간인 이 기간에는 예배와 기타 모임을 주로 펜대학 캠퍼스 구내에 있는 Christian Association Building 2층 채플에 있는 약 30석의 작은 방에서 가졌다. 주소는 3601 Locust Street, Philadelphia 였다.

### 2) 제 2기 또는 우드랜드 기간 (1959년 9월~1966년 10월)

약 6년간인 이 기간에는 주일예배 모임을 펜대학 캠퍼스에서 가까운 Woodland Presbyterian Church 부속건물에서 가졌다. 그 위치는 펜대학 캠퍼스에서 가까운 42nd and Pine Streets, Philadelphia 시였다.

### 3) 제 3기 또는 체스터 애비뉴- 기간 (1966년 11월~1974년)

약 8년간인 이 기간 동안에는 주일예배와 기타 모임을 펜 캠퍼스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First United Presbyterian Church에서 가졌다. 주소는 52nd and Chester Avenue, Philadelphia 시였다.

### 4) 제 4기 또는 이-스튼 채플 기간 (1975년~1979년)

약 4년간인 이 기간 동안에는 주일예배 모임을 펜 캠퍼스에서 서부 약 5마일 떨어진 Eastern Baptist Seminary 채플에서 가졌다. 주소는 City Line and Lancaster Avenue, Philadelphia 였다.

### 5) 제 5기 또는 자체 교회당 기간 (1979년 12월~2003년 현재)

이 기간부터는 자체의 교회당 건물을 가지게 된 기간으로 그 주소는 펜대학 캠퍼스에서 과히 멀지 않은 시 서부에 위치한 곳으로 그 주소는 5842-58 Hoffman Avenue, Philadelphia시다.

### 3)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와 저자와의 초기 관계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의 초기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의 전신인 초기 성경 기도의 모임을 주동했던 저자와 이 모임의 관계를 적지 않을 수 없어 대강이라도 적게 됨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의 처지가 그랬듯이 저자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학교 공부 이외의 다른 시간을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위해서 주말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으로 폐허된 땅을 재건해야할 더 많은 기회와 사명이 우리 유학생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귀국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도하며 원하는 마음에서였다.

그 후 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믿고 즉각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했다. 이것이 내가 시간을 내게 된 동기였다. 그런데 학교가 시작한 1952년 가을부터 겨울방학 때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일에 매이게 되어 학교 공부 외에는 작정했던 일에 착수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그 일이란 한국에 구제품을 보내는 일이었다. 한국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소식을 알려 달라는 미국인 교회의 초청을 받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가게 되면서 가는 교회마다 전란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의복 등 구제품을 받아 보내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었다. 나는 학교 당국의 허가를 받아 그 구제품들을 지하실 공간에 쌓기 시작했다. 그것들을 정리해서 몇 트럭분의 구제품을 싣고 나니 나도 모르는 새 겨울 방학도 다 가고 봄학기가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 일이 내 계획을 지연시켰던 원인이었다.



한국에 보낼 구제품 보낼 준비를 끝내고 (1952년 말)



보낸 구제품이 한국에 도착함  
(1953년초, 서신 분이 영도장로교회 오기역장로)

#### 4) 계획했던 유학생 순회심방과 성경 공부 모임 시작

미국 온지 한 해가 되어가고 있었다. 미국 학교의 여름방학은 약 4개월간으로 긴 여름방학이었다. 그 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대로 미국 내에 산재해 있는 우리 유학생들은 순회 심방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기 위해 약 두 달간의 여름일을 끝냈다. 내가 속했던 학교기도 모임의 한 친구가 자기 차로 함께 순회하자고 자청해 왔다. 이 백인 친구와 함께 약 한달 반의 유학생 심방을 무사히 끝내고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로 돌아왔다. 이것이 내가 계획했던 첫 번 여름방학 순회였다.

이렇게 시작했던 넓은 미국 내 유학생 순회 심방은 그 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합쳐 6년간 계속됐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할 뿐이다. 나는 첫 번 순회에서 돌아온 즉시로 필라델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캠퍼스 성경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이날이 순회에서 돌아 온 후의 첫 주일인 1953년 9월 셋째 주일인 9월 27일이었다. 펜 캠퍼스에서 처음 가진 성경 기도의 모인 날이자 후일 이날이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설립일로 정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와 고락을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제 1 장

## 초창기 또는 캠퍼스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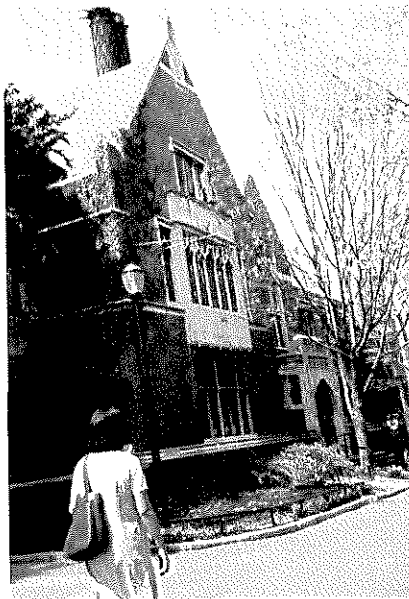
(1953년 9월 27일~1959년 8월)

### 초창기 또는 캠퍼스기간 나누기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 50년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그 초기(1953년 9월 27일~1959년 8월)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시 이 초창기 또는 캠퍼스 기간을 다음과 같이 두 기간으로 나누고자 한다.

초기 전기 - 1953년 9월 27일부터 1955년을 초기 전기로 하고

초기 후기 - 1956년 ~ 1959년까지를 초기 후기로 한다.



제1기 예배장소 (C. A Building기간)  
Christian Association Building 3601 Locast St., Philadelphia  
(1953년 ~ 1959년)



# 제 1 절

## 초기 또는 캠퍼스 전기

(1953년 9월 27일~1955년)

- 1953년 -

### 1) 초기 교회 시작 당시의 한인 커뮤니티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의 시작 당시의 형편을 쓰려하니 그 당시의 필라델피아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구성을 대강이나마 적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한국에서 미국 필라델피아시 북부 엘킨스 파크에 자리잡고 있는 페이스 신학교(Faith Theological Seminary)에 학생으로 도착했을 때는 1952년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고 가을 학기가 시작하려는 무렵이었다. 그 당시 이 신학교에는 한국학생이라고는 6.25 한국전란 전부터 와 있다는 그레이스 김이라는 여학생 한 분뿐이었다. 그러니 지금은 나와 함께 막 도착한 이어진목사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5, 6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다들 공부를 끝내고 떠났다고 했다.

떠난 분들 중 내가 아는 분으로는 전영창목사, 김동명목사, 후일 김동명목사와 가정을 이룬 안리숙여사, 오기형교수, 김성선목사 등이었다. 그리고 이 신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는 내가 도착했던 당시에는 한국 유학생은 없었다고 들었다. 떠난 분들 중 내가 아는 분으로는 안용준목사, 한태동박사, 김철현박사 등이었다. 이상은 이 지역에 있는 신학교의 우리 유학생들의 형편이었다.

필라델피아에 온지 얼마 안 되어 전부터 안면이 있던 펜대학 대학원 언어학과 교수

Lukoff 박사의 부탁으로 동 대학원에 나가 그를 돕고 있었다. 이 때문에 펜대학에는 자주 나갈 수 있어 다른 동양 학생들은 만날 수 있었으나 우리 한국 유학생은 만나지 못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원 유학생이 한 둘 있었던 말은 들었지만 지금은 없었다. 그 후 2, 3년간에 만났던 우리나라 대학원 학생으로는 한국에서 내가 가르쳤던 임성희군 외에 김관학을 만났다. 이 두 분은 후에 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밖에 동 대학원생으로는 최용씨를 만났다. 그리고 펜대학 대학생(undergraduate student) 으로는 이봉서, 송명상, 박병찬, 김관봉 쌍둥이 형제, 그리고 김주진 학생 등을 만났다.

내가 아는 대로 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면 이봉서 학생은 후일 귀국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동자부 장관을 지냈고, 송명상 학생은 이승만 정부의 재무부장관을 지낸 송인상씨의 동생이며, 박병찬 학생은 당시 서울 종로에 있었던 화신백화점 박흥식씨 아들로 후일 신창그룹 회장이 되었다고 들었다. 김주진 학생은 아남전자 회장, 그밖에 김관봉 형제는 대학교수로 있다고 들었다. 이상이 당시 내가 만났던 펜대학 한국 유학생들이었다.

주: 지금부터 저자를 '나'라는 1인칭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밖에 시 서부 지역에 있는 Swarthmore College에서는 김한교 학생을 만났는데 이 학생은 내가 동경 유학시절 안목이 있는 동경제대 경제학부에 다녔던 김순교씨의 동생이었다. Bryn Mawr College에는 이광수 선생의 따님인 이정란양, 동경 유학 시절 같은 교회에서 알고 지낸 백창진씨 동생 백은진양(후일 동 대학 교수) 그리고 백옥규 양이 있었다. 시내 Temple대학에서는 이정식 학생을 만났고 시 북부에 있는 Beaver College에서는 최수영양 그밖에 박보영양을 만났다. 그리고 시내와 부근 병원에 와있는 의사 중 만날 수 있었던 분들은 김희수의사, 김연근의사, 노광욱의사, 장석수의사, 이광수의사, 민광식의사 등이었다.

이밖에 필라델피아시와 인근에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 중 이조 말 한국 개화기의 선구자이자 독립 운동가였던 서재필박사 가정이 미디어에 사신다고 하여 찾았으나 서박사는 내가 오기 전 해인 1951년 1월 5일에 서거하고 두 분 따님 스테파네와 유리엘만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밖에 한국 감리교 감독인 유형기박사의 누님이 펜대학 부근에 산다는 말은 들었으나 만날 기회는 없었다. 그리고 시내 제퍼슨 병원에 찰박사가 계신다고 해서 인사차 찾아 만날 수 있었고 몇 번 초대도 받아 식사 대접도 받았다.

이 밖에도 근교에 한 두분 더 사신다는 말은 들었으나 만날 기회는 없었다. 이상이 내가 만날 수 있었던 당시 이 지역 한국 커뮤니티였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미미하게 발족된 모임이 후일의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이다.



필라델피아 시에 온지 얼마 안되어 서재필 박사의 따님 Muriel을 인사차 찾아 만났을 때 받은 서재필 박사께서 타계하기까지 사시던 저택



필라델피아시 도착 후 얼마 안되어 서재필박사의 묘지를 찾아가 Armstrong (서재필박사 부인의 성)가의 가족 유해 저장소에 함께 저장되어있는 場面을 찍은 사진  
장지명 - Chelsten Hill Cemetery  
East Washington Lane  
Germantown, Philadelphia, PA

## 2) 초기 성경 기도 모임의 동기와 목적

초기 이 모임의 동기와 목적에 관하여 1962년 10월에 있었던 필라 한인 장로교회 창립 제9주년기념 행사를 위해서 기록된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사(History of Philadelphia Korean Church)"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그가 꿈속에서 본 경험을 나타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거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곳 이름을 벨엘이라고 불렀으나 번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하면서 이 교회 역사 기록은 계속 다음과 같이 그 목적과 동기를 쓰고 있다.

"1953년 가을 몇몇 한국 유학생들이 매주일 돌아가며 그들의 숙소에서 기도의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의 목적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6.25 한국 전란으로 황폐화된 이들의 조국의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자 함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같은 동기로 작은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게 출발된 이 작은 모임이 후일 미합중국의 발상지요 수도이기도 했던 역사적 도시 필라델피아시의 역사상 처음 그 뿌리를 내린 한인 교회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치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는다.

### 3) 예배와 기타 모임 장소

학생 숙소에서 모이고 있었던 이 성경 기도모임 장소를 펜 캠퍼스 내에 있는 Christian Association Building으로 옮겼다. 그 주소는 3601 Locust St., Philadelphia 였다. 주일에는 2층에 있는 작은 채플 Room에서 모이고 첫 층에 있는 넓은 홀도 편리하게 쓸 수 있어 많은 편리를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예배 외에도 금요일 저녁에는 성경 공부반도 여기에서 모였다.

## - 1954년 -

### 1) 자라나는 새싹

전도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장 6절)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겨자씨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을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하셨다. 출발한지 두 해가 될 1955년을 앞두고 예배에 평균 참석자는 20명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자란 주원인은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또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오는 분들의 증가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이 모임과 함께 수고 봉사해

은 교우들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와 있는 어린 예수님의 자랐을 때를 생각하며 이 어리고 작은 모임이 그 자람에 있어서 보이는 숫자적 면만이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 영적 면의 세면이 함께 균형적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1955년을 앞두고 당시 새로이 한국에서 오신 분 중 당시 모임 명단에 올라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김희수의사, 임이선의사, 교환교수로 오신 오기송교수 등이었다. 이분들은 여러 면에서 교회봉사에 힘을 쓰셨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모임을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Philadelphia Korean Church)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본 성경기도회 주최 한인 친목회 (1954년 5월 2일)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 출석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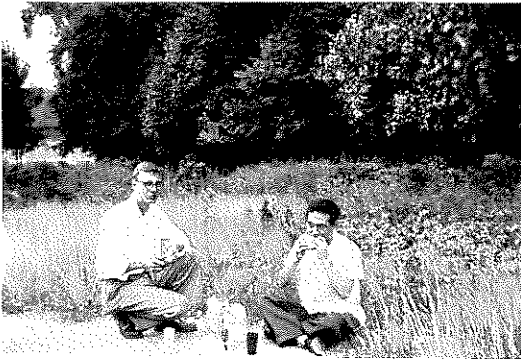
임이선의사, 최한철의사, 이석경의사, 오기송교수, 임성희학생, 오학근학생, 이정식학생, 이봉서학생, 권혜운학생, 김성진학생, 김관봉형제, 김태선학생, 전문기학생, 홍선만학생, 김주진학생, 김관학생, 김앨리스여사와 두 아들 그리고 신학생 오병세목사 등이었다.

## 2) 첫 번 하기 신앙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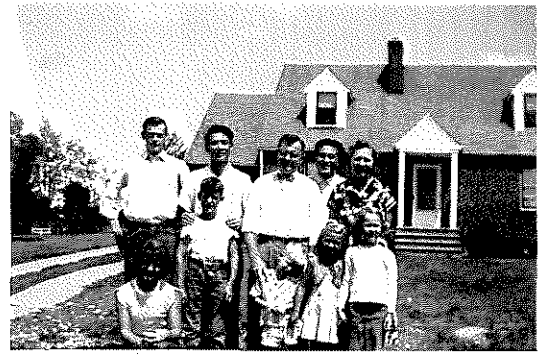
1955년 이 해 봄은 내게는 예년보다 분주한 해였다. 내가 다니던 신학교를 졸업하는 때인 동시에 여름을 앞두고 여름 순회 계획 외에 신앙 수련회를 진행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간은 그 해 이른 여름으로 했고 주강사는 두 분을 초청키로 하고 그 중 한 분은 구약학자로 이름난 페이스 신학교 총장 Dr. Allen MacRea,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 Dr. Edward Young 교수가 초청되었다. 수련회 장소는 페이스 신학교 캠퍼스로 정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강사와 참석자들의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참으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 수련회의 참석자 수는 15명이었으며 참석자 중에는 한국에서 새로이 이곳에 온 박문옥교수, 임이선박사 등도 있어 모임에 새로운 힘을 주었다. 아마도 한인으로서는 이 지역에서는 처음 가지는 신앙 수련회였다고 생각된다.

### 3) 새사명선교회 순회팀

이미 대략 써 놓은 대로 새사명 선교팀의 사명은 당시 미국 내 각지 캠퍼스에 유학차 와있는 우리 유학생 전도와 친목을 목적으로 시작한 모임이었다. 이 모임이 시작된 1952년 당시 미국 내의 우리 유학생 수는 천명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어려움에 빠져 일할 인재를 찾고 있었던 우리나라 형편을 생각할 때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기회나 모임조차 없었다. 더욱이 신앙학생들 간에도 전란으로 황폐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다른 유학생들과 같이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리 없었다. 나는 이 불가능했던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순회 중 야외에서 점심  
Mr.Sneeler와 임성희군



순회 중 만난 미국교인 가정



순회 중 Ohio 주 Akron 시에서



순회 중 만난 미국교인 가정

길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넓은 미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우리 유학생들을 찾아 순회하기로 작정했다.

#### 4) 초기 4회에 걸친 유학생 순회 심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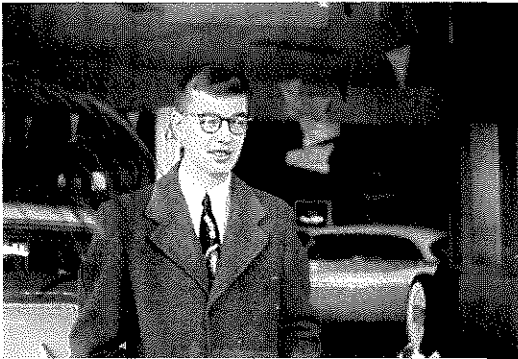
우선 여기에서는 대강이나마 1953년 8월부터 1955년 7월 9월초까지 방학 동안에 있었던 제4회에 걸친 순회 일정과 지역만이라도 다음과 같이 적고 지나가고자 한다.

- 순회한 일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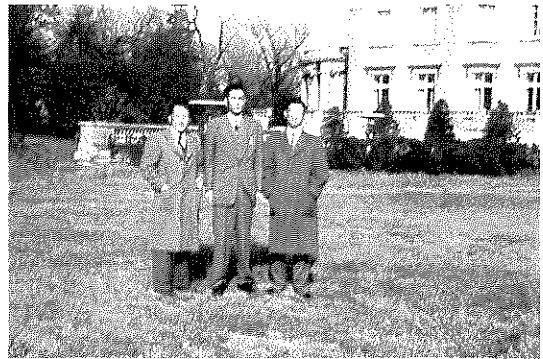
- 제 1회 - 1953년 8월~9월 중순
- 제 2회 - 1954년 7월 4일~8월 말
- 제 3회 - 1954년 12월~1955년 1월 중순
- 제 4회 - 1955년 7월~8월

- 순회한 캠퍼스 지역 -

펜실베이니아주, 오하이오주, 미시간주,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미주리주, 뉴욕주, 델라웨어주, 코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인디애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조지아주 등 동·중부지역 각주에 있는 캠퍼스들이었다.



순회여행에 자동차 운전으로 봉사해준 Alvin Sneller  
(Faith 신학교 재학 중,  
후일 한국 선교로 한국에서 선교함)



Harvard대 한국 학생 심방  
(중앙에 선 분이 박문옥씨)

## 5) 4회에 걸친 순회의 결과

낮선 미국 넓은 땅에서 처음 경험하게 된 약 두 달 동안의 제 1차 순회에서는 되도록이면 더 많은 유학생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그 계획은 여의치 않았다. 어떤 캠퍼스에서는 힘써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한 유학생도 만나지 못해 해매고 다닌 때도 없지 않았고 또 경비를 절약하느라 공원에 차를 세워 놓고 차에서 자게 된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 순회에는 좀 더 치밀하게 계획도 세우고 아는 학생들과 연락도 해서 더 잘 준비하고 떠나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쁘고 고마웠던 일은 만날 수 있었던 유학생들은 그들이 신앙학생이든 아니든 다들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던 일이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했던 때는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들을 만나 유학생들을 만나는데 도움도 받았던 때였다.

첫 순회 중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는 처음으로 기도회 모임을 시작하자는 학생들과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제안을 받아 모임을 시작했고 떠난 후에도 편지로 연락도 계속 받고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다. 이같은 심방의 결과로 미네아폴리스시와 콜럼버스시에서도 같은 모임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단한 기도소식지를 만들어 서로의 소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다. 이 소식지가 후에 새 사명지로 발전했다.

— 1955년 —

### 1) 우리 국군 장교단 심방과 친교

1955년 이해 10월 새사명팀은 군사훈련차 메릴랜드 Aberdeen Proving Ground에 파견되어 훈련받고 있는 우리나라 장교단을 방문해 예배도 드리고 친교의 따뜻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후 감사절 또는 성탄절 같은 특별한 때는 이들을 필라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식사 등으로 친목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심방은 그 후에도 우리나라 장교단이 교대로 파견되어 오는 동안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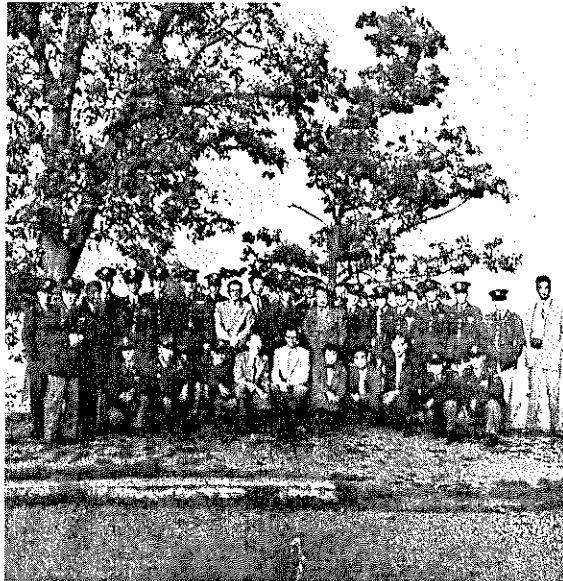




1955년 11월 6일에 메릴랜드주 Aberdeen 군사훈련장에 와 훈련을 받고 있는 국군장교들을 방문, 예배시간을 가진 후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장면



메릴랜드주 Proving Ground 한국장교들을 순방 중앙이 오기항 목사 부부, 그리고 김석현 군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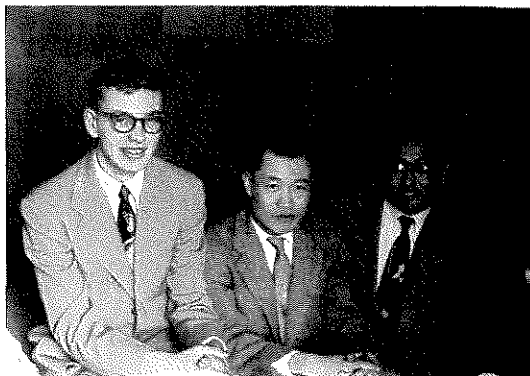


1955년 10월 새사명선교팀의 메릴랜드주 Aberdeen Proving Ground에 군사훈련을 위해서 와있던 국군장교들을 방문, 예배시간을 가진 후 함께 찍은 사진 (선교팀은 평복을 입은 분들, 집을 떠나와 있는 이들을 교회에 초청하기도 했다.)

## 2) 노금석 대위 심방

1955년 11월 새사명 선교팀은 델라웨어주 뉴-아크에 있는 델라웨어대학에 와있는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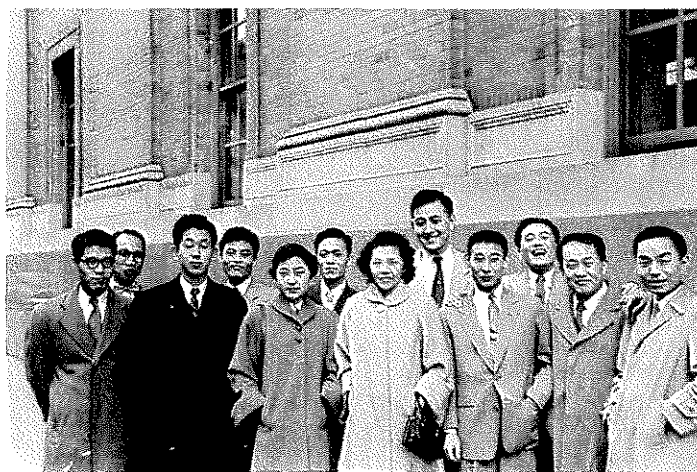
금석 공군대위를 심방했다. 지금은 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북한 공군대위였다. 한국에서 당시 크게 보도되었던 미그전투기를 조종하고 남하했던 분이였다. 반갑게 만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1956년 새사명 선교팀이 Delaware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노금석 공군 대위를 찾아 복음을 전함. 노금석 공군대위는 북한 공군대위로 MIG전투기를 조종하고 남한에 탈출해온 분임

### 3) 분주했던 1955년 연말

1955년 11월에는 감사절 예배와 행사, 12월에는 성탄절 행사가 있었던 데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기도 모임에서 겨울 신앙 수련회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아 거기에 가기로 해서 더 분주했다. 감사했던 것은 최근 디트로이트 지역에 이사온 페이스 신학교를 나온 김성선목사의 도움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일이다. 결과로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대해 감사를 드렸다.



성경기도회 주최 친목모임 (1955년 3월)

## 제 2 절

### 초기 또는 캠퍼스기 후기

(1956년~1959년 10월)

- 1956년 -

#### 1) 초기 또는 캠퍼스 후기

작은 기도의 모임으로부터 시작해 이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교회는 이제 네 살이 되었다. 숫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약한 교회였다. 그러나 복음적 면에서와 신앙 인재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장래를 내다 볼 때 참으로 귀중한 존재라고 믿어졌다.

#### 2) 나와 교회가 직면했던 어려움

몇 명 안 되는 우리 유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작은 교회가 뿌리를 내린지도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으로부터 이 지역에 오는 유학생 또는 기타 프로그램으로 오는 분들의 수가 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일도 늘기 시작했다. 공항에서 픽업하는 일에서부터, 숙소를 찾아주는 일, 기타 낯선 곳에서의 정착에 필요한 일들도 자연스럽게 교회가 해야 했다. 이런 일들은 모임을 이끌고 있었던 내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이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한된 학생의 처지로는 역부족이었다. 이것이 그 당시 나와 교회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일들이었다.

나 개인의 형편을 말씀 드린다면 그 전 해인 1955년 5월 24일 페이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에 관한 지식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유대계 대학원인 드랍시

(Dropsie)대학에서 코스를 택하고 있었다. 막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신학교 졸업 정도는 신학 입문정도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 드랍시대학을 택한 것이었다. 학교에서 장학금은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처가 전주 기전여학교 음악교사로 일하며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런 형편에서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숫자적으로는 약간씩 자라고 있었지만 다 같은 학생의 형편이어서 아무도 시간을 내어 봉사코자 하는 지원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작은 커뮤니티의 불빛으로 또 등대로서 자라야 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였다. 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 3) 교회 봉사의 길이 열림

하루는 나를 찾아 온 분이 있었다. 이 분은 내가 미국에 오기 전부터 아는 분이였다. 이 분은 해방 후 얼마 안 되어 피얼스박사라는 부흥사와 함께 한국에 집회차 왔던 Dr. Robert Finley 라는 분이였다. 내가 인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을 때 이분의 학생집회를 도우면서 알게 된 분이였다. 이분이 나를 찾아 온 목적은 이제는 신학교도 졸업했으니 자기가 하는 일을 꼭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다는 것이였다. 전에도 몇 번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이유로 사절했던 일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온 것이다. 이 분이 말하는 일이란 그가 창설자로 있는 국제학생 전도 기관으로 그 이름은 "국제학생회"(International Students Incorporated) ISI 였다. 여기의 한국 학생부 책임 간부로 도와달라는 내용이였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고 필라델피아 펜대학 부근에는 지부가 있는데 본부에 올 필요 없이 이곳에서 학교 코스를 취하면서 일을 해달라는 것이였다. 그리고 월급에 관해서는 확실한 액수는 말할 수 없지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런 조건에서 대답해 달라는 것이였다. 마음에 결정이 되면 알려주겠다고 대답했다. 그 후 나는 이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대답하고 거기에서 일하기로 했다. 나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교회 봉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나는 숙소를 펜대학 부근으로 옮겼다.

### 4) 초기 후반기 성경 공부와 심방의 열매

#### 1) 금요 성경공부 강화

지금까지 해오던 주말 성경공부 모임을 금요일 밤 7시로 정하고 모임의 이름을 "성경 연구 모임"이라고 했다. 모임을 통해 새로이 믿기로 결심하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었다.

## 2) 주일예배 외의 개인 심방과 상담

주일예배에서나 성경연구모임에서 만날 수 없었던 학생들은 예배 후 시간을 내어 찾아 만나기로 했다.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드신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씨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힘을 얻어 숙소들을 찾았다. 이 심방을 통해 대화의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

## 5) 제 5회 유학생 순회 심방

1956년 여름이 되면서 제 5차 순회를 앞두고 중고차 한 대를 샀다. 지금까지는 신학교 한 반 아래였던 Alvin Sneller(후일 한국 선교사로 나감)라는 백인 학생의 차로 함께 순회했는데 늘 그에게 의존할 수 없어 무리를 해서 샀다. 이 순회에는 내 형인 기송형이 운전하고 함께 떠났다. 이 해에는 좀 경험도 이미 얻었고 해서 더 많은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만나는 학생들마다 반갑게 만나주어서 기뻐고 또 많은 열매도 얻고 돌아오는 보람을 느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 6) 1956년 가을 학기를 앞두고

1956년 가을학기를 앞두고 교회는 새로 오는 유학생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펜대학 대학원에 온 김영진씨(후일 조지타운 대학 교수), 템플대학에 온 장정애씨, 펜대학 대학원에 온 오인호씨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여러 새 학생들이 교회에 나왔다. 내가 숙소를 대학 부근으로 옮긴 때여서 내 숙소로 찾아오는 학생 수도 늘고 있었다. 이렇게 친교를 가질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했다. 교회에 참석하는 학생 수도 늘기 시작했다.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 수는 평균 35명에서 40명 정도로 늘었다.

## 7) 1956년을 보내며

1956년은 교회로서는 비교적 순탄히 지낸 한해였다. 하나님께서 좋은 협조자들을 보

내주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나로서는 어려웠던 점이 없지 않았다. 이 지역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수가 늘면서 그 중에는 목사들도 있었지만 다들 학생 형편이어서 한 달에 몇 번이나 강단이라도 맡아 봉사해 주기를 원하는 분은 나오지 않았던 점이었다. 교인들 중에는 이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서 이제 신학교도 졸업했으니 왜 안수를 받고 목사로 나서지 않는가고 권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도 평균인으로 교회에 봉사하기로 작정했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계속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와 교인들에게 송구했다. 나는 주일예배, 금요성경공부, 부근 캠퍼스 또는 유학생들 심방은 그대로 부지런히 계속하고 있었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학생 수도 늘고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으로 하는 귀중한 한국의 봉사자들이 되리라고 믿으며 감사했다.

## - 1957년 -

### 1) 1957년을 맞으며

계속해서 분주한 가운데 1957년을 맞았다. 작지만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낯선 땅에서 그 뿌리를 내린지도 이제 5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해에도 교회와 이 사역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강단을 도와주실 협조자도 보내주시기를 기도했다.

### 2) 교회 강단을 위해서 최의원 목사를 보내주심

하루는 시내 드립시대학 박사학위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의원 목사님이 나를 만나자고 찾았다. 내 형편을 들어 안다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강단을 맡는 일로 협조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학교 공부로 분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보수도 없는 이 일에 동참자가 되어 주겠다는 소식이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었다. 교회에서 교인들과 의논한 후 전적 찬성으로 최의원 목사님을 이 교회 무보수 자원 강단 목사로 맞게 되었다. 교회가 설립된 후 처음으로 맞이한 목사님이었다.

그 때는 1957년 5월이었다. 이렇게 되어 교인들도 안심하게 되고 나로서는 학교 공부와 교회 봉사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 3) 나이가가라 폭포 관광

교회는 강단을 맡은 최의원목사님의 협력으로 좀 더 힘을 얻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던 금요 성경연구반, 캠퍼스와 개개 학생 심방을 계속하는 동시에 특별 활동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활동으로는 단기 신앙활동 프로그램으로 나이가가라 폭포 관광을 계획하고 실시했다. ISI(국제학생회)의 협조로 나이가가라 폭포가 있는 부근의 미국인 교회의 협조를 얻어 그 교회당과 교인 집에 유숙하며 3일간의 순서를 잘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이 귀중한 기회를 통해서 교인간의 친교와 협력 그리고 이 광활한 대륙에서 이 웅장한 폭포도 보며 시야도 넓히고 신선한 공기도 마실 수 있어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 4) 재회의 기쁨

1957년 이 해 감사절을 앞두고 내게는 기쁜 소식이 한국으로부터 왔다. 그것은 한국에서 도미 수속을 하고 있었던 집사람이 수속이 끝나서 곧 도미한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한국을 떠난 지 이제 5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한국을 떠났을 당시는 부부



1957년 말 예배 후 친목(오기항 숙소)  
좌 오인호, 김석현, 오기항, 장정애, 김영진, 김자영

동반 유학은 정부로부터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만나는 기쁨도 컸지만 교회 봉사에 협조자가 필요했던 나로서는 그 기쁨 또한 컸다. 이렇게 여러 신앙 협조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되니 찾아오는 학생들과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어 집을 떠나와 있는 학생들과 좀 더 따뜻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5) 화기에애했던 감사절과 성탄절 행사

이 해의 감사절과 성탄절 예배와 예배 후 친목행사는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의 고독을 잊게 하는 귀중한 모임이었다. 두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수는 70명 내외였으며, 가장 많이 모였던 모임으로 이 해의 마지막을 단장했다.

### - 1958년 -

#### 1) 1958년을 맞으며

분주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1958년 새해를 맞이했다. 한국으로부터 이곳에 오는 유학생들과 기타 프로그램으로 오는 분들의 수는 계속 조금씩 늘고 있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새 얼굴들도 늘고 있었다. 교회는 최의원 목사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협력으로 모든 순서들이 보다 착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 2) 오인호군의 참사와 한국에서 온 사랑의 서한

1958년 4월 25일 늦은 저녁이었다. 펜대학 대학원 학생이었고 또 우리 교회 교우의 일원이었던 오인호군이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우송할 편지를 들고 캠퍼스 부근에 있는 우체통에 갔다가 열한명의 흑인 청소년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가 보도되자 듣는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했고 또 슬프게 했다. 시민들 중에는 어떻게 필라델피아 즉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시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심지어는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이 슬픈 소식을 전해 받은 기독교 신앙심이 돈독했던 가족들은 당시 필라델피아 시장 Richardson Delworth와 펜대학 총장 Dr. Geylord Harnwel 그리고 적십자사 책임자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기들의 뜻을 편지로 전했다. 이 편지 내용에는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가 그의 부모 가족들은 물론 사회에 얼마나 슬픈 소식을 가져오는지를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미국의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관대







Casket containing the remains of In-Ho Oh, Korean graduate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o was beaten to death by a street gang, is readied for burial at Old Pine Presbyterian Church, 4th and Pine sts. Undertaker (center) is adjusting flowers placed on casket by Ho's aunt (left), Mrs. Ki Hang Oh, of Philadelphia. Watching left is her husband and Ho's uncle.

미국 Trinity 교회장으로 치러진 오인호군의 장례식  
 미 최초 장로교회 후원에 매장(미 독립회관구역, 1958년 5월)



Old Pine 교회 후원에 놓인 오인호 기념비

## Dilworth Weeps

*Continued From First Page*

minister from Korea who is studying Hebrew here at Dropsie College.

Mr. Choy chose as his Biblical text verses 14 to 18 of Chapter 4, I Thessalonians.

### Aunt Sings Hymn

A hymn, "Some Day the Silver Cord Will Break," was sung in both English and Korean by Oh's aunt, wife of his uncle Ki Hang Oh.

Oh lived with them. The uncle is working for a doctorate in archeology at Dropsie. The other uncle, Ki Song Oh, came to the service from Austin, Tex., where he is a student of international law at the University of Texas.

A scroll of condolences, printed in Korean, was placed on the casket. It was presented by 70 Korean students at colleges in this area.

### Writes to Parents

The body was cremated. The ashes will be returned to Korea.

After the service, the mayor told the Korean vice consul he would confer with City Council to find out what the city could do to assist Oh's family. Oh's parents live in Pusan, Korea.

Then Dilworth returned to his office and wrote a personal letter to the parents.

### Letter to Envoy

Yesterday the mayor sent a letter to Dr. You Chan Yang, Korean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in Washington. It said:

"It is with a sense of great sorrow that I communicate to you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Philadelphia our deepest regret at the unfortunate death of In-Ho Oh, a Korean national who was studying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at those who perpetrated this outrageous and senseless act of violence have been apprehended does not in any way minimize the shock that the entire law-abiding community has felt as a result of the murder of your countryman. It leaves us with the feeling that the world has some distance to travel before it can fully deserve being called civilized.

"I would very much appreciate your conveying not only these regrets but also our deepest sympathy to your government and to the family of In-Ho Oh at their grievous loss."

# Oh Burial Set For 'Old Pine'

Slain Student's Rites At 2 P. M. Monday

By JAMES SMART  
Of The Bulletin Staff

In-Ho Oh will be buried at 2 P. M. Monday in the churchyard of historic "Old Pine" Presbyterian Church, 4th and Pine sts.

The Presbytery of Philadelphia made the arrangements.

Oh, a Korean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was a Presbyterian.

He was murdered at 36th and Hamilton sts. on the night of April 25 when he walked from his home nearby to mail a letter. Police arrested 11 youths for the crime.

### Delay in Arrangements

Confusion in the burial arrangements caused a delay.

Joseph Levine and Son, undertakers, originally had the body at their funeral home at 1512 N. Broad st.

Services were held April 29 at the William A. Cuffee funeral home, 409 N. 41st st., because it was near the university campus and Oh's fellow students would be able to attend.

Both funeral homes contributed their services.

Later, Levine's placed the body in a hermetically sealed, zinc-lined casket in preparation for shipping it back to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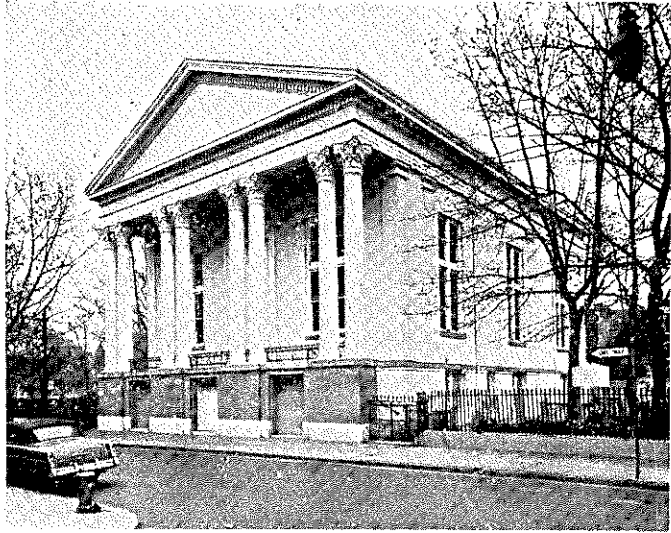
But, meanwhile, a letter arrived here from Mr. and Mrs. Ki Byung Oh, of Pusan, Korea, parents of the slain student, asking that Oh be buried here.

### Father an Elder

Because Oh's father is an elder in the Presbyterian Church of Pusan, the Presbytery decided to cable the parents, asking if their plan was acceptable. The parents telephoned their approval.

Speakers at the graveside ceremonies on Monday will include the Rev. Dr. James L. Grazier, of Norristown, moderator of the Presbytery; the Rev. Dr. Edward Brubaker, pastor of the Tabernacle Presbyterian Church, who is also Westminster Foundation minister at Penn, where Oh worshipped with a group of Korean Christian students; the Rev. Ui Won Choy, minister to the Korean students at Penn, and the Rev. Donald

Old Pine Street  
THIRD AND SCOTS PRESBYTERIAN CHURCH  
FOUNDED IN 1768  
PINE STREET WEST OF FOURTH, PHILADELPHIA  
REV. CLARENCE SHANNON LONG  
PAS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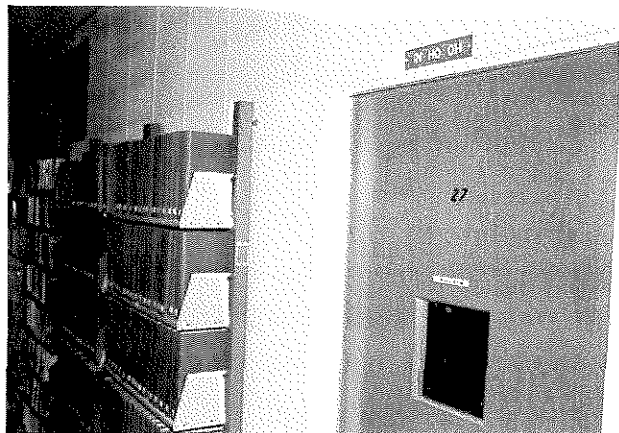


### FORMER PASTORS

1771	George Duffield	1837	*Thomas Brainerd
1792	*John Blair Smith	1867	Richard Howe Allen
1810	*Philip Millerdoler	1881	Hughes O'iphant Gibbons
1836	*Archibald Alexander	1911	Enos Ray Simons
1814	*Ezra Stiles Fly	1935	Victor Herbert Lukens

\*Moderators of the General Assembly

고 오인호군이 묻힌 Old Pine 장로교회



고 오인호군을 기념하기 위해 장만된 Eastern 대학 도서관 오인호 Room

Pusan, Korea  
May 2, 1958

Dear Sir:

We, the parents of In Ho Oh, on behalf of our whole family, deeply appreciate the expressions of sympathy you have extended to us at this time. In Ho almost finished the preparation needed for the achievement of his ambition, which was to serve his people and nation as a Christian statesman. His death by an unexpected accident leaves that ambition unachieved.

When we heard of his death, we could not believe the news was true, for the shock was so unexpected and sad, but now we find that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In Ho has been killed by a gang of negro boys whose souls were not saved and in whom human nature is paralyzed. We are sad now, not only because of In Ho's unachieved future, but also because of the unsaved souls and paralyzed human nature of the murderers.

We thank God that He has given us a plan whereby our sorrow is being turned into Christian purpose. It is our hope that we may somehow be instrumental in the salvation of the souls, and in giving life to the human nature of the murderers. Our family has met together and we have decided to petition that the most generous treatment possible within the laws of your government be given to those who have committed this criminal action without knowing what it would mean to him who has been sacrificed, to his family, to his friends, and to his country.

In order to give evidence of our sincere hope contained in this petition our whole family has decided to save money to start a fund to be used for the religious, educational, vocational, and social guidance of the boys when they are released. In addition, we are daring to hope that we can do something to minimize such juvenile criminal actions which are to be found, not only in your country, but also in Korea, and, we are sure, everywhere in the world.

About the burial of the physical body of him who has been sacrificed; we hope that you could spare a piece of land in your country and bury it there, for your land too is homeland for Christians and people of the democratic society, and it is our sincere hope that thus we will remember your people, and you will remember our people, and that both you and we will more vitally sense an obligation for the better guidance of juvenile delinquents whose souls are unsaved, and whose human natures are paralyzed. We hope in this way to make his tomb a monument which will call attention of people to this cause. We think this is a way to give life to the dead, and to the murderers, and to keep you and us closer in Christian love and fellowship.

We are not familiar with your customs and you may find something hard to understand in what we are trying to say and do. Please interpret our hope and idea with Christian spirit and in the light of democratic principles. We have dared to express our hope with a spirit received from the gospel of our savior Jesus Christ who died for our sins. May God bless you, your people, and particularly the Boys who killed our son and kinsman.

Signed by:  
Ki Byung Oh (Father)  
Shin Hyun Oh (Mother)  
and Family

Copy of the letter sent to the mayor of Philadelphia, Pa.,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Pa. and the chairman of the American Red Cross.

오인호군의 가족들이 필라델피아 시민 앞으로 보내어 범인들을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 편지



### 3) 기대치 못했던 사건

오인호군의 살해사건이 있는지 얼마 안 되는 1958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그 당시의 우리 한인 사회와 교회를 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대강 적고 지나가고자 한다. 필라델피아 지역 노회가 고 오인호군을 기념하는 뜻에서 한인 교회를 재정적으로 원조하기를 위하여 한인 기독교인들의 의견을 듣기 원하니 모여달라는 통지를 최 의원 목사와 나도 받았다. 시간이 되어 최목사와 함께 모임 장소에 갔으나 우리는 뒷좌석 방청석에 앉았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어느 모로 보든지 약했다. 그러나 최 목사나 나는 그 뜻은 고맙기는 했지만 다른 기관의 원조를 받아가며 교회를 섬길 생각은 없었다. 독립적으로 서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다.

모임이 시작되어 노회 대표격인 미국분이 모임의 취지를 설명한 후 모인 분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한 한국 여인이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조금 사나운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미국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한인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 교회에 나가면 됩니다." 기대치 않았던 말에 다들 놀랐다. 원조만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인 교회 불필요설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 여인은 K여인이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 여인의 배후에는 우리 한인 교회에 오랜 동안 시련을 준 H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시련들은 기초가 서있지 않은 작은 커뮤니티에서는 받기에 어려운 시련이었다. 아마도 나무가 자라 그 뿌리를 박으려면 때로는 광풍도 맞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온 교우들은 더욱 더 결속하는 힘을 얻었다.

### 4) 1958년 가을 학기를 맞으며

교회로서 생각지 못했던 슬픈 일들을 경험하는 동안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 학기를 맞게 되었다. 교회는 계속 새로 오는 학생들을 맞아들이기에 분주했다. 새로 온 학생 중에는 오인호 기념 장학금으로 펜대학 대학원에 온 김형갑씨와 신용무씨도 있었다. 그 당시 교회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다.

최옥엽, 장 기, 국강은, 이기원, 한순경, 로선주, 김웅택, 김태웅, 이운영, 오옥실, 박일철, 김익찬, 김중영, 조규석, 조선행, 송용달, 박숙정, 최정일, 백병진, 방지형,

김영섭, 김영순, 이송래, 오성현, 김종두, 김영철, 신용무, 최세일, 한수호, 백기순, 이성무, 현혜은, 한의신, 김명혁, 김경주, 이요성, 이광덕, 이운용, 최홍재, 이애다, 함석현, 김훈모, 정재명, 김형갑, 김덕주, 이맹성, 이병순, 신인석, 김용준, 황희영, 오영주, 원성옥, 최의원, 김혜성, 최종택, 조병길, 김창호, 가정, 박기순, 장리철, 안태성, 나운용, 원정옥, 우 양, 오찬희, 김준목, 목영일, 이덕규, 최홍해, 전동기, 최남열, 가정, 오기송, 박설리, 김의환, 필유일, 김형갑, 오기항, 김자영

## 5) 이 해 성탄절 축하 예배

이 해의 성탄절 축하예배는 12월 21일 주일에 있었다. 축하 예배 후에는 축하 식사와 친목의 순서도 있어서 비교적 성대히 지낼 수 있었다. 이 예배가 이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예배가 된 셈이었다.

## 6) 1958년을 보내며

내 조카인 인호군의 참사 사건은 내 일생에 가장 큰 슬픔이요 충격이었다. 캠퍼스 부근인 3610 Hamilton Street에 있는 2층집 첫 층을 함께 쓰며 숙식을 함께 하다 당한 일이어서 더욱 더 그러했다. 게다가 이 참사 후에 따르는 장례, 한국과의 모든 연락, 범인들을 재판할 때마다 가족을 대표해서 증인으로 재판장에 출두해야 하는 일 등 우리 내외는 이 해에 연말도 생각할 틈이 없이 한 해를 보냈다.



# CHRISTMAS GREETINGS

Dec. 14, 1958

Dear Friend:

The message of Christmas is the world's most unique and momentous news, the glad tidings of God's unspeakable gift to man in the person of His son, Jesus Christ, who took upon himself human flesh at Bethlehem in order to become our Savior.

We rejoice in the birth of the Savior at this happy season because of its true spiritual significance, in that through faith we find in the Christ of Bethlehem's manger the secret of our peace with God.

We, as Koreans in Philadelphia, plan to celebrate the birth of our Lord in a special Christmas service on Sunday, December 21, 1958, at 2 p.m. at the C. A. Building, 36th and Locust Streets, Philadelphia. You are cordially invited to this Christmas service.

-----

## Program

Introit	
Call to Worship	
Prayer	
The Scripture - Isaiah 7:14, 9:6-7, Micah 5:2	Rev. Ui Won Choy
Quartet - "The King Of The Hosts"	Rev. Uy Il Pil
The Scripture - Luke 2:1-14	Rev. He Sung Kim
* Hymn - "Hark! The Herald Angels Sing"	Choir
Korean Hymn 112	Rev. He Sung Kim
The Scripture - Matthew 1:18-24	
Solo - "Oh, Holy Night" - Adams	Rev. Hi Bo Kim
Christmas Message - "Immanuel"	Mrs. Ki Hang Oh
Prayer	Rev. Hi Bo Kim
Solo - "In Old Judea" - Geibel	Rev. Hi Bo Kim
Trio - "Away In A Manger" - Kirkpatrick	Virginia George
	George Sisters
Solo -	Esther, Ruth, Virginia
Piano Solo - "Christmas Fantasy" - Jueller	Mrs. Ui Won Choy
Announcements	Ruth George
* Hymn - "Joy To The World"	Rev. Ui Won Choy
Korean Hymn 110	
Benediction	
	Rev. Ui Won Choy
* Congregation standing	

1958년 성탄절 성탄예배 초청장



- 195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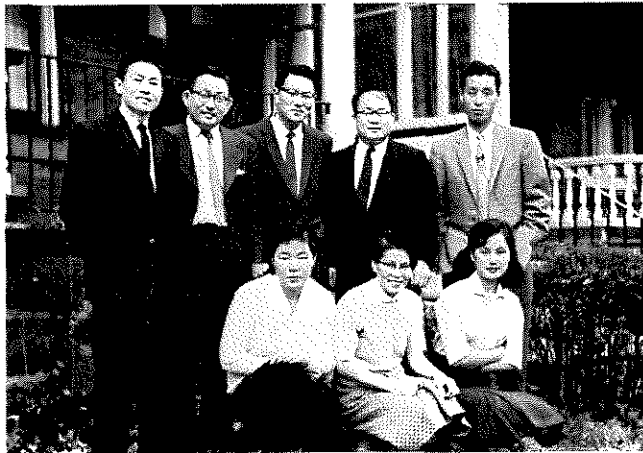


## 1) 1959년을 맞다

인호군의 참사사건 후 온 교우들의 염려도 컸지만 특히 최의원 목사님의 수고 또한 컸다. 우리 가정이 겪는 슬픔에의 동참은 물론이고 장례식 집전 등 최목사가 도맡다시피 수고했다. 이런 어려움 중에도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는 별 차질이 없이 진행되었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 2) 교회 예배 장소 이전

이 해 9월에는 교회 시작 후 6년 동안을 써왔던 C. A. Building에서 떠나 거기에 멀지 않은 42nd and Pine Streets 에 있는 Woodland Presbyterian Church로 예배와 기타 집회 장소를 옮겼다. 주로 이 교회의 부속 건물인 Fellowship House를 쓰기로 했다. 장소도 넓고 자유롭고 조용한 곳이어서 우리 모임에는 적합한 곳이었다. 학생 교회인 우리 형편을 들어 안다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인 Dr. Stanley Gambell 목사께서 초대해 주셔서 옮기게 된 것이다. 또 특별 집회에는 교회 본당도 쓸 수 있게 허락해 주셨다. 온 교우들은 감사를 금치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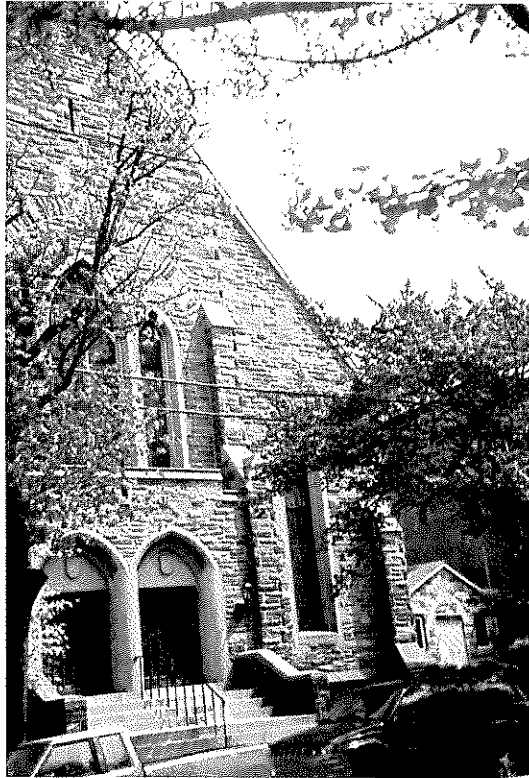


예배 후 간담친목 (뒷줄 중앙에 서신 분이  
오인호 장학금 수상자 중 김형갑 Pen 대학원생, 1959년)

## 제 2 장

### 우드랜드(Woodland) 기간

(1959년 9월~1966년 10월)



6년 동안 예배장소, 기타 모임장소로 쓰던  
Penn 대학 캠퍼스 부근에 있는  
Woodland Presbyterian Church  
(1959년 9월 ~ 1966년 10월)

## 1) 우드랜드 기간 시작



우드랜드장로교회 Recreation Room을 평상시 예배장소로 쓰고 특별집회 때는 교회 예배실을 사용함  
(옮긴 후 처음으로 가졌던 예배)

이미 말씀 드린 대로 약 6년 간 예배장소로 사용해 왔던 C. A. Building에서 우드랜드 장로교회당으로 교회 장소를 옮겼다. 교회 모든 행사들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 교회 부속 건물인 Fellowship House를 사용했다.

## 2) 이성봉 목사님의 유학생 복음화 집회

이 해 8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3개월 간 한국에서 이성봉 목사님이 오셔서 주로 필라델피아 지역에 머물며 유학생 복음화집회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목사님께서



미국에 머무시는 동안 주로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가졌다. 새로 믿기로 작정하는 학생 또는 일반 참석자들도 나오고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나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 특별히 10월 25일에는 목사님께서 학생들을 중국식당에 초대하여 식사도 대접하고 은혜로운 설교로 참석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었다.

한국교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이성봉 부흥사께서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선교 중 초대한 신앙친목회 모임  
(1959년 10월25일(주일) 예배 후)

중앙줄 오른쪽부터 벤자민 리(과학자), 그 좌편이 이성봉 목사, 고현봉 목사, 오기향, Mr.Sandberger, 신용무  
앞줄 우편부터 오기송, 손영섭, Tom, 이애다, Mr.구, 이태욱, 김자영, 오옥실, Mrs.Sandberger  
뒷줄 우에서 두 번째 박학도 대위

## 3) 처음 당한 시련

전도자 사도바울은 빌립보교회 교인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 1장 29절)

이 성경 말씀은 한국이 일본의 치하에 있었을 당시 동경 유학시절 사상범으로 일인 형사들에게 끌려가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에 내게 용기를 주었던 구절이었다.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그 당시에는 이런 성구들이 신앙인들에게 항상 경각심과 용기를 주는 성구들이었다. 나도 이런 구절들로 신앙적 힘을 얻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에서 해방된 후로는 전도활동을 하면서 그런 경각심을 가져 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해방 후 특히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서 종교 활동 때문에 남몰래 일종의 핍박에 가까운 고통과 시련을 받았다면 누구도 잘 믿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 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내 신앙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으로 믿고 겸허한 마음으로 참으며 그 고통을 감사히 받기로 했다. 나무가 깊이 그 뿌리를 박고 그 썩은 가지들을 제거하므로 싱싱히 자라려면 때로는 바람도 맞아야 함과 같다고 생각도 했다. 길다면 긴 반세기를 뿌리 없는 이역에서 부족하지만 복음의 힘으로 비바람 없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더듬어왔다고 하면 이 또 누가 믿겠는가! 이 부족한 경험들을 여기에 얼마라도 남기기로 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의 기도의 노력도 없지 않았다. 그것들 중 한두 가지를 대강이나마 여기에 기록하고 지나가기로 한 이유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좀 더 깊이 보는 데와 신앙에 따르는 시련 아래 있는 신앙 후배들에게 무슨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 이 부족한 경험 한 돌을 여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나와 교회에 대한 허위 모함을 조작하여 루머로 뒤에서 돌리고 있다는 말은 이미 전부터 들은 적은 있었으나 관심을 가지지 않기로 하고 있었는데 한국 교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부흥사 이성복목사님께서 유학생 복음화 목적으로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머물러 있는지 얼마 안 되었던 하루 나를 목사님의 숙소에서 만나자고 해서 목사님께서 숙소로 찾아갔다.

이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루는 H의사(이름은 사용치 않기로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분이 K라는 여인을 대동하고 목사님의 숙소를 찾아 왔더라는 것이다. H의

사가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인즉 오기향이라는 사람은 흑인 청소년들에 의해서 살해된 조카의 이름을 팔아서 사재를 모으고 또 직십자사의 공공 전화를 써서 장사를 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는 사실은 우리 교포사회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니 목사님께서도 오기향이라는 사람과는 시급히 손을 떼라는 진언을 해 왔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말을 계속했다. 이 일은 결코 비밀리에 묻어둘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H의사를 여기에 오라고 했으니 나도 그때 나오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조카를 잃은 것만 해도 마음이 쓰리고 아픈데다 죽은 조카의 이름까지 들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상 모함을 받게 되니 실로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충격이 내게서만 끝날 일이 아니고 내가 성심껏 섬기고 있는 교회에까지 미칠 것을 생각하니 그 충격은 더 컸다. 머나먼 땅에서 몇 명 안 되는 우리들이 다 뭉친다고 해도 역부족인데 동족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다니! 일본 치하에서 7년 동안 동경 유학시절 교회 교우들이 서로 격려하며 신의를 보화로 삼고 살았던 그때가 그리웠고 해방 후 전주에서 인천에서 젊은이들과 서로 섞여 허물없이 친교를 나누었던 그때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 4) 삼자대면

정한 시간이 되어 이목사님, H의사, 나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았다. 이목사님이 오라고 한 이유를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H의사가 말문을 열더니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 죄송하다며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아무 할 말도 없었다. 다 잊기로 하고 악수를 나눈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자기의 경험담을 내게 말하면서 "오선생, 이제 일이 다 끝난 것은 아니요" 열매를 봐야 안다면서 목사님은 내가 보통 듣기에도 거북한 감을 주는 말씀을 하셨다. "사탄은 그 머리를 한번 맞는다고 물러가지는 않으니 그리 아시오"라는 믿기 어려운 말씀을 남기셨다. 아니 그럴까, 그 후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오기향이 울며 자기에 용서를 구했다는 실로 믿기 어려운 말들이 들려왔다.

그 후 내 머리에는 그동안 들으면서도 해답을 얻지 못했던 일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K여인의 한인교회 불필요설을 위시해서 내게 대한 루머의 해답들이 멈추지 않았다. 한번은 젊은 의사 두 분이 찾아와 필라시에 온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H의사가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오기향이라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면서 거기 갈 때에는 지

갑을 집에 두고 가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돈을 빼앗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믿어지지 않아 찾아왔다고 했다. 또 한번은 ISI에서 나와 같이 일하는 Tayler라는 동료가 자기에게 온 편지라고 하면서 나더러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보았더니 H의사가 그에게 보낸 편지였다. 내용은 이러했다. 오기항이는 한국 학생회 회장 자리를 탐내서 학생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으니 ISI에서 관계를 끊으라는 편지였다.

그 무렵 더 놀란 것은 한번은 IRS(연방세무국)에서 오인호 기념 코리아센터 사무실에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 해 동안의 장부를 다 내놓으라고 해서 회계하시는 분이 있는 대로 다 내놓았더니 이를 간이나 엄밀히 조사하는 것이었다. 조사가 다 끝난 후 이 여자 세무직원이 내게 말하기를 장부에서 보니 참 모범적인 좋은 일이라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 우리는 이 분주한 세무직원이 어떻게 죽은 조카를 기념하기 위해 희생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이 작은 비영리사업을 찾아와서 이같이 시간을 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미안하다고 했는지 지금도 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면을 아끼는 의미에서 이 이상 더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공부를 목적으로 낫선 땅에 와서 교회를 찾는 순진한 학생들에게는 무슨 말인들 못했을까! 나로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외에는 다른 길은 생각지 않았다.

## 5) 최의원 목사 사임

교회 강단을 맡아 수고해 오던 최의원 목사가 사임하고 귀국하게 되었다. 최목사는 195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동안 이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봉사하셨다. 금년 6월에 박사학위를 끝내고 한국에서 교수로 초청 받아 떠나게 되어 1959년 7월에 사임했다. 사임한 후에도 떠나시기까지 계속 강단을 위해 수고하여 주셨다. 그 동안 오인호 참사사건 등 기대치 못했던 일들로 수고하시다가 떠나게 되는 목사님을 축하하는 동시에 이별의 애석함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 6) 고현봉 목사 후임

최의원 목사님의 사임으로 공석이었던 주일예배 강단을 이 해 12월부터 고현봉 목사님이 맡아 주시게 되었다. 고목사님도 젊은 목사로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Faith 신학교에 오셔서 공부 중인 분이였다. 이전부터 자주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던 터라 교인들과도 친교가 있는 사이였다. 학생 형편이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강단을 돕기로 했다. 물론 그것은 자원봉사의 자리였다.

## 7) 교회재정보고

당시의 교회 재정은 이 해 12월 13일 "교회 소식"지에 나타나는데 의하면 다음과 같다.

-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 재정 보고 -

총수입(1959년 10월 4일~12월 6일).....	\$107.10
주일헌금.....	94.25
특별헌금.....	14.78
감사헌금.....	54.59
총수입.....	\$107.10
총지출(1959년 10월 4일~12월 6일).....	\$94.25
우송료.....	19.65
다과비.....	5.66
감사절식사.....	40.24
이성봉목사 송별금.....	20.00
이성봉목사 송별 선물.....	2.05
용지대금.....	6.46
총지출.....	\$94.24
잔금.....	\$12.18

## 6) 성탄축하 예배

이 해 성탄축하 예배는 12월 18일 주일에 있었다. 이 교회 본당에서 성대히 가졌다. 그날 축하예배순서는 다음과 같다.

### 성탄축하 예배순서

1959년 12월 18일 주일 오후 8시 15분

사회 ..... 최의원목사

목도

찬 송 .....	94장 "천사 찬송하기를"
주기도문	
성경봉독 - 마태복음 1장 18~25절 .....	고현봉목사
삼중창 - "Away In A Manger" .....	The George Sister
기 도 .....	최의원목사
알리는 말씀 .....	최의원목사
헌 금 .....	헌금위원
독 창 - "The Holy City" .....	김자영
헌금기도 .....	사회자
성탄절 설교 -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 .....	필유일목사
피아노 독주 - "Christmas Fantasy" .....	Ruth G. George
찬 송 - 84장 "아 기뻐라 주 오셨네"	
축 도 .....	고현봉목사

예배 후 다과와 친목순서가 있겠습니다.

- 1960년 -

## 1) 새해의 교회 봉사를 위한 제직

목사 - 고현봉목사

집사 - 오기송, 오기향, 박학도, 문태화, 김자영, 김성숙

서기 - 문태화, 회계 - 신용무, 하명조

성가대 위원 - 정기섭, 현재경

반주 - 김자영, 김성숙

고문목사 - 최의원, 필유일, 정승일, 김혜성



## 2) 교회의 안정된 모습

교회 장소 이전, 이성봉 목사님의 집회, 교회가 받은 첫 시련 등으로 분주했던 1959년의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고현봉 목사님의 수고와 교우들의 협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고 있었다. 주일예배, 수요기도회, 기타 신입생 환영예배, 야외 예배 등 특별 집회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찬양대 모습



필라델피아에서 얼마 떨어져있지 않은 Valley Forge공원에서 야외예배를 가짐. 뒤에 보이는 건물은 Washington Memorial Chapel



하기 신앙수련회의 그룹기도의 장면  
(Keswick 신앙수련장에서 1960년 여름)



멀리서 오신 수련회원 환영(1960년)

## 3) 환송예배

이 해(1960년) 5월 15일 주일에는 학업과 연구 과정을 마치고 귀국 또는 이곳을 떠나

는 분들을 환송하는 예배가 있었다. 다음 분들은 환송을 받으신 분들이다.

귀국 - 박학도 의무대위(본교회 집사), 배만실여사(본교회 교우),

로관택(본교회 교우), 이애다 간호원(본교회 집사)

타지 - 심춘원(본교회 교우)

### 3) 최의원목사 귀국

본교회를 위해서 수년 동안 수고하시고 또 고문 목사님으로 계시던 최의원목사님은 학위를 마치시고 부인되시는 김선숙 사모님과 함께 6월 하순에 귀국하셨다. 목사님은 귀국하셔서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셨다. 김선숙 사모님도 이곳에 계시는 동안 교회찬양대 등 여러가지로 수고하신 데 대해서 교인들은 감사를 아끼지 않았다.

### 4) 강성주 목사님과 김인환 C.E. 부회장 환영회

이 해(1960년) 7월 30일 주일 오후 3시에는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한국 침례교 총회장 강성주 목사님과 한국 면려기독교 청년회 부회장 김인환 부회장의 환영예배가 고 오인호군의 시신이 묻힌 Old Pine 장로교회에서 고목사님 사회와 서울 합창단의 찬양 순서 등으로 개최되었다. 예배 후에 있는 다른 특별 순서에는 고 오인호군 무덤 헌화와 "An Epistle from the Koreans"가 상영되었다. 이 장로교회는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 미 독립회관 구역에 자리잡고 있는 교회이다.



고 오인호 기념예배와 장학금 수여식  
(Old Pine 장로교회에서, 축도 고현봉 목사)



고 오인호 추모장학금 수상자들의 헌화

## 5) 신앙좌담회

1960년 9월 4일 주일예배 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좌담회 준비 위원회가 주최한 신앙좌담회가 교회 친목실에서 개최되었다. 좌담회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좌담내용 - 1) 학생과 교회생활  
2) 미국인의 가정생활  
3) 한국 새 정부에 대한 기대

좌담준비위원회 - 오기송(펜대학원 국제정치학), 신용무(펜대학원 물리학), 김형갑(펜대학원 전자학), 조규석(펜대학원 전자학), 이장옥(의사)

## 6) 감사절과 성탄절

이 해 11월 20일에 있었던 감사절과 12월 25일에 있었던 성탄절 예배는 예년과 같이 많은 새 교우들의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예배 후에 있었던 식사와 친목 순서들도 교우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준비로 다 고향을 떠난 향수를 잊고 귀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 -1961년 -

새해를 맞으면서 교회는 고현봉 목사님의 수고와 온 교인들의 꾸준한 협력으로 모든 순서들이 은혜 중 진행되고 있었다. 다음은 이 해에 있었던 특기할 일들만을 적어보 고자 한다.

### 1) 신년 축하예배

새해 정월 1일은 이 해의 첫 주일이었다. 교회에서는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신년 축하 다과를 나누며 새해를 맞았다.

## 2) 부활 주일예배

이 해 4월 2일 주일 오후 3시에는 온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축하식사와 친목의 모임도 있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 3) 새 학생 환영예배

이 해 10월 15일 주일에는 이 지역 대학에 유학 온 새 학생들을 환영하는 예배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다과를 나누면서 환영과 친교의 귀한 시간을 가졌다.

## 4) 감사절 예배

이 해 11월 19일 주일에는 감사절 예배가 있었다. 설교는 고현봉목사님께서 하시고 예배 후에는 친목식사가 있었다. 이날 참석 교인 수는 약 70여명이었다.

## 5) 합동 성탄 축하예배

이 해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두 번 있었다. 첫 번 축하예배는 12월 17일 오후 3시에 필라델피아 북부에 있는 Faith 신학교 강당에서 가졌고 다른 하나의 축하예배는 뉴욕 한인 교회와 합동해서 뉴욕 한인 교회에서 모였다. 뉴욕에서 모인 축하예배는 뉴욕 한인 교회 합동 축하예배 제안을 받아들여 가진 축하예배였다. 이 예배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있었다. 처음 가지는 합동예배여서 의의가 깊었다.



뉴욕주 King's Collage에서 가졌던  
국제 하령회(1961년)



야외예배 광경



국제 신앙 컨퍼런스

## - 1962년 -

### 1) 새해 제직

새해의 제직은 다음과 같다.

- 목사 - 고현봉목사
- 총무 - 오기항
- 서기 - 김익찬
- 임원 - 오기승, 백병건, 김익찬,  
유정순, 김자영, 최옥엽, 오기항

### 2) 성가대원

새해에 성가대원은 다음과 같다.

- 지휘 - 김자영, 피아노 - 김훈모
- 소프라노 - 정재명, 이해자, 오찬희, 홍선복, 한은희
- 앨토 - 오옥실, 김영순, 박기순, 오영주, 오정순, 최옥엽, 한순정, 임정덕
- 테너 - 송영달, 한수호, 황희영, 김명혁, 김영철, 신용무

베이스 - 최정일, 이광덕, 이성무, 이송래, 방지형, 백병건, 오기송

### 3) 교회 이름, 신조, 교파

1962년 5월 20일 오후 7시에 있었던 교회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의논해오고 있었던 교회의 공식 이름, 신조, 교파에 관한 문제를 매듭지었다. 교회가 1953년 9월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성경 기도모임으로 불리어졌으나 그 후 1955년경부터는 필라델피아 한인교회로 불리어졌다. 그 시절에는 신조나 교파의 구별이 없이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자연히 신조 교파의 문제들이 논의되게 되었다. 게다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는 신학생과 목사님들 또는 장로교의 배경을 가진 교우들의 수가 더해진 결과로 이 문제들이 토의되었고 결정을 보게 된 것이다. 공식 이름은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Philadelphia Korean Presbyterian Church)로 결정을 보게 되고 신조와 교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조와 헌장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위원은 다음 분들이었으며 전원이 참석했고 회의 장소는 페이스 신학교였다. 그리고 이 회의에 모였던 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 - 고현봉목사, 백병건목사, 김익찬전도사, 오기송집사, 오기항집사, 최옥엽전도사, 유정순집사, 김자영집사

### 4) 고현봉목사 사임

1962년 9월 19일 오후 9시 7914 Ivy Lane, Elkins Park, Philadelphia 최옥엽 전도사 댁에서 모인 교회 위원회에서는 고현봉목사님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고현봉목사님은 박사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서 텍사스주 달라스시에 소재한 달라스 신학교에 가게 되어 사표를 제출하셨다. 고목사님은 1959년 12월부터 약 3년간 학생 생활의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강단을 맡아주셨다.

### 5)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에 법인으로 등록

1962년 9월 17일 교회는 종교법에 따라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완료했다. 등록수속은 변호사 Edward Rocap씨가 수고해 주었고 법인이사 중에 미국시민 3

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교인들이 다 유학생들이어서 법인에 필요한 3명 시민을 포함시킨 것이다. 법인 이사는 다음과 같다.

교인 법인이사 - 고현봉, 백병건, 오기송, 김익찬, 오기항, 최옥엽

미국시민 법인이사 - Herbert P. Weirman, William L. Baumner Jr., Edward Rocap

## 6) 교회 창립 제 9주년 기념예배와 행사

1962년 10월 21 주일에는 교회 창립 제 9주년 기념예배와 행사가 있었다. 이날의 예배는 본당 대예배 장소를 사용했다. 참석자 수는 축하객까지 합쳐 120여명이었다. 예배 후에는 기념 식사와 친목순서들이 있었고 간략한 "필라델피아 교회사"(History of the Korean Church in Philadelphia)도 참석자들에게 분배되었다.

## 7) 백병건 목사 강단을 맡다

고현봉 목사님의 뒤를 이어 백병건 목사님이 이 해 1962년 10월에 임시로 강단을 맡게 되었다. 백목사님은 그 당시 학생으로 Faith 신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 역시 학생이어서 시간을 내서 교회에 봉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 자리를 맡아 주셨다. 물론 그 이듬해인 1963년 4월 6일에 정식으로 강단을 맡게 되었다.

## 8) 뉴저지주 캠프시 Alfred Pierce 시장께서 설교

1962년 12월 2일 주일예배에는 캠프 시장 피얼스씨가 설교를 맡아 주셨다. 마태복음 5장 14 - 16절 말씀으로 젊은 교인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 9) 성탄축하 음악회

1962년 12월 29일에는 본교회 주최 성탄축하 음악회가 펜대학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교회 성가대원 30여명과 5명의 외래 찬조 음악인들이 함께 성가대의 합창, 피아노, 바이올린 독주 그리고 성악 등 다채로운 순서들로 400여명의 청중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그 날 청중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흑인 여자 성악가

Marian Anderson, 펜대학 부총장 외 교수, Faith 신학교 총장 Allen MacRea 박사 외 수명의 교수들 그리고 이밖에 각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행사는 아시아계 교회로서는 처음 빛을 보인 행사여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각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타냈다. 이 모임에 특별히 수고해준 분 중에는 다음 분들이 있었다.

김자영: 소프라노 독창과 성가대 지휘

현혜옥: 소프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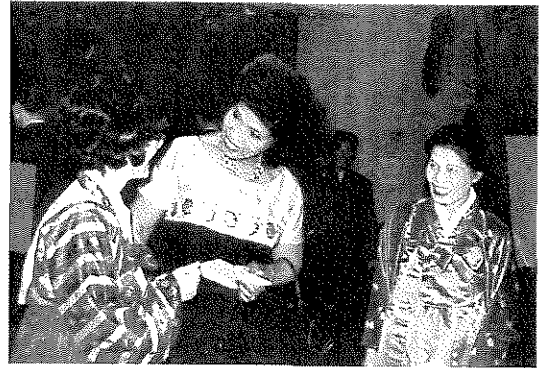
현해은: 바이올린 독주

김훈모: 피아니스트

백낙호: 피아니스트



성탄축하 음악회(1962년 12월 29일)  
지휘자 김자영



성탄축하 음악회에 참석한  
Marian Anderson 여사(가운데)



성탄축하 음악회에 참석한  
함석현 선생과 Marian Anderson 여사



성탄축하 음악회에 참석한  
펜대학 부총장과 함께




*Christmas Musi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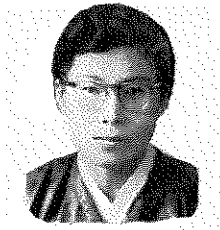
presented by

PHILADELPHIA KOREAN  
CHURCH CHO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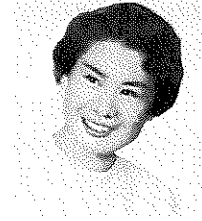
Saturday, December 29, 1962 at 8:00 p.m.



At Museum Auditorium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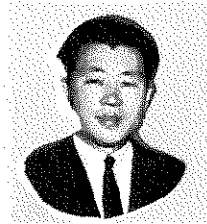
ZA YUNG OH  
SOPRANO



HAI OK H. PAIK  
SOPRANO



HOON MO KIM  
PIANIST



NAK HO PAIK  
PIANIST



HAI EUN HYUN  
VIOLINIST

성탄축하 음악회 프로그램과 출연자들

## 10) 1962년도 재정 보고

1962년 재정 보고는 다음과 같다.

총수입 ....	\$236.00
주일헌금.....	\$236.00
총지출 ....	\$150.00
성탄축하 음악회....	\$150.00
잔금.....	\$85.18

##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IN PHILADELPHIA

The father of our faith, Abraham, built an altar wherever he went. Another of our forefathers, Jacob, said in Genesis 28:16,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knew it not." After this experience with God in a dream, he set up a pillar and called it Bethel. This, he said, would be God's house.

In the fall of 1953, several Christian Korean students gathered every week in their different rooms for a time of worship. Their purpose was to worship God with sincere hearts and minds, to read the Word of God and to pray for their homeland which was enduring much suffering at that time. The spirit which prevailed in these weekly meetings was the beginning of the Korean Church in Philadelphia.

As the group continued, it began to grow, so they sought larger quarters. In the spring of 1954 they began to meet in the second-floor chapel of the Christian Association Building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ere were more than fifteen who gathered every Sunday to worship. In the spring of 1955, they took the name of Philadelphia Korean Church. The numbers increased from 20 to 40. There were several Korean students who were attending seminary, and these took turns preaching.

However, by the spring of 1957 we thought it would be better to have one minister to take ful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We invited Rev. Eui Won Choi to be our first minister. Then the congregation desired to have a place near a church to worship, so on September 9, 1959, by the good will of the Woodland Presbyterian Church, we used the fellowship house of their premises for the first time. The same year we invited the famous Korean evangelist, Rev. Sung Bong Lee, to hold special revival meetings for one month. Our church was strengthened in faith, and several came to accept Christ as Saviour. These are now back in Korea serving the Lord in various 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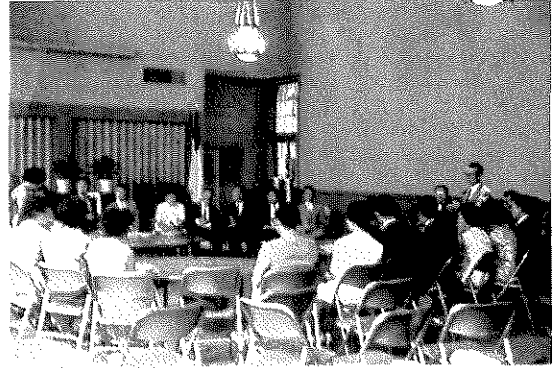
In December of 1959 Rev. Choi resigned as our pastor, as he had completed his schooling and had accepted a professorship in Korea. Shortly after he left, Rev. Hyun Bong Ko was called to minister to us. Under Rev. Ko's faithful labor, the church continued to grow spiritually and in numbers.

On September 17, 1962, the church was legally organized and incorporated. This was the result of much work and many prayers on the part of our faithful membership. However, the glory belongs to God for the growth of this work. The trials and storms throughout the past nine years were not few, but each experience served to deepen the roots of our faith, and He kept us going. We sincerely hope and pray that this church will be the lighthouse of this area, in the sense of faith and love, to those Koreans who are passing through.

Philadelphia Korean Church  
October - 1962



야외예배- 고현봉 목사 설교 (1962년)



신앙 좌담회

## - 1963년 -

### 1) 새해의 교회 부서

목사 - 백병건목사, 고문 목사 - 이명재, 백인규, 김영용

총무 - 오기항집사

재무 - 김익찬집사, 회계 - 이광덕집사, 오옥실집사

섭외부장 - 유정순집사, 전도부장 - 최옥엽전도사

음악부 - 김자영

### 2) 미국인 교회와의 합동 찬양의 밤

52nd Street와 Baltimore Avenue에 있는 Wayland Memorial Baptist Church에서 함께 찬양예배를 드리자는 제의로 1963년 2월 10일 토요일 밤 8시에 합동 찬양의 밤을 가졌다.

### 3) 구역설정

1963년 3월 17일에 있는 교회 임원회에서는 교인들의 신앙생활, 교인간의 친목과 전도를 위해서 구역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각 구역 책임자를 선출했다.

- 구역과 구역장 - 서부구역(West Phila.) 책임자: 김자영집사
- 브로드 스트리트(Broad Street): 백인규목사
- 센터 시티 (Center City): 오기송집사
- 북부(North Phila.): 김영용목사
- 시티 라인(City Line): 오옥실집사

### 4) 미국에서 순회 중인 한국 고아합창단 식사대접

1963년 3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미국순회 중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공연 중이던 World Vision 한국 고아합창단 어린이들을 한국 음식으로 대접했다. 뉴저지주 코린우드에 있는 Colingwood Methodist Church 교회당을 빌어 장소로 썼다. 합창단 관계자들까지 합쳐 60여명이었다.

### 5) 교회용 소형 버스 구입

이 해 1963년 4월 6일 교회용으로 소형 버스 한 대를 구입했다. 교통이 불편한 교인들 특히 시 북부에서 오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이 버스는 주로 북부에서 오셨던 백병건목사님이 운전하셨다.

### 6) 졸업생 축하 겸 송별예배

이 해 1963년 5월 14일 주일에는 학업을 마치거나 또는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교우들의 축하와 송별을 위한 예배를 Longwood Garden 에서 가졌다.

### 7) 우리 숙소를 다시 학교 가까운 시내로 옮기다

친구들의 권면도 있고 해서 그 동안 시에서 차로 약 20분 운전 거리에 있는

Norwood 라는 조용한 교외에 살고 있었다. 교회와 좀 떨어져 있게 되니 찾아오는 학생들의 불편도 있고 하여 다시 시내 캠퍼스 부근으로 옮기기로 작정하고 찾은 집이 지금도 살고 있는 58가 Thomas Avenue에 있는 집이다. 옮긴 때는 1963년 6월경이었다. 펜대학까지는 운전으로 15분 내외 걸리고 시내버스나 전차로도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되어 이곳에 옮기기로 작정한 것이다. 비교적 큰 3층집이었고 찾아오는 학생 또는 교인들을 만나기에는 편리했다.

## 8) 목사안수를 받다

1963년 7월 9일 화요일 Washington D.C.에 소재한 국제 학생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나는 일생을 평교인으로 교회에 봉사하기로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된 데는 내 나뉠대로의 몇 가지의 심적 변화가 있었다. 그 중의 하나는 주로 학생과 잠깐씩 머물다가 떠나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재정적 능력이 없었던 교회를 봉사해 오면서 항상 어려움에 부딪혔던 점은 강단을 맡아 줄 목사님을 찾는 일이었다. 평교인으로서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다른 하나는 국제학생회 한국부 책임간부로 일하면서 느꼈던 점이었다. 간부의 거의 다가 목사들이었는데 평교인인 나로서 일하게 되니 거기 또한 한 난점이 있었던 데다 꼭 목사안수를 받으라는 주위 간부들의 집요한 권면도 없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를 앞에 놓고 계속 기도해 오던 중 안수를 받는 것이 부족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게 된 것이다.

## 9) 1963년도 회계보고

총수입 .....	\$930.33
지난해 이월금.....	\$ 85.18
주일헌금.....	\$845.15
총지출 .....	\$287.35
성탄 음악회.....	\$252.85
건물건적금.....	\$35.00
총잔액 .....	\$642.98

## 9) 교회봉사에 따른 경험

미국에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 당시 나로서는 처음 겪었던 경험 중 기억나는 한 가지를 여기에 적고자 한다.

5811 Thomas Avenue로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었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찾아 왔다. 찾아온 이유는 이러했다. 미국에 유학 온지 몇 년이 된 어느날 몸이 불편해서 진단을 받았더니 폐병이니 곧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여 입원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후 하루는 이민국에서 공부를 더 할 수 없으니 곧 귀국하라는 통지를 받고 고민하던 중에 한 친구로부터 오기항선생을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 왔다는 것이었다. 말을 듣고 보니 사정이 딱했다. 갈 곳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같은 학생의 형편이어서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지 막막했다. 그래서 집사람과 의논한 후 불편한 대로 우선 우리 집에 함께 있기로 하고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미국에 와서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서 내게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지만 힘써 노력한 끝에 어려웠던 이민국관계, 학교의 학업계속 그리고 생활안정 등 잘 풀리게 되었다. 처음 당하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고 감사했다.



예배후 친목(독사 가정 방문교인들)



새로 온 유학생 Orientation

— 1964년 —

### 1) 1964년을 맞은 교회

교회는 백병건 목사님의 수고와 교인들의 협조 가운데 계속 모든 순서들이 변함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 이 해 정월 첫 주일에는 예년과 같이 신년 축하예배가 있었고 4월 5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었으며 5월 24일 주일에는 야외 예배를 Valley Forge 공원에서 가졌다.

## 2) 제 8회 유학생 순회심방

제 8회 유학생 순회 심방은 이 해 (1964년)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있었다. 이번 여행은 Georgia 주와 Ohio 주의 Detroit 시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Detroit 와 Ann Arbor 에서는 60여명의 유학생을 만나 친교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여행에도 집사람이 동행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었다.

## 3) 백병건목사 사임

1964년 8월 그 동안 교회 강단을 맡아 수고하시던 백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게 되어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었다. 시간을 내어 수고하셨던 목사님을 보내는 교인들은 아쉬움과 감사를 금치 못했다.

## 4) 담임목사로 취임

백병건목사님이 사임한 후 1964년 9월 20일에 내가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받기로 결심한 것이다.

## 5) 목사취임예배

1964년 9월 20일 주일에는 나의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있었다. 이 취임예배 설교는 Faith 신학교에서 계시는 김지석 목사님이였다. 설교제목은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였으며 참석자는 약 60명이였다.

## 6) 출석교인 분류

이 당시 필라델피아 인근지역에 와있는 유학생, 의사, 간호원, 교수 기타 프로그램으로 와있는 총 한국인 인구는 약 300명이라고 추산되어 있었다. 1964년 25일 교회 참석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교인 수는 121명이었다. 이 교인들을 남녀별, 직업별 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평균 참석자 수는 60명 내외였다.

등록교인 총수..... 121명  
 성별 ..... 남 - 74명  
           여 - 47명  
 직업별..... 목사 - 10명  
           의사 - 7명  
           간호원 - 9명  
           유학생 - 54명  
           교환교수, 연수원, 기타 - 25명  
           유년 - 4명  
           영아 - 12명

### 7) 1964년도 회계보고

1964년 1월 1일~12월 31일 회계보고는 다음과 같다.

총수입(주일헌금, 감사절헌금) ..... \$1,244.21  
 총지출(교회다과, 사무용지 등) .... \$1,191.35  
 잔액 .... \$35.27  
 건축헌금 ..... \$254.80

### 8) 새 유학생 환영예배

1964년 10월 19일 주일에는 한국에서 필라델피아 부근 대학으로 온 유학생 환영예배가 있었다.

### 9) 처음 있는 장례식



1964년 10월 13일 예는 이성희군의 장례식이 있었다. 이 교회로서는 처음 있는 장례식이었다. 같은 해 10월 15일에는 양재남 간호원의 장례식이 있었다.

## 10) 처음 있는 세례식

이 해 1964년 11월 21일 주일에는 장년 세례식이 있었다. 세례 받고 입교한 교우는 다음과 같다.

김영진의사, 김예흠의사, 최종택(템플대생)  
차영용(템플대생), 박만서(라사레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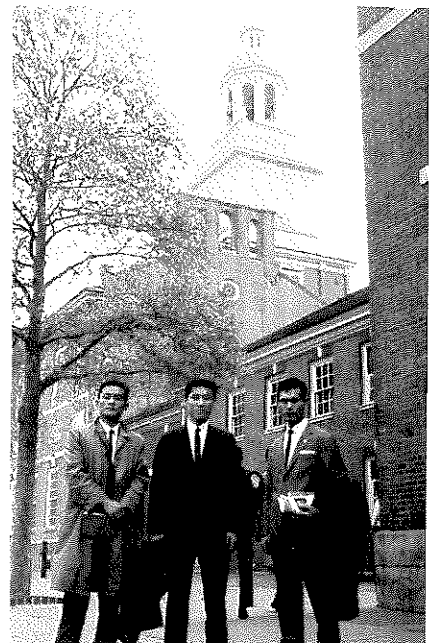
## 11) 처음 있는 유아세례

1964년 12월 6일 주일에는 유아세례식이 있었다. 처음가진 유아 세례식이었다. 세례 받은 유아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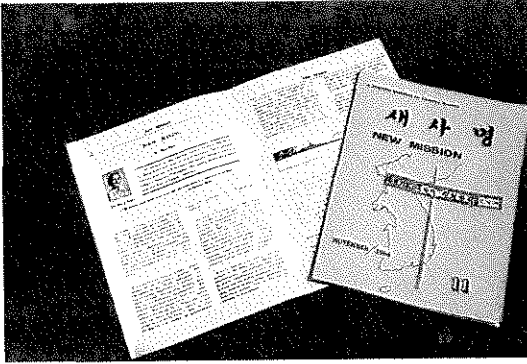
박혜숙, 박혜영(부친 박영호의사), 오은애(오기항목사)



Washington D.C. 벚꽃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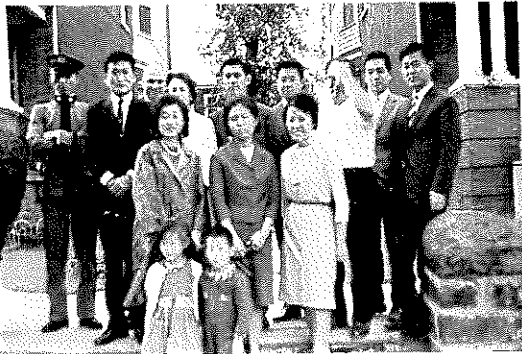
새로 이 지역에 온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  
(독립회관을 배경으로)



새로 발간하고 있었던 새사명지



하령회 그룹성경공부와 Prengle씨



새로 이 지역에 이사온 유학생



예배 후 친목



새로 이 지역에 이사온 유학생 오리엔테이션

## - 1965년 -

### 1) 처음 있는 장로 장립식



1965년 2월 25일 주일에는 오기송 장로님의 장로 장립식이 있었다. 이 교회로서는 처음 가지는 장로 장립식이었다. "새 것과 낡은 것"이란 제목의 김지석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오기송장로는 한국 송실대 교수로 펜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었다.

최초로 장로장립을 받은 오기송 장로  
(장립예배 1965년2월 25일)

### 2) 1965년 교회 제직

1965년 3월 교회기록에 의하면 이 해의 교회 제직은 다음과 같다.

목사 - 오기항

부목사 - 정석산(신학생)

장로 - 오기송(교환교수, 펜대학원)

남집사 - 김명혁(신학생) 김선운(신학생) 김수영(펜대학원) 김용준(신학생) 박영호  
(의사) 송창원(Ph.D.) 유의영(펜대학원) 이은우(약대)

여집사 - 김자영(음대) 임정덕(대학) 오옥실(대학) 유정순(대희원) 정재명(신학생)  
김기원(음대)

### 3) 부활절예배

1965년 4월 18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는 제목의 오기항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10가정 이상이 준비해 온 음식의 식사와 친교 그리고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라는 영화를 관람하는 순서가 있었다. 참석자 수는 약 80여명으로 대개는 우리 유학생과 그 가정들이었다.

### 3) 이기혁목사님의 특별집회

1965년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주로 필라델피아에 머물며 특별집회로 유학생 복음화에 크게 힘써주셨다. 첫 모임인 7월 11일 주일예배를 시작으로 "제사장의 직분" 제목 등으로 젊은 유학생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목사님은 인천 제일장로교회 목사님으로 한국 장로교회 노회장 등의 경력을 가지신 목사님이셨다.

### 4) 김계용목사, 광선희목사, 김철현목사 등 교회를 찾아주셨다

1965년 7월 중 김계용목사, 광선희목사, 김철현목사 등이 교회를 찾아주셨다. 광선희목사는 7월 18일 주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해주셨고 김철현목사는 수차례에 걸쳐 강단을 맡아주셨다.

### 5) 여름야외예배

1965년 8월 22일 주일에는 야외예배가 있었다. 치과의사인 Dr. Marccuchi 의사의 초청으로 뉴저지에 있는 그의 Marccuchi Farm에서 거기에 설비된 Chapel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는 넓은 들을 산책도 하고 또 수영도 하며 휴식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주신 그분에게 감사했다.

### 6) 결혼예식

다음 분들은 1965년에 본교회 주례로 가정을 이룬 분들이다.

이 용 이형순, 차영용 이병순, 최정일 이혜경, 이동규 최선옥, 김장환 최은숙,  
손정호 권영순, 김기웅 오경자, 김예흠 오수옥

### 7) 세례식

다음 분들은 1965년 11월 21일 주일에 세례 받고 입교한 분들이다.

장년 - 은종관, 이영자, 유병순, 최승용, 김기웅, 오경자

유년 - 김영선(부 김수영), 황미령(부 황정제), 김정완(부 김교안) 차원진(부 차영용)

## 8) 감사주일에배

1965년 11월 21일에는 감사절 예배가 있었다. 예배순서에는 성찬식과 세례식도 있었다. 이날 세례 받고 입교한 교인은 8명이었다. 예배 후에는 애찬을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가졌다. 이 축하예배의 참석자수는 76명이었다.

## 9) 성탄절 축하 예배와 기타 행사

1965년 12월 19일 주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각종 축하순서들이 있었다. 예배 후의 축하순서들은 오인호 코리아센터(5811 Thomas Avenue, Philadelphia)에서 가졌으며 축하순서 중에는 축하 저녁식사, 각종 여흥 등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참가자의 수는 127명으로 이 좁은 장소를 채웠다. 나그네 생활의 외로움도 잊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성탄 전야인 24일에는 15명으로 구성된 새벽송 순회가 있었다.

## 10) 초기 교회 봉사 경험

여름이 막 지나고 가을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처음 보는 한 여학생이 남학생과 함께 찾아왔다. 이 여학생은 어린 남자아기를 안고 있었다. Rhode Island에서 찾아왔다고 했다. 찾아온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이리했다. 처녀로 기대치 못했던 실수로 산모가 되었다는 것이다. 남자는 그 부근 대학원생으로 한국에 가정을 두고 온 남자로 같이 온 옆에 있는 남자라고 했다. 이렇게 되니 학교 장학금도 중단되어 이민국으로부터 귀국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녀로 아기를 데리고 귀국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자살하는 길을 택하려고 하던 중 친구로부터 필라델피아에 있는 오기항선생을 만나 의논해보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다.

이일은 나로서는 처음 당하는 일이었다. 같이 온 남학생은 죽을죄를 지었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갈 곳이 없는 이 여학생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집사람과 의논했다. 우선 당분간은 이 모자를 집에서 함께 있게 하고 그 남학생은 돌려보냈다. 그후 수년에 걸친 여러가지 일들은 여기에서 약하기로 한다. 그 여학생의 앞날을 막았던 일들은 하나하나 해결되어 아이도 잘 자라고 목적했던 박사학위도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어려운 새 경험이었다. 이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은 감추어진 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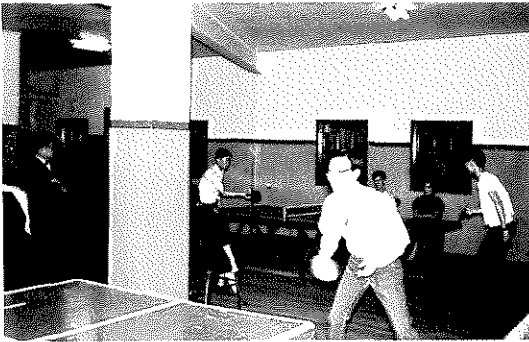
를 맡아준 사람은 집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한다.

## 11) 송구영신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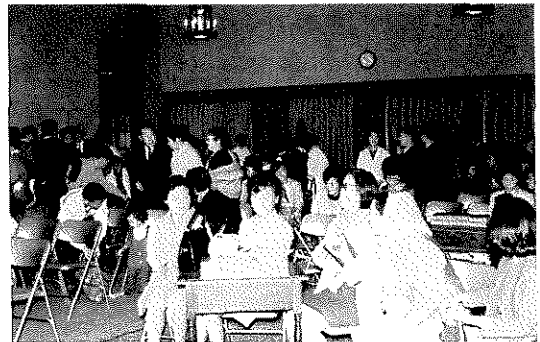
1965년 12월 31일(금) 밤 11시 30분에는 코리아센터에서 송구영신예배가 있었다. 성경을 읽고 묵상과 기도와 감사의 마음으로 묵은해를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았다.



청년회 임원들과 함께



청년회 탁구대회



예배 후 친목회 모임



예배 후 친목회 식사



여전도회 주최 요리강습 (김인식 선생)



성탄절 축하 새벽송



Washington 벚꽃 구경

## - 1966년 -

### 1) 신년축하예배

1966년 정월 2일 주일에는 신년축하예배가 있었다. 예배 후에 기념 코리아센터에 모여 신년 축하 떡국을 나누며 새해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 2) 할비 칸 목사 설교

이 해 셋째 주일예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Prof. Harvie Conn 목사께서 설교를 맡아 주셨다. 칸목사님은 한국선교사로 한국에서 여러해 동안 사역하신 경험을 가지신 분이어서 이날 설교는 유창한 한국말로 해주셔서 더욱 은혜스러웠다.

### 3) 이은우, 김수영 두 장로 장립예배

1966년 2월 20일 주일에는 이 교회로서는 두 번째로 가지는 장로 장립식이었다. 이날의 설교는 "영원한 질문"(요나서 4장 1~11)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준 목사께서 하셨

다. 이은우장로는 약학대학을 한국에서 졸업하고 이곳에서 계속 약학을 전공하는 중이었고 김수영장로는 한국에서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펜대학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중이었다. 두분 다 가정이 함께 와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 코리아센터에서 친목잔치와 여흥 등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4) 청년회 정기총회

1966년 4월 3일 주일예배 후에는 청년회 정기총회가 있었다.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과 부회장은 다음과 같다.

회장 - 황희영(신학생), 부회장 - 임정덕(템플대생)

#### 5) 청년회 헌신예배

1966년 4월 3일 주일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설교는 "믿는 것은 보는 것이다"란 제목으로 본교회 오기송장로님이 하였고 이 밖에 찬양 순서 등으로 은혜롭게 가졌다.

#### 6) 부활주일예배

1966년 4월 10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부활의 확신"(사도행전 2장 29~42절)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 7) 교회 모임장소로서의 오인호 기념 코리아센터

이전부터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교회는 미국인 교회를 주일예배장소로 빌어 쓰게 되었고 주일 이외의 모임은 오인호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모이고 있었다. 코리아센터는 우리 가정이 셋집으로 살고 있던 집을 사서 코리아센터 사업에 쓰도록 한 삼층 건물이었다. 지하실은 개조하여 기도회, 성경공부, 기타 모임에 썼고 첫 층은 접대실, 식당 등으로 썼고 2층은 주로 사무실과 작은 집회실로 썼다. 3층에는 방이 셋 있었는데 그 중의 한 방은 손님침실로 쓰고 나머지 방은 우리 식구들이 썼다. 불편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우리들의 사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8) 오기송장로 송별예배

1966년 8월 21일 주일에는 오기송장로 송별예배가 있었다. 오기송장로님은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락을 함께 해온 장로님이었다. 이번 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끝내시고 켄터키주에 있는 유니온대학에 교수로 가게 되어 떠나게 되었다. 사모님 유정순집사도 교회 집사님으로 교회 회계 등을 맡아 여러해 동안 수고하셨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란 제목의 오기향목사의 설교, 김수영장로의 송별사 그리고 오기송장로의 남기는 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9) 새로 온 유학생 환영예배

1966년 10월 2일 주일에는 이 지역에 새로 온 유학생 환영회가 Valley Forge 공원에서 있었다. 오기향목사의 환영사와 "감격의 생활"이란 설교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 햇빛을 즐길 수 있는 각종의 순서들이 있었다.

## 10) 학생 교회의 특징의 하나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학생 교회의 특징은 매년마다 졸업하는 학생을 보내고 신입생을 받아들이는 학교와도 공통점을 가진 점이 특징이라고 본다. 3, 4년 전에 입학했던 학생을 3, 4년 후에는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학교다. 이와 같이 3, 4년 전에 교회에 나오고 등록했던 교인을 3, 4년이 지난 때에는 더 볼 수 없는 것이 학생 교회이다. 그것도 길어야 3, 4년이지 대개는 3, 4년까지 가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교회와 같이 그 당시 공부만을 목적으로 와있는 유학생으로 구성된 교회는 더욱더 그렇다고 해서 과언은 아니다.

학생 교회 아닌 일반 교회는 시간이 감을 따라 떨어진 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땅위에는 나무가 자라 퍼지기 마련인데 뿌리가 내릴 무렵에는 그 터가 옮겨져야 하는 유학생 교회는 다르다. 쉽게 표현하면 항상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것이 내가 경험한 과거의 한 면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때로는 힘들고 실망을 느끼게 된 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 힘과 꿈을 잃지 않게 도와주셨다. 내 눈이 낮을 때 처했을 때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내 눈이 위로 향했을 때에는 광활한 지면에

퍼져있는 귀중한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그리고 그 많은 유망한 젊은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 없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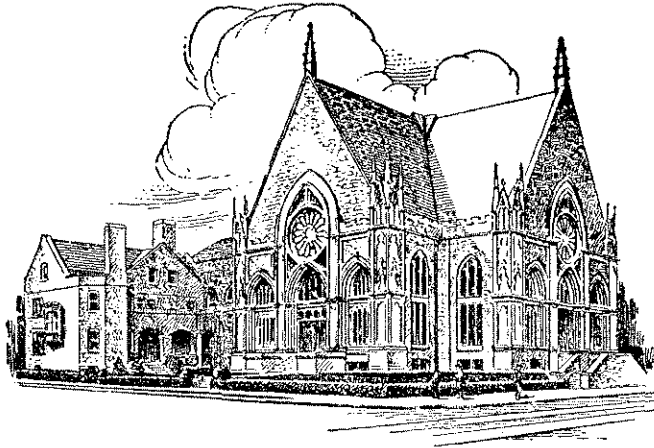


# 제 3 장

## 체스터 52 (Chester 52nd) 기간

(1966년 11월~1974년)

### *First United Presbyterian Church*



Chester Avenue and 52nd Street, Philadelphia 43, Pa.

Telephone SARatoga 9-1300

#### INVITATION

*To all who mourn and need comfort; To all who are weary and need rest;  
To all who are friendless and desire friendship; To all who believe in God and  
wish to worship; To all who hunger for prayer and wish to pray; To all who  
know sin and need a Saviour; To all who are convinced that they ought to put  
first things first—this church opens its door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in His name and for His sake bids you WELCOME.*

*Minister*

**JAMES A. JUNKER, S. T. B.**

*Organist and Choir Director*

- 1966년 -

1) 장소 이전

1966년 11월 20일부터 예배장소를 다음 주소로 옮기게 되었다. First Presbyterian Church, 52nd and Chester Ave., Philadelphia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었다. 약 6년간 사용해 왔던 우드랜드를 떠나게 된 이유는 Stanly Gambel 목사님이 차사고로 별세하고 새로 온 젊은 목사님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없지 않았던 데다 교인 수가 늘면서 두 교회가 쓰기에는 협소한 점도 없지 않아 그 교회를 떠나기로 한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신 이 교회는 그 교회의 11월 20일 예배 순서지에 다음과 같이 우리를 환영 소개하는 글이 실려져 있었다.

"The First United Presbyterian Church Session has granted permission to the Philadelphia Korean Church to use some of our facilities for worship and Sunday School and activities connected therewith for Sunday afternoon. Their worship and Sunday School begins at 2:30 p.m. In Philadelphia there are about 400 adults Korean students. A big percentage of them are graduate students or doing graduate in our universities or hospitals. Over 50 of them are working towards their doctor's degrees. Quite a few of them are married and some of them have little children. Their Sunday School is mainly for the kindergarten and primary ages. The Korean community in Philadelphia is a constant changing community from year to year as students come from or return to Korea. The Philadelphia Korean Church had its beginnings about fourteen years ago. At first it met at the Christian Association Building on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even year ago it began meeting at the Woodland Presbyterian Church. In last three years it has continued to grow until they now from 60 to 100 in worship and Sunday School. They needed larger and more adequate facilities. may the Lord bless the Korean Church in its worship and witness for Christ and May the Lord bless the First U.P. Church in the missionary outreach and service to nation in our city."



주일에배 광경



성가대의 찬양



예배 후 친목 식사



예배 후 친목 식사

## 2) 새 장소에서의 처음 특별 행사들

### 1. 감사절 예배

이곳에 온지 두 주일이 되는 1966년 11월 27일 주일에는 감사절 예배가 있었다. 예배 순서에는 성찬식과 세례식도 있었다. 세례 받은 분들은 다음 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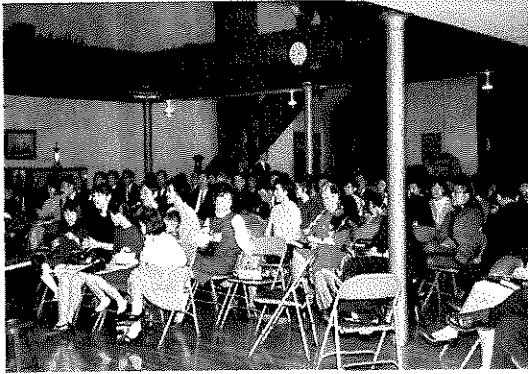
영아 - 최영락(최정일 교우의 첫 아기)

장년 - 심춘씨, 성백환씨, 김정섭씨, 서수용씨

이날 감사절예배의 참석자수는 120여명이었고 예배 후에는 감사절 터키 식사와 친목 순서가 있었다.

## 2. 성탄 축하예배

이곳에 온 후의 두 번째 행사는 성탄 축하 예배로 12월 25일 성탄 주일에 있었다. 이날 축하행사는 찬양대원이 주축이 된 새벽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탄절 낮 축하예배에 이어 밤에는 크리스마스 풋볼 예배 등으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교회예배장소를 이곳으로 옮긴 후  
처음 있던 성탄축하예배



유년주일학교 성탄축하행사

## 3. 송구영신 예배

이 해를 마지막으로 하는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는 코리아센터에서 송구영신예배가 있었다. 성경 시편 23편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중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 3) 1966년도 재정보고

재정보고 - (1966년 1월 1일~1966년 12월 31일)

수입 - 1965년 이월금.....	\$54.32
주일헌금.....	1,170.03
감사절헌금 .....	363.60
특별헌금.....	49.10
성탄 카드 수입.....	110.75

	합계.....	\$1,775.75
지출 - 교회사용비.....		\$150.00
목사거마비.....		200.00
전화비.....		131.55
교회분서비.....		175.35
초청강사비.....		70.00
다과비용.....		77.00
식사비용(장로장립식, 성탄절).....		91.73
교회비품.....		103.41
송별금(오기송장로, 유정순집사).....		40.00
선교비.....		21.00
요리강습, 사진촬영, 기타.....		50.00
성탄선물.....		215.00
	합계.....	\$1,413.47
잔액 .....		\$362.33

## - 1967년 -

### 1) 신년축하 예배

1967년 1월 1일 주일에는 새해를 맞는 신년축하 예배가 있었다. 오기항 목사의 신년 설교와 이석구목사의 성경 봉독, 선우철목사의 기도 그리고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이날 축하예배 음악순서와 친목식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특별 찬양순서 - 성가대원, 소프라노 독창에 김자영, 2중창에 윤정숙, 최승용

안내위원 - 권영옥, 김경섭, 성백환



연보위원 - 양재택, 김성자

봉사위원 - 윤경숙, 서수용

식사준비 - 김인식, 권영옥, 이해란, 이영신, 최정희, 길정희, 서생달, 신영희, 김성자

식탁준비 - 임정덕, 정숙인, 고영길, 이정화, 김영진

식후설거지 - 유의영, 박광진, 최승웅, 양재택, 서수용, 오동호, 오옥실, 최은경,  
이영자, 윤경숙, 이순희, 김영진

특수봉사 - 김치재료 제공에 Mrs. Fitts

## 2) 새 해의 교회 봉사부서

이 해인 1967년 1월 8일 주일 주보에 발표된 새해 교회 봉사 부서는 다음과 같다.

당회장과 당회원 - 당회장에 오기항목사

당회원에 이은우장로, 김수영장로

재정부장 - 김수영장로, 회계 - 임정덕집사

제직회서기 - 유의영집사

봉사부장 - 김인식집사

음악부장 - 김자영집사, 피아노반주 - 최은경

집사 - 김교안, 김인식, 나일성, 송창원, 염극용, 오옥실, 유의영, 은종관

안내 - 고영길, 김경섭, 김성자, 김영진, 김용우, 박광진, 서수용, 서영숙, 성백환,  
신영희, 심 춘, 양은택, 양재택, 오동호, 윤경숙, 이행식, 이행자, 정경혜,  
차영용, 최승웅

찬양대원 - 지휘: 김자영, 대장: 나일성

대원 - 고영길, 고운자, 김영진, 박광진, 서수용, 심 춘, 안중식, 오동호,  
오옥실, 유의영, 윤경숙, 이영자, 정경혜, 정숙인, 최승우

청년회 - 회장: 안중식, 부회장: 오옥실

서기: 양은택, 회계: 임정덕

유년주일학교 선생 - 이영자, 이순희, 김자영, Mrs. Fitts, Miss Schug, Miss  
Junker

### 3) 당시의 교회 현황

미국인 교회당을 장소로 빌어 쓰게 되니 부득이 주일예배 시간을 오후 2시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행스러웠던 점은 예배실, 친목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실 등을 따로 쓸 수 있었고 또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등 특별한 때는 교회 본당도 쓸 수 있었던 점이다. 재정적으로 힘없는 학생 교회여서 미미한 금액이었지만 우리의 성의를 이 교회에 표시했다고 생각된다. 한국으로부터 오는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인 수도 자연히 늘어가고 있었다. 이 해 초인 정월에 기록된 교회 명부에 나타난 장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았다.

김수영, 김인식, 김자영, 김교안, 김경자, 김경섭, 김영진, 김용우, 김혜원, 김순자, 김영훈, 김영하, 김기웅, 기영한, 김형기, 김상덕, 김순자, 강순자, 갈성철, 권영우, 강대균, 고영길, 고윤자, 길정희, 강순자, 나일성, 나상기, 나순희, 박건일, 박순자, 박한영, 박춘자, 박광진, 백운기, 손양호, 송혜숙, 손영희, 손영섭, 선우철, 선사모, 송영달, 신의항, 서생달, 서수원, 심 춘, 손현식, 신영희, 서수용, 서영숙, 성백환, 송창원, 이은우, 임정덕, 유의영, 이태섭, 이행자, 오옥실, 은종관, 염극용, 부인, 안중식, 양운택, 이영자, 이혜란, 임인영, 양재택, 오동호, 윤경숙, 이행식, 이도선, 오문성, 이종만, 이석영, 이혜영, 유무용, 이범석, 임영자, 오경자, 이근형, 이동규, 이용선, 윤덕중, 이석구, 이영빈, 이준덕, 이경우, 이덕희, 이흥만, 이경숙, 이호자, 이정화, 이미자, 이귀자, 오철호, 정숙인, 조문진, 정희목, 정훈목, 전경혜, 주연지, 최은경, 차영용, 최영수, 최정일, 이혜경, 차세도, 홍창표, 황휘자, 한의신, 한사모, 오기향 합(장년) - 111명

(이상에 기록된 분들은 대부분 대학원생, 간호원, 의사, 교환교수 기타)

### 4) 새해 예산

새해 예산 - 1967년도 새해 예산은 \$3,064.00 이었다.

### 5) 성경기도의 모임과 그 경과

교회는 신앙의 깊이를 찾아 갈구하는 젊은 심령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주일예배 외에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주중에까지 미국교회에 짐을 지울 수 없어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장소인 기념 코리아센터를 그대로 사용했다. 매주

금요일 밤 7시 30분에 모였다. 이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약 15명 내지 20명 정도였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주로 대학원 학생, 의사, 교환 교수 그리고 간호사들이었다. 다들 열심과 진지한 모습으로 모임에 참석했다. 감사한 것은 작은 이 신앙모임에서 신앙의 불이 붙기 시작했던 일이다. 주님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이들은 후일 이들이 처한 사회와 교회에서 귀중한 봉사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6) 어린이 주일학교의 특수 성격

지난 1966년 10월에 몇 어린이들로 시작했던 어린이 주일 학교는 언어, 인종, 문화, 습관 등이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이 어린이들의 환경 이해와 적응에 도움을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일을 맡은 선생님들의 수고는 컸다.

## 7) 교회 청년회의 특수사명

이미 몇해 전에 조직된 교회 청년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학원전도, 헌신예배, 기타 친교의 모임을 통해서 봉사에 힘쓰고 있었다.

## 8) 창립총회

이 해인 1967년 3월 12일 주일예배 후에는 여전도회 창립 총회가 있었다. 선출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 김인식집사, 부회장 - 권영숙, 총무 - 이순희

## 9) "교회 소식"지

1959년 12월 13일부로 나오기 시작된 "교회 소식"지는 그후 계속 월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나오고 있어 필라델피아 지역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교회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 10) 주간 본국 뉴스 프로그램 창설

매주일 예배 후 친목다과시간에는 본국 소식을 듣는 프로그램을 창설했다. 이 프로그램의 처음 해설역은 이태섭집사(박사)가 맡기로 했다.

## 11) 필라델피아 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 친목회

1967년 4월 22일 토요일에는 American Sunday School Union이 주최하는 어린이주일학교 선생 친목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다. 100여명 회원들이 모인 친목회였다.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로 친목회가 원만히 끝낼 수 있었음을 감사했다.

## 12) 졸업 축하 야외예배

1967년 6월 11일 주일에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 우리 유학생 중 졸업한 분들을 축하하는 예배가 Valley Forge 공원에서 있었다. 선우철 목사의 "사도 바울의 유언"이란 제목의 설교와 축하 인사 등으로 예배가 끝난 후 야외식사와 친교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날씨는 아주 좋았다. 모두들 가벼운 기분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날의 참석자 수는 100명을 초과했다.



1년에 두 번 봄과 가을에 가진 야외예배



예배 후 친목시간

### 13) 감부열 선교사

1967년 8월 27일 주일예배 설교는 감부열 선교사가 맡아주셨다. "환난 중에서도 각  
 처의 자랑이 된 한국교회"란 제목으로 듣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선교사  
 님은 그 일생을 한국 복음에 바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였다. 함께 오신 사모님도 그  
 일생을 선교사님을 도와 함께 바친 분이시었다. Florida 주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주  
 신 그들에게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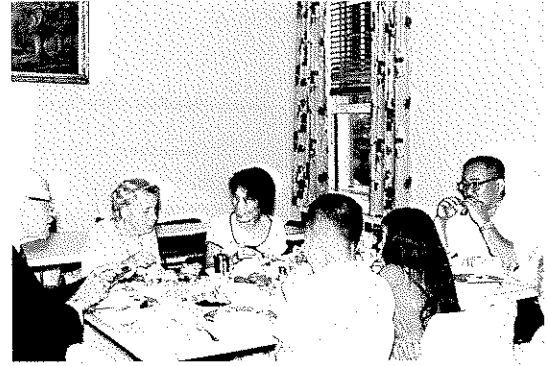
감부열 목사 설교



감부열 목사 내외



김부열 목사 좌담회



김부열 목사 좌담회



신앙수련회 강사로 오신 김부열 목사 (1967년 8월 25일~28일, Keswick 컨퍼런스장)

#### 14) 새로 이 지역에 온 분들을 위한 환영예배

1967년 9월 24일 주일에는 이 지역에 온 유학생과 기타 프로그램으로 온 분들을 환영하는 환영예배가 있었다. 이 예배에는 환영인사가 있는 후 설교는 이스튼대학교 신학교 총장인 Dr. Thomas McDormand께서 맡아주셨다. 예배에 이어서 환영식사, 친교의 시간 등도 마련 되어있었다. 이날 전날인 토요일에는 새사명선교회 주최로 이 지역 관광안내와 가정초대 등이 있었다. 새로 온 분들 중에는 다음 분들의 이름이 기록 되어있었다.

최상채, 최성진, 박경삼, 김후자, 박광자, 김정자, 이영은, 송조자, 김홍수교수, 윤석범, 김재항, 박황우, 이서구, 조남수군목, 서준덕군목, 오명호, 김명기, 김충섭 등

## 15) 함석헌 선생에게서 듣는 특별 집회

1967년 10월 1일 예배 후에는 함석헌 선생에게 듣는 특별 집회를 가졌다. 한국이 걸어온 역사와 앞날에 대처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귀중한 말씀으로 청중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교회 청년회 주최 좌담회 (강사: 함석헌 선생)

## 16) 새로 이 지역에 온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밤

1967년 10월 7일 토요일 밤에는 이 지역에 새로 온 유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의 밤이 교회 후원과 기념센터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친목식사와 친교 그리고 영화감상 등 다채로운 순서들이 있었다. 참석자는 100명을 넘었다.

## 17) 여전도회 특별집회

1967년 11월 19일 주일예배 후에는 여전도회 특별집회가 있었다. 이 모임에 초대 받은 강사는 Helen Cambell Ames였다. 이분은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감부열 목사님의 딸로 한국에서 태어난 분이였다. 지금은 필라델피아 근교에 있는 Ambler 장로교회 목사인 Dr. George Ames목사의 부인이다.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18) 감사주일예배

1967년 11월 26일 주일에는 감사주일예배가 있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란 오기항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특별 찬양 그리고 성찬식에 이어 세례식이 있었다. 예배 후에는 감사절 식사와 친목시간이 있었다. 감사헌금은 475불 25센트였으며 세례받은 유아들은 다음과 같다.

이창하, 이수재(부친 이영빈의사), 이상신(부친 이은우장로)

## 19) 성탄축하예배

1967년 12월 24일 주일에는 성탄축하예배가 있었다. 예배순서 중에는 오기항목사의 "기쁨의 소식"이란 제목의 설교, 찬양대의 특별 찬양과 오만세 교우의 바리톤 독창이 있었다. 축하순서 2부에는 축하음악순서가 있었고 3부에는 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 20) 초청강사

1967년 한해 동안의 초청강사들은 다음과 같다.

선우철목사, 강은홍목사, 강도영목사, 이석구목사, 감부열선교사, 함석현선생  
Dr. Thomas McDormand, Helen Cambell Ames

## 21) 결혼주례

1967년 동안 결혼주례는 다음과 같다.

손양호 이도선, 박세관 이영자, 박용진 고윤자, 유익영 오옥실, 김건언 최은경, 김용구, 황진수, 이석범 정혜정, 오문성 서병애, 정관모 김혜원

## 22) 1967년도 재정보고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1967년도 재정보고

(1967년 1월 1일~1967년 12월 31일)

수입 - 주일헌금.....	\$962,50
주정헌금.....	1,039,80



특별헌금.....	425.00
감사헌금.....	555.25
성탄헌금.....	15.00
성탄카드 수입.....	13.25
에어컨디션 구입헌금.....	273.60
	총수입 - \$3,284.40

지출 - 청년회.....	20.00
성가대.....	224.90
어린이 주일학교.....	35.00
교회당 사용비.....	204.00
영아부.....	180.00
장소 청소비.....	140.00
목사 거마비.....	600.00
전화비.....	114.43
다과비.....	193.77
사무비용.....	20.63
초청 강사비.....	65.00
특별집회(성탄절, 감사절, 부활절 기타 특별집회).....	165.00
사무직원.....	120.00
선교비.....	61.25
에어컨디션.....	417.10
기타비용.....	37.63

총지출 - \$3,150.92

잔금 - \$133.48

전년도 이월금 - \$395.96

총잔금 - \$529.44

## 23) 참석교인

1967년 교회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교인들은 다음과 같다.

오기향, 김자영, 오철호, 오선애, 오승호, 오은혜, 이은우, 권영옥, 김수영, 이해란, 김영선, 나일성, 이순희, 이태섭, 이행자, 이봉규, 김교안, 임인영, 김정완, 염극용, 신영희, 염애리, 염미영, 은종관, 김성자, 송찬원, 송부인, 송은영, 송미영, 차영용, 유병순, 최정일, 이해경, 최종택, 김기원, 손영섭, 이영빈, 조문진, 김인식, 유의영, 오옥실, 임정덕, 안중식, 최은경, 박광진, 오동호, 이영자, 김순자, 최승용, 서수용, 양재택, 김혜원, 윤경숙, 박건일, 송혜숙, 오문성, 김영진, 김경섭, 이종만, 김청자, 최영수, 김영훈, 손영희, 이덕희, 이건형, 강순자, 주연지, 고영길, 이정화, 심 춘, 이호자, 차세도, 이랭식, 신의향, 송용달, 박숙자, 고윤자, 이춘강, 우옥자, 강 근, 권진자, 임덕상, 부 인, 유용준, 유동준 부 인, 손양호, 이도선, 이준덕, 이경우, 선우철, 김은옥, 선우혁, 선우미혜, 선우훈, 선우요한, 이석구, 이유미, 이경희, 이주환, 성백환, 정경혜, 박순민, 오철호, 정희목, 최데빛, 김용우, 김기용, 오경자, 김미라, 이용성, 서수원, 이성재, 양운택, 이석영, 박한영, 유무용, 정훈목, 나상기 가정, 나진희, 윤덕중, 서생달, 박세관, 임영자, 정숙인, 이형원, 이강숙, 정몽구가정, 유 완, 성휘영, 고 훈, 신현숙, 이내근, 김광정, 현인덕가정, 임인영, 오만세, 차용석 가정, 유선자, 이춘강, 오훈호, 오성실, 서동혜

## - 1968년 -

### 1) 새해를 맞이한 교회 목표

1968년 1월 7일 주일에 있었던 신년 축하예배로 교회는 새해를 향해 출발했다. 교회는 지금까지의 교회 모든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기도와 노력에 힘쓰기로 했다. 즉 매주일마다 가지고 있는 주일예배, 매 금요일 밤 7시 30분에 있는 금요 성경

기도회, 성가대, 어린이 주일학교, 영아부 봉사, 주일예배 후에 있는 친목다과봉사, 청년회, 여전도회, "교회소식지" 기타 교회를 위한 모든 활동들이 주님의 참 뜻을 이루는데 힘을 더욱 더 집중키로 했다.

## 2) 신년축하 음악회

1968년 정월 5일 금요일 밤에는 트랙셀 대학 대강당에서 오인호기념 코리아센터 주최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후원으로 신년축하 음악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 연출자는 소프라노 김자영 외에 다음과 같은 보조 연주가 있었다. 남성 바리톤에 오만세, 피아노 독주에 이경숙, 한국고전 무용에 김봉덕이었다. 이 축하음악회는 김자영 소프라노의 A.M. Malotte의 "주기도문"과 오기항목사의 폐회사와 축도로 끝났다. 폐회 후에는 간단한 새해 접대다과 모임이 있었다. 이 다과는 Holmes Presbyterian 미국인 교회 여전도회에서 준비했다. 여전도회 회장인 Mrs. Beaston에게 감사했다. 이날 모임에는 약 300명 참석했다.

## 3) 새해의 첫 공동의회와 1968년도 예산

1968년 1월 21일에 있는 첫 공동의회에서는 새해예산 3,904불을 채택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1968년도 예산

### 수입

일반헌금.....	\$1,000.00
주정헌금.....	1,400.00
특별헌금.....	280.41
감사헌금.....	700.00
이월금.....	523.59
총합계 -	\$3,904.00

### 지출

일반비 - 교회 사용비.....	204.00
-------------------	--------

교회 청소비.....	180.00
널스리.....	180.00
사무비 - 문서우송, 인쇄기.....	480.00
사무실인건비.....	240.00
전화비.....	180.00
행사비 - 음악부.....	100.00
봉사부 .....	240.00
교회 소식지.....	50.00
단체보조비 - 청년회.....	100.00
여전도회.....	200.00
주일학교.....	100.00
강사비 - 목사 거마비.....	1,200.00
초청 강사비.....	150.00
기타 - 선교비.....	100.00
예비비.....	100.00
총합계 -	\$3,904.00

#### 4) 부활절예배

1968년 3월 31일 주일에는 부활절예배가 교회 본당에서 성대히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설교와 성가대의 부활절 찬양 그리고 성찬식 등으로 예배가 끝났다. 예배 후에는 부활절 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 5) 새사명 신앙하령회

1968년 6월 22일 목요일부터 27일 화요일까지 6일간 뉴저지주 Keswick Grove 수양관에서 예년과 같이 신앙 수련회가 개최되었다. 주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었다. 초청된 강사 중에는 한국에서 도양술목사(예수교 장로회 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 오기형교수(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등이 있었다. 참가자들의 거의 전부가 각 대학 대

학원생들로 멀리는 캘리포니아에서 온 유학생도 있었다. 다음은 참가 회원 중 한 분의 참가 후기다.

### "새사명 하례회 참석기" - 이강숙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Keswick Grove, N. J.에서 새사명 하례회가 있다는 편지를 받고 꼭 참석해 보고 싶었다. 미국에 온지 두 달밖에 안 되고 또 모든 것이 생소한 나로서는 이 conference가 나의 영적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이 느껴졌다.

이런 기대 속에서 나는 conference장에 가는 차를 탔다. 우리 차엔 여자만 다섯이 탔었다. 비가 오는 저녁이었지만 미스김의 한국소식, 미국 온지 7년 되는 미스홍의 재미난 경험담으로 꽃을 피우는 동안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번잡했던 도시생활에서 피로해졌던 심신을 저절로 회복해 주는 것 같았다. 조용하고 은은한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새벽 기도회로 시작해서 성경공부, seminar, 풍부한 recreation, workshop, 동심으로 돌아가 고향을 그리던 노래시간 그리고 저녁 예배로 하루의 일정을 마치게 되는 순서들은 말 그대로 갈급했던 심령을 축여주었고 미지근했던 신앙생활에 새로운 각성을 주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가장 감명 깊었던 시간은 갈라디아서 성경공부 시간이었다. 형식적이거나 억제가 아닌 마음으로 갈구해서 공부했고 함께 토의했던 이 시간에 얻은 참기쁨이란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이번 conference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한다.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 있는 대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성찬식이 끝나고 conference를 마치려고 했을 때 나는 이 기간이 좀 더 길었더라면 하고 애석하게 느꼈다. 앞으로 이런 귀한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 6) 부활절예배

1968년 4월 14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었다. 예배에는 성가대의 부활절 특별 찬양, 성찬식, 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장년 - 김용우, 이종만, 박순민, 허정자

유아 - 차미(차영용교우 따님)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가 준비한 부활절 식사와 청년회가 주최한 친목순서가 있었다.

## 7) 추기 야외예배

1968년 10월 6일 주일에는 추기 야외예배가 있었다.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오기항목사의 설교와 여전도회가 준비한 야외 점심식사가 있던 후 청년회가 준비한 각종의 친목 순서들이 있었다. 이렇게 봄과 가을 일 년에 두 번씩 야외예배를 가지는 데는 유학생 생활로 분주히만 지내고 있는 집을 떠나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광활한 자연의 세계를 즐기면서 예배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도 그 목적의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그와 못지 않게 새로 이 지역에 온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도 그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 8) 감사주일에배

1968년 11월 24일 주일에는 감사절 예배가 있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계획"이란 오기항목사의 설교, 성가대의 특별 감사절찬양, 성찬식이 있었다. 여전도회가 준비한 감사절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이 지역에 새로 온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9) 성탄절 축하예배와 각종행사들

1968년 12월 22일에는 성탄절 축하예배와 예배 후에 있던 각종 순서들로 성대히 진행되었다. 오기항목사의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평화"란 제목의 설교와 성찬식 그리고 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예배 후에는 성탄절 축하식사와 친목순서 등으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성탄절에는 성탄축하 촛불예배가 있었고 성탄절 새벽에는 새벽송 순회팀의 새벽송이 있었다.

## 10) 송구영신예배

1968년 12월 31일에는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가 있었다.

## 11) 초청강사

1968년 이 해에 초청된 강사에는 한국 울릉도에서 특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일선 목사님,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교수 도양술목사님이 초청강사로 초빙되었다.

## 12) 이 해의 재적 교인

1968년 11월 현재로 교회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 교인 수는 139명이다.

## 13) 1968년도 결산보고(1월 1일~12월 31일)

수입 - 일반헌금.....	\$1,048.03
주정헌금.....	1,463.50
특별헌금.....	192.06
감사절헌금.....	388.25
성탄헌금.....	229.00
전년이월금.....	467.59
총수입.....	\$3,993.43

지출 - 교회사용비.....	\$204.00
교회청소비.....	180.00
보도비.....	90.00
문서비 (인쇄기 포함).....	494.98
전화비.....	132.91
성가대.....	167.02
다과비.....	157.18
청년회.....	81.28
여전도회.....	124.40
반주자.....	45.00

목사거마비.....	1,200.00
초청 강사비.....	130.00
기타 잡비.....	53.45
총지출.....	\$3,060.22
잔액.....	\$933.21
총계.....	\$3,993.43

#### 14) 교회 사역의 경험

1968년이 되면서 이 지역으로 오는 유학생 기타 신분으로 오는 사람들이 증가됨을 따라 새로 시작하는 교회들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각종 교파 또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던 필라델피아에서는 유일한 존재였던 이 교회에도 단합이 풀리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한 교회로서는 지금까지 하나로 묶여있던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불가능한 한계선에 서게 되었다.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나로서는 이 경향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를 말하고 지나가는 것이 이 당시의 교회를 아는 일에 중요할 듯싶어 간단히 적고 지나가고자 한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나로서는 필라델피아에 모이는 우리 교포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당연히 단합이 풀릴 날이 오리라고 예견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숫자가 작을 때는 신교니 구교니 장로교니 침례교니 또 보수니 자유니 편리상 하나로 모일 수 있겠지만 숫자가 늘면 제 갈 곳으로 가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점이었다. 이런 견지에서 나로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나가 바람직하나 한 민족이니 반드시 이 넓은 도시에 교회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철칙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교회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젊은이들 중에는 우리는 한 민족이니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는 극단을 걷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는 물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는 지 교회로 발전되는 것이 교회이다. 내 경우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무슨 대교회를 꿈꾸며 성공해보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내 역량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며 봉사해 왔다고 생각된다.

한두 사람이라도 기회가 되면 복음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것이 항상 내 동기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 - 1969년 -

### 1) 1969년 새해를 기대하는 교회

1969년 정월 5일 주일에는 신년축하 예배가 있었다. 순서에는 오기항목사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란 신년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신년 축하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보에 첨부된 교회안내에는 다음과 같은 교회 안내가 실려 있었다.

"매주에 가지는 주일예배 이외에 금요성경공부와 기도모임 외에 주일 새벽기도회, 예배 후 친목회, 성가대, 여전도회, 청년회, 어린이 주일학교, 영아부 등 각종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활동에 협조하는 세사명 전도회, 오인호 기념 코리아센터 등 봉사 협력할 기관들이 있습니다. 참여해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1969년도 새해예산

1968년 1월 19일 주일예배 후에 있는 새해 공동의회에서는 \$4,133.21을 새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 3) 새해에 수고할 세리집사

교회 당회는 다음 분들을 새해에 봉사할 세리집사로 선출했다.

권오영, 김명환, 김진환, 김창호, 오동호, 은종관, 이봉원, 이태섭, 이행자, 이형원, 장영완, 최상채

### 4) 청년회 주최 벚꽃구경

1969년 4월 5일 토요일에는 청년회 주최 워싱턴 벚꽃 구경이 있었다.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약 50명 단체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지역에 새로 온 유학생들이 대거 참석해서 서로 얼굴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었다. 미리 예정했던 대로 ISI 본부에서 쉬기도 하고 점심도 할 수 있었다.

## 5) 부활절예배

1969년 4월 6일 주일에는 부활절예배가 있었다. "인류의 새 소망"이란 오기항목사의 설교와 성찬 세례식으로 예배가 끝난 후 부활절 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이날 세례 받은 분은 다음과 같다.

장년 - 정희목, 유아 - 정진아(정관모교우 아기), 오유진(오문성교우 아기)

## 6) 청년회 헌신예배와 음악감상의 밤

1969년 4월 13일 주일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예배순서에는 오기항목사의 설교, 김창호회장의 기도, 오동호총무의 성경봉독, 조영복회원의 독창이 있었다. 그 전날인 4월 12일 토요일 밤 7시 30분에는 "메시아의 밤"이란 주제의 청년회 주최 음악감상회가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해설은 서동혜회원이 맡았다.

## 7) 춘기야외예배

1969년 5월 18일 주일에는 춘기야외예배가 Valley Forge공원 Washington Memorial Chapel에서 있었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온 우리 유학생들을 환영하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점심식사와 청년회가 준비한 각종 친목순서들이 진행되었다.

## 8) 새 학생 환영예배

1969년 10월 12일 주일에는 한국에서부터 이 지역에 온 새 학생들을 환영하는 예배가 있었다. 그날의 순서에 따르면 오기항목사의 환영사와 "구원의 계획"이란 제목 하의 설교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환영식사와 청년회의 친목순서 등으로 다채로웠다.

## 9) 감사절예배

1969년 11월 23일 주일에는 감사절 예배가 있었다.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받는 축복"이란 제목의 설교, 성가대의 특별찬양, 그리고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었다. 세례 받은

교우는 다음과 같다.

장년 - 이승택, 이승희      유아 - 박현주, 이은희, 이형권

이날의 특별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제 1 부 (어린이부) -

- 인사말씀..... 하혜영
- 독창 - 어린이 노래 중에서 (반주: 이해란, 노래: 김영선)
- 독창 - "산토끼 토끼야", "송아지 송아지" (반주: 김혜경, 노래: 이분규)
- 성경암송 - 마태복음 6장 26 - 29 오선애
- 플루트와 노래 -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반주: 오선애, 노래: 오승호)
- 독창 - "John Brown had a little Indian"
- 반주: 오선애, 노래: 박현옥
- 바이올린 독주 - "감사절 노래" (반주: 이해란, 바이올린 독주: 김용우)

- 제 2 부(성인) -

- 혼성 4중창 - "추수 찬미"..... Schulz  
조영복, 오철호, 서동해, 오동호
- 바이올린독주 - Sonata, Part 2 - Fugue..... Bach  
한희
- 여성 2 중창 - "Amazing Grace"..... Arr, King  
김기원 소프라노, 김혜경 알토
- 피아노 독주 - Sonata A minor..... Mozart  
박숙하
- 독창 -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Ombra Mai Fu..... Hendel  
김자영 소프라노
- 플루트 2중주 - "Thanks be to God"..... Dickenson

Allegro Spiritoso & Minuet G major..... Beethoven

서동혜, 김혜경

합창 -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Dressler

성 가 대

## 10) 성탄축하행사

1) 성탄절 축하예배 - 1969년 12월 21일 주일에는 성탄축하예배가 있었다. 축하순서에는 송수석목사의 성경 봉독, 김택용목사의 기도, 성가대의 특별찬양 그리고 오기항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축하예배 후에는 축하 애찬과 축하음악 순서가 제1부,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되어 더욱 만족스럽게 했다. 이 축하 예배에는 이 지역의 많은 동포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게 했다.

2) 성탄축하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예배 - 23일, 수요일 밤 8시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예배와 청년회가 준비한 축하 친목회가 있었다.

## 11) 송구영신예배

1969년 31일 밤 8시에는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와 청년회가 준비한 타향에서의 향수를 잊을 수 있는 친목순서들로 즐겼다.

## 12) 교회봉사의 경험

모든 것이 낯설고 여러 가지의 불편을 헤쳐가며 일하는 데는 숨은 어려움들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그 중의 하나는 매 모임 또는 특별 집회를 앞두고 준비하는데 따르는 순서지, 초청장, 교회소식 등을 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손으로 써서 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다투어야 하는 생활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써낼 양이 늘어나니 손으로 쓰는 일은 불가능했다. 기계를 장만하자니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 사무실에서 빌려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니 매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약 30매 정도였지만 50매, 100매, 200매, 300매로 점점 매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인쇄소에서 쓰는 중고 인쇄기를 헐값으로 샀다. 찍는 기술을 알기 위해서 인쇄소에 견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당

시는 한글타자기도 사려면 한국에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 밤을 새워가며 애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1964년부터 나온 "교회소식"은 이런 수고를 거쳐서 나온 작품이다. 다음은 그 당시 "교회소식"에 실렸던 내가 쓴 짧은 지상설교의 하나의 예다.

##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

- 오기항목사

그리스도교는 신앙에 의한 구원의 종교인 동시에 일의 종교이기도하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일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도 할 일을 맡기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30세라는 젊은 나이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의 대사업을 완성하셨다. 그는 참으로 일하신 분이시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또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 치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의 특권을 상실한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로서 항상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쉽게 알 수 있는 예로는 이 세상일도 알고 보면 착수하려는 일에 대한 방법을 알아 순리대로 할 때에만이 그 일을 성공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아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방법을 모르거나 그 방법을 떠나 그 일에 착수할 때에는 혹시 그 일이 잘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모순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가장 높은 질서에 서있는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귀중한 선물의 하나는 우리가 보려고만 하면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져 있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예의 하나를 들고 싶다. 우리는 저 유명한 Sanzio Raphael의 그림 "Transfiguration"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그가 그 그림의 전부를 완성치 못하고 죽었을 때 이 귀중한 그림을 누가 완성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그의 많은 제자 중에서 Ramano란 제자가 선택되어 이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Ramano는 그 어려운 스승의 화법을 집중적인 훈련과 노력으로 체득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겨주신 그의 위대한 일의 계승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사업을 완성해 나갈 사명을 물려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요구하는 일이다.

## - 1970년 -

### 1) 신년축하예배

1970년 1월 4일 주일에는 새해를 맞는 신년 축하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사회, 김택용목사의 성경봉독, 송수석목사의 "새로운 피조물"이란 설교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신년축하 다과와 친교의 모임이 있었다.

### 2) 공동의회

1970년 1월 25일 주일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는 새해 예산 결의와 교회 현장이 채택되었다.

1) 결의된 새해예산 - \$5,154.75 이었다.

2) 채택된 교회 현장은 다음과 같다.

####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현장>

##### 제 1 장 명칭, 위치, 목적, 신조

###### 제 1 조 - 명칭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라 칭함

(속칭은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라 칭하고 본 현장에서는 "본교회"라 칭함)

## 제 2 조 - 위치

본교회는 Pennsylvania 주 Philadelphia시에 있으며 본 현장 제정시 예배 장소를 52nd & Chester Avenue, Philadelphia에 있는 The First United Presbyterian Church 내에 두고 그 사무실을 5811 Thomas Avenue, Philadelphia에 두되 제직회의 결의로서 예배 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음.

## 제 3 조 - 목적

본교회의 목적은 Philadelphia 지역 일대에 있는 한인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르는 같은 신앙으로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같이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모든 뜻을 이루고자함에 있음.

## 제 4 조 - 신조

본교회 신조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조에 준함.

## 제 2 장 교인

### 제 5 조 - 교인

본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인으로 구성한다.

- ㄱ. 본교회의 헌장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입교원서에 따라 당회에서 허락된 자.
- ㄴ. 본교회 교인은 세례 교인과 미 세례 교인으로 구성되며 세례 교인에게는 선거와 피선거권 그리고 결의권이 있음.

## 제 3 장 교직

### 제 6 조 목사

본교회 목사의 초빙, 직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음

#### ㄱ. 목사의 초빙

본교회 목사는 목사의 안수를 받은 자로서 공동의회의 3분지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함.

#### ㄴ. 목사의 직무

본교회 목사는 예배와 성례식을 주장하고,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장이 되며 교회 전반에 충성을 다함.

ㄷ. 목사의 사임

목사의 사임은 공동의회의 3분의2 이상의 결의에 의함.

제 7 조 장로

본교회의 장로의 장립, 직무 사임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음.

ㄱ. 장로의 장립

본교회의 장로는 입교인으로 무흠히 5년 이상을 경과하고 그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타교인의 모범이 되며 통솔의 능력이 있는 27세 이상 된 자로서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에 의하여 피선 된 후 본교회 당회의 시취를 거쳐 장립 됨.

ㄴ. 장로의 직무

본교회의 당회와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한 면을 총괄 권장하는 동시에 행정적 면에 있어서도 교회를 선히 치리함으로 교회의 전반적 발전에 충성을 다함.

ㄷ. 장로의 사임

장로의 사임은 당회에서 장로의 직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인정된 후 공동의회의 반수 이상의 결의를 요함.

제 8 조 집사

본교회 집사는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임기 1년)로 구분하며 그 임명 직무 사임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음.

ㄱ. 집사의 임명

본교회의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어 복음에 적합한 생활을 하는 자로서 본교회 당회에서 임명하되 안수집사에 한하여는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 당회에서 안수 임명함.

ㄴ. 집사의 직무

본교회 집사는 제직회 회원이 되며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본교회 재정, 구제, 기타에 적극 참여함으로 본교회 발전에 충성을 다함.

ㄷ. 집사의 사임

서리집사의 사임은 본교회 당회를 거치며 안수집사의 사임은 공동의회의 반수이상의 결의를 요함.



## 제 4 장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 제 9 조 공동의회

공동의회의 구성 성수 임무와 직원은 다음과 같음.

#### ㄱ. 구성과 성수

본교회의 입교인으로 구성하며 그 성수는 입교인의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함.

#### ㄴ. 소집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주일 전에 당회장이 이를 공고함.

#### ㄷ. 임무

1. 목사 초빙과 사임에 관한 처리
2. 장로 안수 집사의 선거와 사임 결의
3. 제직회의 재정보고와 교회 예산안 통과
4. 기타 당회 또는 제직회에서 제출하는 중요 사항의 결의

#### ㄹ. 직원

본교회 당회장과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임하며 공동의회의 회칙은 당회 회록과 구별하여 서기가 보관함.

### 제 10 조 당회

본교회 당회의 구성 성수 임무 직분은 다음과 같음.

#### ㄱ. 구성 성수

본교회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되 그 성수는 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함.

#### ㄴ. 임무

1. 성례식 계획
2. 예배 계획
3. 교인의 입교 제명 이명(移名) 접수의 발부
4. 목사 장로 안수집사의 후보를 선정하며 찬양대 주일학교 직분의 임명
5. 교인의 신앙 발전에 관한 권장과 계획
6. 교회 내 각 기관의 총찰과 권장
7. 다음과 같은 서류의 비치

- a. 입교인 명부 b. 이전교인 명부 c. 세례 교인 명부
- d. 출생일 명부 e. 혼인 명부 f. 별세인 명부

8. 교회 물품 관리

ㄷ. 직분

당회장: 당회장은 공동의회를 소집 사회함.

서기: 서기는 당회록을 보관함.

11 조 제직회

본교회 제직회 조직 성수 직무는 다음과 같음.

ㄱ. 구성(조직)과 성수

본교회 제직회는 당회원과 집사들로 구성하며 그 성수는 반수 이상으로 함.

ㄴ. 제직회의 직무

본교회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1. 본교회 재정을 관장하며 그 보고와 예산을 공동의회에 제출함.
2. 다음과 같은 교회 활동을 실천 협조함.
  - a. 찬양대를 포함한 교회음악 활동
  - b. 주일 학교를 포함한 교회 종교 교육 활동
  - c. 일반전도 구역전도 특수전도 등의 전도 사업
  - d. 청년회 활동
  - e. 여전도회 활동

ㄷ. 조직과 직분

본교회 제직회는 그 직무를 완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가진다.

1. 제직회장: 본교회 제직회장은 본회를 소집
2. 서기: 회의록을 기록하며 기타 문서를 보관함.
3. 재무부장: 교회의 전반 재정을 관장함.
4. 회계: 2명  
일명은 장부를 다른 일명은 현금을 담당함. (장부회계, 현금회계)
5. 음악부: 부장 일명

성가대를 운영하며 교회 음악 발전을 위하여.

6. 교육부: 부장 일명

본교회의 주일학교, 기타 종교 교육을 위하여.

7. 전도부: 부장 일명

본교회 목사 장로와 협조하여 전도 사업에 힘씀.

8. 봉사부: 부장 일명과 부원 약간 명

본교회의 예배후의 친목회와 기타 특별 집회의 다과 또는 기타 필요한 안내로 봉사함.

9. 청년부: 부장 일명

청년회의 발전을 위해 힘씀.

10. 여전도회: 부장 일명

여전도회 발전을 위하여 힘씀.

ㄷ. 집회

본교회 제직회는 정기제직회와 임시제직회가 있으며 그 집회는 다음과 같음.

1. 정기제직회

정기제직회는 매 둘째 달 첫 주일 중에 있음.

2. 임시제직회

임시제직회는 필요한 시에 제직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제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제직회장이 소집함.

제 12조 부칙

본 헌장에 미비한 조항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준하여 적용함.

주후 1953년에 설립되고 1962년에 Pennsylvania 주법 의하여 법인으로 등록된 본교회는 그 설립 이래로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헌장에 준하여 발전 치리(治理)되어 왔으나 외국에 있는 특수한 형편상 그 헌장으로만은 적용키 어려운 점들이 있어 다음과 같은 헌장을 작성하기에 이른바 본헌장에 미비한 사항은 역시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 조 항에 준하여 해석될 것이다.

이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헌장은 1970년 1월 25일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공동의회에서 채택됨.

### 3) 교회 안내

1970년 초에 분배된 그 해의 교회 안내는 다음과 같다.

주일예배 - 매주일 오후 2시 30분에 모입니다.

새벽기도회 - 매주 새벽 6시에 센터에서 모입니다.

금요성경공부와 기도회 - 매 금요일 밤 7시 30분에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모입니다. 시편을 공부 중입니다.

야외예배 - 6월 30일 주일 오전 11시 Valley Forge Park에서 모입니다.

청년회 - 헌신예배: 6월 17일 주일

성경다독대회: 6월 21일 주일

음악감상회: 6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신앙좌담회: 8월 18일 토요일 오후 8시

한국학교 - 7월 20일부터 개교 코리아센터에서

구역 월례예배 - 각 구역 가정에서 모임

성가대 - 매주일 예배 후 연습

어린이 주일학교 - 매주 오후 2시 30분

영아부 - 주일예배 시간

새사명 하령회 - 7월 11일~14일, 주제: "말씀으로 무장" Pocono에서

한미 기독교인 기도회 - 매주 첫 토요일 오전 9시 Wall 목사 인도

### 4) 제직회 임원

1970년 새해 제직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서기: 김혜원, 재무: 이태섭, 회계: 오동호 김광혜

음악: 김자영, 봉사: 이행자, 서동혜, 교육: 홍선숙

### 5) 청년회 임원

회장: 오동호, 부회장: 김혜경, 총무: 정희목, 문화부: 홍선옥, 최은애

섭외부: 박상익, 친목활동부: 권오영, 임화자, 신앙부: 서동혜  
재정부와 회계: 오성실

## 6) 삼일기념 특별좌담회

1970년 3월 1일 주일예배 후 청년회 주최 3.1절을 기념하는 좌담회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제목: "기독교의 애국심은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가"

강사: 전상완교수 - 서울대학 강사, 성서신학교 교수

찬조강사: 오기형교수 - 연세대학 교육과 교수, 연세대학 교육연구소 소장

현재 교육학회 참석차 도미

장소: 오인호 기념센터, 5811 Thomas Ave. Philadelphia

## 7) 탁구대회

1970년 3월 7일(토) 밤 7시 와 3월 13일(금) 밤 8시 30분에 청년회 주최 탁구대회가 오인호기념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8) 부활주일예배

1970년 3월 29일 주일에는 부활절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란 제목의 설교, 성가대의 부활절 특별찬양,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었다. 세례받은 분들은 장년 - 정관모, 이희봉, 최경, 박상익, 이금자, 이인숙 6명, 유아 - 조진희 (조이신교우 아기)이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다음과 같은 영화 관람이 있었고

1. The Lord is risen(15 min.)
2. An Epistle From Koreans (30 min.)
3. 한국 재활원 (15분)

오후 5시 30분에는 여전도회가 준비한 부활절을 기념하는 식사가 있었다. 이날의 부활절 헌금은 \$339.50 이었다.

## 9) 워싱턴 벚꽃구경

1970년 4월 11일 토요일에는 청년회 주최 워싱턴 벚꽃구경이 있었다. 이 지역에 새로운 유학생 등 많은 참가자들로 좋은 친교의 기회가 되었다.



교회 청년회 주최 Washington 벚꽃구경



대절환 버스로 Washington 행

## 10) 여전도회 헌신예배

1970년 5월 24일 주일에는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이날의 설교자로 초청된 강사는 박인덕여사였고 설교제목은 "실행이 있는 믿음"이었다.

## 11) 졸업축하 야외예배

1970년 5월 31일 주일에는 야외예배가 Valley Forge 워싱턴 기념 채플 국립공원에서 있었다. 송수석목사의 "빈들의 잔치"란 제목의 설교와 다음 분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인사가 있었다.

박사학위: 오문성(펜대학), 정훈모(펜대학)

석사학위: 권오영(템플대), 오성실(빌라노바대)

## 12) 새사명 하령회

1970년 7월 6일 (월)부터 11일(토)까지 6일간 새사명회 주최 신앙 수련회가 뉴저지주 Keswick Grove 수양관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내 각지에서와 또 캐나다에서도 온 참

석자들로 성황리에 있었다.

### 13) 영재학교 개교

1970년 6월 15일에는 오인호 기념 코리아 센터 부설 영재학교가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 후원 하에 개교하다. 교과 내용으로는 한국어, 영어, 산수 그리고 성경 등 5개 과목을 내용으로 하며 7명의 교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부속 영재한국학교

### 14) 주재용목사 안수예배

1970년 7월 12일 주일에는 주재용목사 안수식 예배가 있었다. 캐나다 몬트리올 한인 교회의 추천에 의하여 거행되었다. 안수 받은 주재용목사의 학력과 경력은 다음과 같다.

학력: 1933년 10월 31일 서울 성북구 출생

1962년 한국신학대학 신학사 학위

현재 캐나다 매길대학 박사학위 과정

경력: 1963년 이화대학 기독교학 강사

1969년~1970년 몬트리올 한인교회 설교자

### 15) 광복 25주년 기념 야외예배

1970년 8월 16일 주일에는 광복 25주년 기념 야외예배가 Basto, N.J.(Historical Area)에서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광복절 설교와 현인덕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청년회가 준비한 점심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 16) 공동의회

1970년 9월 27일 주일에는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다. 이 회의 투표결과 다음 두 분이 선출되었다.

전상완집사 - 서울대 졸 석사, 서울대 강사, 현재 신학 공부  
이태섭집사 - 서울 공대 졸, MIT 박사, 현재 연구원

## 17) 청년회 헌신예배

1970년 10월 11일 주일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초청된 강사는 한재호목사였다. 예배 후에는 준비된 식사와 친목 순서가 있었다.

## 18) 청년회 교회친선 발리볼시합

1970년 10월 20일에는 교회친선 발리볼 시합이 있었다. 결승에서 시내 태버내쿨 교회와의 대항에서 3대 2로 우리 청년회가 승리했다. 시합이 끝난 후에 이승택교우 가정에서 저녁식사가 있었다. 이날 우리 청년회 참가선수들은 다음과 같다.

권오영, 박상익, 송수석, 백운기, 홍정일, 김명자, 홍선숙, 정희목, 이승택, 노경선, 이희봉, 고인호, 주일선

## 19) 청년회 주최 신앙좌담회

1970년 11월 14일 오후 5시에 청년회 주최 신앙좌담회가 이태섭집사 가정에서 모이다. 강사에는 고인호목사였다. 좌담회 후 이 가정에서 준비한 저녁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 20) 감사절예배

1970년 11월 29일 주일에는 감사절예배가 있었다. 현인덕목사의 감사절 설교와 성찬식이 있었다. 이날의 감사헌금은 \$1,604.50이었고 예배 후에는 감사절 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이날 식사는 다음 가정에서 준비했다.

불고기 - 이연찬의사 가정, 박세관목사 가정, 이태섭집사 가정



- 김치 - 권오영집사 가정, 박상익교우 가정, 이태섭집사 가정
- 잡채 - 정관모교우 가정, 서정화교우 가정, 오동호집사 가정
- 밥 - 김수영장로 가정, 전상완교우 가정, 김연진집사 가정
- 과일 - 이상화교우 가정

## 21) 성탄축하 예배와 기타 축하모임

1. 성탄축하 주일예배 - 1970년 12월 20일 주일에는 성탄축하 예배가 있었다. 목사의 성탄절 설교와 특별찬양 순서 등으로 예배가 끝나고 예배 후에는 축하 식사와 어린이들의 특별 순서 등 축하행사가 있었다.
2.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예배 - 1970년 12월 24일 목요일 밤 7시 30분부터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예배가 있고 예배 후에는 선물교환, 밤참 등 친교순서들이 있었다.

## 21) 송구영신예배

1970년 12월 31일 목요일 밤 8시부터 송구영신예배와 모임이 기념센터에서 있었다. 밤 11시에 있을 송구영신예배까지 옷놀이 등 한국 전통적인 순서들을 즐겼다. 밤 11시에 시작된 송구영신예배는 성경봉독 순회기도 찬송 등으로 묵은해를 보내며 희망의 새해를 맞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22) 결혼과 장례

1970년 일 년 동안에 있는 결혼식과 장례식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 김진규 신영숙양, 김광태 송남숙양, 손광용 유복녀양, 김정기 조영복양, 김순칠 구영화양, 박형용 강순자양
2. 장례 - 이승택교우 영아

## 23) 개척기의 교회 모임 장소와 센터 건물의 소역사

1953년 캠퍼스에서 성경 기도 모임을 시작한 후 계속적으로 어려웠던 일들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배와 기타 교회모임의 장소를 얻는 일은 어려운 일 중의

어려운 일이었다. 주일에 한번 예배할 장소는 나름대로 얻을 수 있더라도 성경공부, 기도회, 기타 각종 주중에 가지는 모임장소를 계속 쓰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자체 건물이란 그 당시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다. 항상 눈치를 보아가면서 쓰는 일이란 한두 번은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모임 때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모임은 더 잦아져가고 있어 모임 장소 해결은 더욱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특별 집회라도 있어 한국 음식이라도 하고 나면 그 교회 미국교인으로부터 김치냄새 등 음식냄새가 난다는 말을 듣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 어려움의 임시 해결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당시 우리 가정이 세로 살고 있었던 5811 Thomas Avenue 삼층집을 월부로 사서 그 일부를 오인호 코리아센터와 부족한 대로나마 교회예배 외 집회로 쓰기로 했던 일이다. 재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은 은행에 알아본 결과 그 당시 월세 110불로 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 월부로 살게 되면 은행에 갚게 되는 월부 금액은 월불 90불이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집을 구입하여 그 때까지 장소가 없었던 오인호 기념센터로 헌납키로 했다.

모임 장소로 개조하는 일은 생각보다 너무나 더 어려웠다. 그 중에서도 집합장소로 쓸 지하실을 개조하는 일은 우리 능력에는 과도한 일이었다. 그러나 온 집안 식구들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대강이나마 완성할 수 있었다. 그 때는 1965년경이었다. 그후 교회가 자체의 건물을 장만한 1970년대 말까지 약 15년간 교회 예배 외의 각종 모임 즉 성경기도모임, 수요 또는 금요일집회, 새벽기도회 그리고 식사를 동반한 특별모임, 탁구장, 한국학교, 심지어는 결혼 장소로 불편한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한해 연말 친목 모임에는 127명까지 모였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곳이 그 후 우리 유학생들에게 숙소 등의 편리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다소나마 숙소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로 자랄 수 있었다. 그 후 계속 우리 한인 교회, 오인호 기념센터, 기념 한국학생 센터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곳을 거쳐 간 수많은 우리 유학생들이 한국, 미국 등 각 곳에 퍼져있다. 부족한 곳을 써주고 계속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 - 1971년 -

### 1) 신년 주일예배

1971년 1월 3일 주일에는 새해를 맞는 신년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새 사람을 입으라"란 제목의 신년 설교와 송수석목사의 기도로 예배순서를 끝내고 새해 친교 시간이 있었다.

### 2) 공동의회

1971년 1월 31일 주일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었다. 지난해의 회계보고와 새해의 예산이 통과되었다. 작년도 총지출은 \$6,174.56 이었고 새해예산은 \$6,772.21 이었다.

### 3) 새해 제직회 임원 부서

제직회 서기: 정대현집사

재정부장: 이태섭집사, 부원: 김혜원집사

회계: 오동호집사

전도부장: 윤원길집사, 부원: 김원일집사

교육부: 홍선숙선생, 부원: 정희목집사

음악부: 김자영선생

봉사부: 이행자집사

여전도부: 장영완집사

청년부: 권오영집사

### 4) 구역회

University City 구역: 정관모

West Phila. 구역: 김원일집사

Girard 구역: 박만순

City Line 구역: 서정화

North Phila. 구역: 윤원길집사

Germantown 구역: 이승택

Main Line 구역: 오동호집사

New Jersey 구역: 이태섭집사

## 5) 부활주일에배와 행사

1971년 4월 11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와 기타 행사가 있었다. 예배에는 고인호목사의 "부활"이란 제목의 부활절 설교와 송수석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주례로 성찬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세례 받은 분들은 다음 분들이었다.

장년세례: 오원길교우, 이순복교우

유아세례: 김애선(김원일집사 아기), 박주환(박상익교우 아기),

오주영(오동호집사 아기)

예배 후에는 부활절 식사와 친목순서들이 있었으며 이날 헌금은 \$453.00 이었다.

## 6) 청년회주최 워싱턴 벚꽃구경

1971년 4월 17일 토요일에는 청년회 주최 워싱턴 벚꽃 구경이 개최되었다. 참가인원은 약 50명이었다. 필라지역 유학생들이 많이 참가해서 좋은 친교의 시간과 전도의 시간이 되었다.

## 7) 영재학교 개교 일주년 기념행사

1971년 6월 12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후원 하에 설립된 영재학교 개교 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학생들이 배운 것으로 연출하는 각종 순서들로 참석한 학부모들을 즐겁게 했다. 지난 1년 동안에 사용한 교재 중 한국어 교재와 산수교재는 한국 교육개발 연구소(소장 오기형교수)가 개발한 교재들을 사용했다. 등록 학생 수는 40명을 넘

고 있었으며 장소는 오인호 기념센터였다.

## 8) 청년회 신앙좌담회

1971년 9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본교회 청년회 주최 신앙좌담회가 이태섭 박사 가정에서 있었다. 좌담회 주제는 "과학과 신앙"이었다. 이태섭박사와 이보민집사(신학 연구)의 주제 해설이 있었고 패널 디스커션 그리고 신앙 간증 등의 내용이 있었다. 저녁 식사는 이행자집사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다. 수고하신 이행자집사에게 감사했다.

## 9) 박윤선박사 설교

1971년 10월 10일 주일 청년회 헌신예배에는 박윤선박사께서 설교를 맡아주셨다. 설교 제목은 "지도자의 마음 자세"(야고보서 1장 1-5절)였다. 박윤선박사(목사)는 한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교회지도자였다. 교회 청년들과 교인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다.

## 10) 야외예배

1971년 6월 20일에는 이 지역에 새로 온 학생 또는 동포들을 환영하는 야외예배가 Fort Washington Park에서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는 제목하의 설교가 있었다. 예배 후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와 청년회에서 준비한 각종 친목순서들이 있었다.

## 11) 고 오인호 교우의 부친 오기병 장로님의 신앙 간증

1971년 7월 11일 주일과 18일 주일에는 고 오인호교우의 부모님께서 본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신앙간증도 해주셔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곳을 떠나시면서 감사헌금으로 금일봉을 교회에 남기고 가셨다.

## 12) 새사명 신앙수련회

1971년 7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새사명 신앙하령회가 St. Davids에 위치한 Eastern College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강사들 중에는 한국에서 초청된 분들도 있었고 또 참석자 중에는 뉴욕, 워싱턴 등 미주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들도 있었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 13) 청년회 신앙좌담회

1971년 11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 청년회 주최 신앙좌담회가 오인호 기념센터에서 있었다. 주제는 "기독교와 우리의 윤리적 문제"였고 이종륜전도사(Temple 대에서 박사과정)의 주제 해설이 있었다. 패널 디스커션과 신앙간증 등의 순서가 있었다. 계속해서 다과와 친목 순서가 있었다.

### 14) 감사절예배와 친목순서

1971년 11월 28일 주일에는 감사절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감사절 설교, 성가대의 특별찬양 그리고 성찬식이 있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감사절 식사, 청년회 주최의 친목순서와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노래순서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다. 이날의 감사절 헌금은 \$1,0450 이었다.

### 15) 성탄절예배와 기타 축하행사

1. 성탄축하예배 - 1971년 12월 19일 주일에는 성탄축하 예배와 기타 축하 행사들이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천사의 메시지"란 제목의 성탄절 설교, 성가대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찬양이 있었다. 예배 후 제2부 어린이 주일학교 축하 순서가 있었고 계속 여전도회가 준비한 제3부 순서로 식사와 청년회 주최의 친목 순서가 있었다. 성탄절 헌금은 \$435.25이었다.
2. 크리스마스 축하 촛불예배 - 1971년 12월 24일 금요일 밤 8시에는 크리스마스 축하 촛불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빛으로 오신 예수"란 제목의 축하 설교와 촛불점화 등의 순서로 뜻 깊은 예배를 가졌고 예배 후에는 친목순서가 있었다.

## 16) 송구영신예배

1971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오인호 기념센터에서 있었다. 말씀을 읽고 기도와 찬송 중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다.

## 17) 1971년에 있었던 기타 일들

1. 1971년 교회에 새로 등록한 분들 중에는 다음 분들이 있었다.

김영애, 구명화, 정대현, 오원길, 장상숙, 이순복, 김정기, 조영복, 한기태, 김현철  
이순배, 한의상, 박만순, 신동열, 한동현

2. 결혼식을 올린 분들 - 이승길 한소영, 이준재 고선희

3. 1971년도 재정보고

총수입: \$7,091.47

총지출: \$6,120.45

건축현금: \$3,024.02

## - 1972년 -

### 1) 신년예배

1972년 1월 2일 주일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소망의 새해"라는 제목의 신년설교로 예배가 끝난 후 신년축하 친교의 모임이 있었다. 신년 특별 헌금을 한 분들은 김정기의사, 임덕상교수, 이연찬의사 내외분 그리고 무명씨가 있었다.

## 2) 청년회 총회

1972년 1월 9일 예배 후에는 청년회 정기 총회가 있었다. 이 총회에서 선출된 새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상익, 부회장: 오성실, 총무: 이희봉

신앙부: 이보민, 오철호

문화부: 정대현, 한의신

섭외부: 윤원길, 이은성

친목활동부: 김정기, 전호경

회계: 한동현

고문: 오기향, 전상완, 이태섭

## 3) 공동의회

1972년 1월 30일 주일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었다. \$7,521.02가 새해 예산으로 통과되었다.

## 4) 새해의 집사와 그 부서

1972년 2월 6일 주일에는 다음 16명이 새해에 수고할 집사로 발표되었다.

집사 - 권만강, 권오영, 김원일, 김혜원, 오동호, 윤원길, 이보민, 이봉원, 이진호  
이태섭, 이행자, 이형원, 장영완, 전상완, 정대현, 조영복

제직회부서

서기: 정대현

재무: 임정덕

회계: 권오영, 김혜원

음악부: 김자영

전도부: 윤원길, 김원일, 정대현, 이진홍, 이행자



봉사부: 오동호, 이행자, 김혜원, 이형원, 조영복, 권만강  
교육부: 전상완

## 5) 어린이 주일학교

1972년 2월 27일 주일에는 다음 분들이 어린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할 분들로 발표되었다.

교장: 오성실  
선생: 오철호, 윤영숙, 오훈호  
자문: 전상완

## 6) 구역회

뉴저지구역: 이태섭집사  
서부구역: 김원일집사  
북구구역: 윤원길집사  
시티 라인구역: 한의상집사

## 7) 윤남중목사 설교

1972년 2월 6일 주일예배에는 설교자로 한국 서울 새순교회 윤남중목사가 초청되었다. 설교제목은 "말씀에 의존하는 생활"이었다.

## 8) 성경다독대회

1972년 3월 19일 주일예배 후에는 여전도회 주최 성경다독대회 중간보고가 있었다.

한동현: 76장, 정대현: 58장, 오철호: 30장, 오성실: 28장, 이진홍: 14장

## 9) 부활주일예배

1972년 4월 2일 주일에는 부활절축하 음악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산 소망"이

란 제목의 부활절 설교와 성가대원들의 각종 찬양순서와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세례 받으신 분은 윤영숙교우 한 분이였다. 부활절헌금은 \$637.55 였고 참석교인 수는 100명 이상이였다. 예배 후에는 부활절 식사와 친교 등의 다양한 순서들이 계속되었다.

## 10) 야외예배

1972년 6월 4일 주일에는 Valley Forge공원에서 야외예배를 가졌다. 오기항목사의 "창조의 숨씨"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불고기 식사가 있었고 계속해서 청년회가 준비한 각종 친교 프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었다. 이날 참석자 수는 148명이였다.



## 11) 청년회 신앙좌담회

1972년 7월 1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청년회 신앙 좌담회가 오인호 기념센터에서 이보민집사의 사회아래 있었다. 주제와 강사들은 다음과 같다.

주제: "인간과 소외"

"공산주의와 기독교신앙" 강사: 오기항목사

"자본주의와 기독교신앙" 강사: 전상완선생

"성서에서 보는 기독교신앙" 강사: 정대현집사

## 12) 성경다독대회

1972년 7월 9일 주일에는 여전도회 주최 성경 다독대회가 예배 후에 있었다. 추천에 오른 분들은 다음과 같다.

한동현: 326장, 정대현: 205장, 오철호: 163장, 오성실: 133장, 이은승: 124장

권만강: 114장, 이진홍: 84장, 윤원길: 43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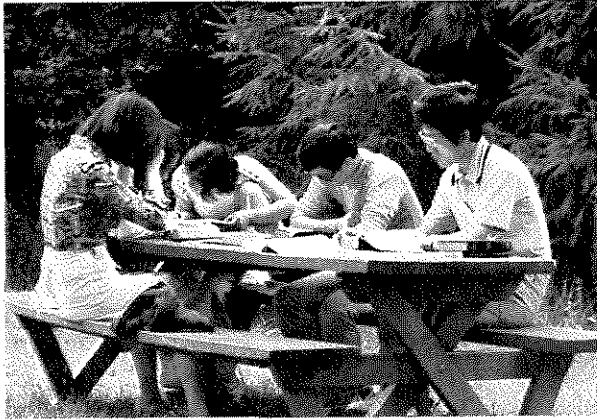
## 13) 청년회 좌담회

1972년 8월 19일 토요일 오후 8시에는 오인호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청년회 주최 좌

담회가 있었다. 좌담회 제목은 "국적을 정할 때"였고 패널리스트로는 임덕상교수, 이태섭박사, 오동호집사, 이보민집사, 권만강집사였다. 참석자는 20명이었다.

#### 14) 제 20회 새사명 하령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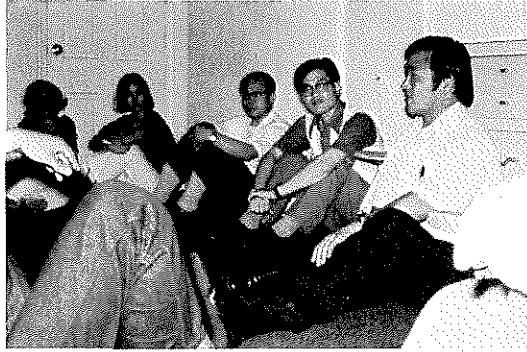
1972년 8월 30일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 포코노에 있는 Pine Brook 수양관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제목으로 제20회 새사명 하령회가 개최되다.



성경공부 그룹



성경공부 그룹



자유토의시간



휴식시간



휴식시간을 즐기는 젊은이들

## 15) 청년회 신입회원 환영식사

1972년 9월 10일 주일예배 후에는 청년회 신입회원 환영 식사와 친교의 모임이 있었다.

## 16) 음악감상회

1972년 9월 16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이태섭집사 가정에서 있었다. 이집사님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참석회원은 30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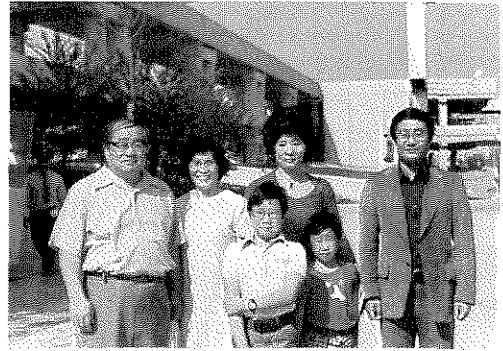
교회 청년회 집회 (이태섭집사 가정에서) →

## 17) 청년회 신앙좌담회

1972년 10월 21일 토요일 밤 8시에 오인호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올바른 신앙"이란 주제 하에 신앙좌담회가 있었다. 주강사로는 서철원목사가 초청되었다.

## 18) 이태섭집사(박사) 가정 귀국송별예배

1972년 10월 22일 주일에는 오랫동안 교회에 봉사해 왔던 이태섭집사 가정이 귀국하게 되어 송별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설교와 교인들의 송별사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송별 촬영의 순서가 있었다. 참석자 수는 113명 이었다. 10월 28일 토요일 United Air Line으로 귀국했다.



이태섭 집사 가정 환송

← 이태섭 집사 가정 송별 (1972년 10월 22일)

## 19) 청년회 헌신예배

1972년 11월 12일 주일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초청된 안병환목사의 "후에는 따라오리라"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안목사님은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 중이었다.

## 20) 감사절예배

1972년 11월 26일 주일에는 감사절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받은바 은혜를 세어 보라"라는 제목의 감사절 설교, 성가대와 어린이 합창부의 감사절 찬양, 성찬식의 순서로 감사절예배가 끝났다. 예배 후에는 제 2부 순서로 감사절 식사, 어린이 주일학교 각종 순서들이 있었다. 어린이 순서에 나온 어린이들은 합창에 어린이 전체, 제창에 박수잔, 정진아, 성경암송에 최미영, 김동철, 최소영, 독창에 정진아, 합창에 정혜란, 정혜영, 정혜복, 피아노독주에 오선애였다. 이 지역에 사는 많은 한국 분이 참석했다. 감사절 헌금은 \$1,045.75였다.

## 21) 성탄절예배와 행사

1. 1972년 12월 24일 주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있었다. "주님께 드릴 선물"이란 제목의 성탄절 설교, 성가대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나신 왕"이란 제목의 찬양, 그리고 성찬식이 있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성탄절 식사와 친목순서들이 있었다. 성탄 헌금은 \$614.70이었다.

2. 성탄축하 촛불예배 - 1972년 12월 24일 주일 밤 7시 30분에는 성탄절 축하 촛불예배가 코리아센터에서 모였다. 예배 후에는 청년회가 준비한 친목순서가 있었다.

## 22) 이 해의 마지막 주일예배와 송구영신예배

1. 1972년 12월 31일 주일에는 이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예배가 있었다. "이 해에 마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함"이란 설교가 있었다. 이날의 예배 순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져 있었다.

### "이 해를 보내는 두 가지 모습"

희망을 품고 기쁨으로 맞이했던 1972년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어떻게 이 마지막 날을 보낼 것인가? 사람들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공통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회개의 마음이다. 허전해서 떠들고 제정신 없이 몸부림치며 이 마지막 날을 보내는 것보다는 얼마나 믿음직한 다른 모습인지!

2. 1972년 12월 31일 밤 11시에는 코리아센터에서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 영신예배가 있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한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23) 한 해의 재정보고

1972년도 총수입:\$8,016.95, 총지출 \$5,960.08, 잔액 \$2,056.87

### 24) 등록 교인과 평균 교회출석 수

1972년도 등록 교인 수 약 175명, 평균출석 교인 수 80명에서 100명

## - 1973년 -

### 1) 신년예배와 새해를 맞는 교회

1973년 1월 7일 주일에는 신년예배가 있었다. 오기향목사의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날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새해를 맞는 글이 실려져 있었다.

"새해의 첫 출발에 있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다음 일들을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찾는 일

둘째: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

셋째: 그리스도를 옷 입듯 하는 일

넷째: 그리스도를 내 친구, 내 이웃, 내 동포에게 전하는 일 "

또한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집회 안내"도 실려져 있었다.

주일예배.....	매 주일 오후 2시 30분(교회당)
어린이 주일학교.....	매 주일 오후 2시 30분(교회당)
친목다과회.....	매 주일예배 후(교회당)
금요성경공부와 기도회.....	매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매 주일 오전 6시(장소: 기념 센터)
수요예배.....	매 수요일 저녁 8시

## 2) 공동의회

1973년 1월 28일 주일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었다. 토의 후 통과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973년도 예산

수입: 주정헌금.....	\$3,000.00
일반헌금.....	1,000.00
특별헌금.....	1,200.00
주일학교헌금.....	100.00
부활절헌금.....	600.00
감사절헌금.....	1,200.00
성탄절헌금.....	600.00
합계.....	\$7,700.00
작년도 이월금....	\$2,056.87
총계.....	\$9,756.87
지출: 교회사용비.....	204.00
교회청소비.....	180.00
문서우송비.....	450.00
전화비.....	150.00
음악부 및 성가대.....	350.00



청년회 보조비.....	300.00
봉사활동비.....	500.00
전도부활동비.....	120.00
다과비.....	400.00
주일학교보조비.....	300.00
탁아보조비.....	600.00
목사님사례비.....	4,800.00
강사비.....	80.00
자선전도비.....	150.00
경조비.....	50.00
성탄절행사비.....	250.00
예비비 및 기타.....	722.87
지출합계.....	\$9,756.87
건축현금(1972년 12월 31일 현재).....	\$3,250.17
(금년도수입: \$138.00)	

### 3) 이 해에 수고할 서리집사와 부서

1. 집사: 권만강, 권오영, 김원일, 오동호, 윤원길, 이보민, 이봉원, 이진홍, 이형원, 전상완, 정대현, 박상익

2. 제직회 부서

서기: 정대현, 재무: 권오영, 회계: 김원일, 권만강, 전도부장: 윤원길

교육부장: 전상완, 봉사부장: 오동호, 음악부장: 이진홍, 청년부장: 이보민

여전도부: 이형원, 예배 후 친목회 인도: 박상익, 한국뉴스: 이보민

### 4) 청년회 임원

1973년 2월 18일 주일에 발표된 청년회 새해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이보민, 부회장: 이정숙

총무: 오동호

회계: 허영애

신앙부장: 윤원길, 차장: 오철호

문화부장: 정대현, 차장: 오성실

섭외부장: 이진홍, 차장: 권만강

친목활동부장: 이희봉, 차장: 한동현

### 주보에 실린 오기항목사의 글

1973년 3월 11 주일 교회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목사의 글이 실려져있었다.

#### "사도행전을 읽으며"

우리 교인들에게 대한 주님의 부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탁의 하나가 "너희는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인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인이 되라는 부탁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부탁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기록한 귀중한 책입니다. 전도의 행적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다 같은 부탁을 받고 있으며 우리 나름대로의 전도행적을 엮어 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행적을 엮어 나가는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기를 원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첫째로: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사도행전의 전도인들은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시하시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둘째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셋째로: 전도해서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들에게도 같은 실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었습니다.

## 5) 주일학교선생

교장: 오성실선생

반사: 이정숙선생, 오철호선생, 오훈호선생

서기: 하영록

영아부: 김원숙선생

1973년 3월 25일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어린이 주일학교에 관한 목사의 글이 실려 있었다.

### "우리 교회 어린이 주일학교"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부모님들의 협력 가운데 정상하게 자람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때의 기록을 보면 지혜와 키가 자람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조물주를 알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이 귀중한 어린이들이 지혜가 더해지고 키가 자람을 따라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 진실로 사랑스러움을 받는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6) 구역장

북부구역: 윤원길집사

뉴저지구역: 이진홍집사

서부구역: 김원일집사

## 7) 성경다독대회

1973년 4월 1일 주일 주보에 다음과 같은 청년회와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다독대회에 관한 기사들이 실려 있었다.

### 1. 청년회 성경다독대회

기간: 1973년 3월 11일~3월 28일

참가자: 14명

결과: 매주 평균 다독장수는 17장, 최대 다독자 장수 265장

### 2.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다독대회

기간: 1973년 1월 28일~3월 25일

참가자: 12명

결과: 매주 평균 11장, 최대 다독자 장수는 273장

그리고 1973년 3월 18일 주일 교회 주보에는 성경 읽기 운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오기항목사의 글이 실려 있었다.

#### "성경읽기 운동"

한 교회가 얼마나 참다운 교회냐 하는 물음은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박고 자라나고 있느냐 하는 물음과 같은 물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도 또한 그들이 교회가 마련하고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들에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참여하는가 라는 물음과 같은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교회 청년회와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온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성경 다독대회가 되어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8) 수난 주일

1973년 4월 15일 주일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수난 주간에 대한 오기항목사의 글이 실려져 있었다.

#### "수난의 주님"

마태복음 28장 중의 8장을, 마가복음 16장 중의 6장을, 누가복음 24장 중의 4장 반을, 요한 복음 21장 중의 10장을 즉 전 복음서 89장 중의 28장이라는 큰 부분을 우리 주님의 지상생활 33년 중의 마지막 주간인 약 10일 동안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진실

로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수난의 고비를 치르지 않을 수 없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700년전 이사야 선지는 장차 올 고난의 메시아가 받을 수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라고 기록했고 또 계속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라고 기록했습니다.

## 9) 부활주일예배

1973년 4월 22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빈 무덤"이란 설교와 성찬식이 있었다. 예배 후에는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2부 순서가 있는 후청년회가 준비한 친목순서와 여전도회가 준비한 부활절 식사가 있는 후 집회를 끝냈다.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며 부활절 헌금은 638불이었다. 이날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오기항목사의 글이 실려져 있었다.

### "성찬식에 참여하는 준비"

성찬식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중요한 성례의 하나며 우리 교인들이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식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참여할 때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우리 신도들은 우리가 떼는 떡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몸이며 드는 잔은 그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임을 더 깊이 느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체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10) 어린이주일을 앞두고

어린이 주일을 앞둔 1973년 4월 29일 주보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는 마음의 준비를 위한 오기항목사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다.

### "어린이 주일의 정신"

오는 5월 6일 주일은 어린이 주일 또는 꽃주일입니다. 이날의 성경적 근본정신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그가 보여주시신 축복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를 안수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데 그 근본정신이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일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뜻에 따라 교육하고 잘 인도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부쯔 구세군 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손을 먼저 써서 어린이들이 죄악을 배우기 전에 선을 배워주어야 한다." 다음 주일에 가질 어린이 주일은 이런 정신을 더욱 더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11) 어린이 주일 성경 암송대회

1973년 5월 6일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의 순서 중 청년회가 주최한 어린이 주일 성경암송 대회도 있어서 더욱더 뜻 있는 어린이 주일이 되었다.

### 12) AIA (Athletes In Action)의 신앙 간증과 시범

1973년 5월 25일 금요 성경공부와 기도회에는 AIA 전도팀이 초청되어 신앙간증, 레슬링 시범, 전도 영화 등으로 참석한 교우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다. 전도에 관한 지혜와 용기가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기도할 때에 그들의 입을 열어 주셨다는 등 신앙 체험 간증은 기도의 힘을 다시 더 알게 해주었다. 그날 참석해 준 선수들은 장경무씨(70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획득), 그레그 힉스씨(팀주장 레슬링 미국대표 선수), 덕크 포락씨(세계 레슬링선수권 대회에서 제 4위), 그리고 힉스씨의 부인이었다.

### 13) 음악 감상회

1973년 6월 2일 저녁에는 청년회 주최 음악 감상회가 이승택회원 가정에서 모이다. 50여명의 식사와 장소를 제공해 주신 이승택교우에게 감사를 드린다.

## 14) 야외예배

1973년 6월 10일 주일에는 야외예배가 Valley Forge 공원에서 있었다. 오기향목사의 설교로 예배가 끝난 후 각종 친목순서가 있었다. 이날 주보에는 오기향목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향기"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과 생활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의 변화는 자아 중심인 에고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과 생활이며 둘째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꽃에 아름다움과 향기를 자연계의 아름다움이라고 부른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얻는 이 두 가지의 변화는 하나님의 특수한 은혜의 아름다움이요 향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 15) 청년회 헌신예배

1973년 6월 17일 주일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사회 윤원길집사, 주악 한동숙양, 기도 오동호집사, 설교 이보민집사, 제목은 "더 나은 제자"(히브리서 11장 1~4절) 이었다.

## 16) 청년회 성경다독대회 다독자 발표

1등: 이정숙 598장	4등: 한동현 185장
2등: 오훈호 354장	5등: 김청자 174장
3등: 오수옥 200장	6등: 오성실 168장

## 17) 교회후원 오인호기념 코리아센터 한 미 교인 우호 뱅킷

1973년 6월 16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오인호기념 코리아센터 주최 한미 교인친선 뱅킷과 음악회가 West Chester Pike, Haverford, PA에 위치한 Trinity Lutheran Church에서 있었다. 각종 음악 순서와 한국 음식을 즐기며 친교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미국인 교인 수는 100명이었다.

## 18) 북한교회주일

1973년 6월 24일 주일은 북한교회 주일로 지켰다. 본교회 오기항목사의 "그리스도교회와 핍박"이란 제목 하의 설교가 있었다. 이날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오기항목사의 글이 실려 있었다.

### "6.25와 북한교회 주일"

오늘은 북한교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23년 전 6월 25일에 일어났던 비참했던 한국전쟁으로 발생했던 그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본국 교회들은 이날을 북한교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본국에서 살든지 외국에서 살든지 다시는 이런 동포 상쟁의 비참한 일이 없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극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가 하루 속히 변해서 온 민족이 평화적으로 살 수 있는 통일이 속한 기일 내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할 줄 믿습니다.

## 19) 재미 한국 2세 교육을 위한 세미나

1973년 7월 7일 토요일 밤 8시에는 재미 한국 2세 교육을 위한 세미나가 영재학교 주최로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주강사로는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소장 오기형교수가 초청되었다. 지역에 사는 많은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 20) 영재학교 하기학교

1973년 7월 3일 화요일부터 7월 31일 화요일까지 4주일간 제3회 영재 여름학교가 있었다. 교통이 불편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소형 스쿨버스가 구입되어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장소는 기념 코리아센터였다. 다음은 여름학교 회계보고이다.

제3회 영재 여름학교 회계보고

1973년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4주간

수입:

이규환 의사(학부모) - 버스 구입 기부금..... \$200.00



이연찬 의사(학부모) - 일반비용.....	200.00
김경호씨(학부모).....	50.00
최병협씨(학부모).....	20.00
기타수입:	
유치부 비용 납입비 (18 2).....	16.00
음료수 값.....	6.30
총계.....	\$492.30
지출:	
스쿨버스비용(가스 기타비용).....	119.49
유치부 지출(수공비, 쿠키).....	9.00
점심제공(7월2일).....	9.92
교무부 지출.....	28.33
사진(film).....	5.40
카세트 테이프.....	3.99
버스 구입비 보충.....	200.00
선생님 친목비.....	27.12
사진 앨범.....	21.47
총지출 .....	\$432.72
잔액 .....	\$59.58

1973년 9월 10일, 회계: 허영애선생, 부회계: 오수옥선생

## 21) 제 21회 새사명 하령회

1973년 7월 11일(수)부터 7월 14일(토)까지 4일간 우리 교회 후원과 새사명 선교회 주최 하령회가 "말씀으로 무장"이란 주제로 포코노에 위치한 파인부룩 수양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하령회가 끝난 주일인 1973년 7월 15일 주일 교회 주보에는 하령회에 대한 오기향 목사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져 있었다.

### "말씀으로 무장"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파인부룩에서 가진 기독교 새사명회 제21회 하령회의 선택된 주제는 "말씀으로 무장"이었습니다. 참석하신 회원들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하령회 기간 중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가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흐릿해지고 그 중요성이 약해지며 말씀을 상고하며 공부하는 일이 게을러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에 따라서 흐릿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는 말씀을 더욱 더 중요히 생각하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성경 다독대회 등으로 힘쓰고 있음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계획과 실천이 나아가서는 우리 한인 교회들에게도 격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읽을 뿐만 아니라 많이 읽는 동시에 성령의 도움으로 더 깊은 뜻을 배움으로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22) 제 28회 해방기념예배

1973년 8월 12일 주일에는 제28회 해방절 기념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설교와 방미 중인 전주 서문교회 최상삼 장로의 기도가 있었다. 이날 주보에는 오기항목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 "참된 해방"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제28회 8.15 해방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일본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국에 의해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민족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의 날을 기념할 때 과거의 기쁨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는 이런 노예 생활에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과 이와 같이 타민족이나 인류를 자유에서 속박하는 모든 악의 근본 세력에 대해서 싸워야 하겠다는 결의를 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어났고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타민족간 이 아닌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또는 같은 민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불의와 억압도 보아 오고 있습니다. 금권이나, 조직이나, 권력이나 무슨 형태로든지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일어나는 인간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탐욕과 죄악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위한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23) 전도달

1973년 9월 2일 주일 주보에 따르면 교회에서는 이 9월을 전도달로 정하고 이날 주보에 다음과 같은 오기향목사의 글이 실려 있었다.

### "전도의 달과 청년회 신앙 좌담회"

우리 교회에서 이 달(9월)을 전도달로 정하고 온 교인들이 전도하는데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느 날이고 똑같이 힘써서 전도해야 하지만 이렇게 전도달이라고 정하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들의 주의와 노력을 더 실천에 기울여 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모인 청년회의 신앙 좌담회에서 전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하게 된 것은 전도달의 출발에 큰 의의와 힘을 주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전도의 동기를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에 두고 성령의 역사에서 본 일이라던가, 전도의 방법을 신앙에 근거해서 실천에서 다룰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우리 교회 교인들의 신앙 수준을 말해 주는 것 같아서 감사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성적인 준비와 기대에 비해서 30여명의 출석으로는 아직 교인들의 전체적인 신앙운동과 단결에 약점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아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 24) 청년회 신앙 좌담회

1973년 9월 1일 토요일 밤에는 청년회 신앙좌담회가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성과를 얻었다.

## 25)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

1973년 9월 2일 주일예배 후에는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되었다. 선거 결과 한인환선생이 피선되었다. 피선된 한인환선생은 한국 교계에서 성가 지휘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으로 또 우리 교회 성가대를 위해서 수고해 오신 분이다. 당회의 시취와 장립식을 거쳐서 본교회의 시무장로의 성직을 받게 될 것이다.

## 26) 청년회 주최 필라 미술관 관광행사

1973년 9월 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청년회 주최 필라 미술박물관 관광행사가 있었다.

## 27) 청년회 헌신예배와 이보민집사 가정 송별예배

1973년 9월 9일 주일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설교는 청년회 회장이신 이보민 집사가 맡으셨다. 설교제목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빌3장 5~9절)이었다. 예배에 계속해서 이보민집사 가정 송별예배가 있었다. 이집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신학공부차 부인 한동현씨와 함께 화란으로 오는 9월 중순에 떠나기로 되어있었다. 이날 주보에는 오기항목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 "이보민집사 내외를 보내면서"

이보민집사님은 부인되시는 한동현씨와 함께 신학 연구차 이곳을 떠나 화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곳에 계시는 약 2년 동안 성의와 열성으로 변함 없이 우리 교회에 봉사하셨습니다. 평교인으로서 또 집사직과 청년회 임원 그리고 청년회 회장으로서 또 부인께서는 피아노 반주와 성가대원으로서 귀중한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로서 성도의 교제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건강하신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준비에 성과를 거두시기를 빕니다.

## 28) 울릉도에서 온 편지

지난 주간에는 한국 울릉도에서 교회와 병원을 세우시고 복음 사역에 힘쓰시고 있는 이일선목사(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가 왔습니다.

성은 중 평강하시옵기를 빕니다. 얼마 전 귀교회 청년회장 이보민씨로부터 편지를 받은바 있으며 그 편지 안에 45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목사님께서 울릉도 사업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받은 청년회원들의 성의로 보내주신 줄 알고 잘 받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병원일, 환자 돌보는 일로 매우 분주합니다. 경제적으로 이 고난을 이겨가려고 집들도 은행에 담보를 하고 일을 진행 중입니다. 보내주신 금액이 이 건물의 벽돌 중에 끼어서 이 병원이 완성되는

날 이 기쁨을 섬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릉도에서 이일선 올림

## 29) 전도 질문지

1973년 9월 16일 주일 주보에는 전도달인 9월달을 효과 있게 보내기 위해서 질문지가 교인들에게 배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질문지가 마련된 이유는 우리 교회 교인들의 전도에 관한 실태를 좀더 자세히 알아서 우리 교회 전도 운동에 도움이 되고자함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은 주보에 기재된 제 1차로 질문지에 기입해 주신 22명의 해답 통계이다.

1. 당신은 현재에 전도 대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6명 73%  
있는 것 같습니다..... 5명 23%  
없습니다..... 1명 5%
2. 전도의 대상이 몇 분입니까?  
한분?..... 6명 30%  
두분?..... 5명 25%  
세분?..... 9명 45%
3. 이 전도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친구..... 8명  
친척..... 4명  
우연히 만난 분..... 13명
4. 주로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십니까?  
기도로..... 15명  
교회와 성경공부에 인도함으로..... 12명  
친구가 됨으로..... 12명  
실제적 도움을 줌으로..... 11명  
자신의 신앙체험을 말함으로..... 9명

-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도리를 말함으로..... 7명  
 성경공부를 함께 함으로..... 7명
5. 당신은 전도에 있어서 다른 교우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기도..... 5명  
 신앙간증으로..... 2명  
 친구가 되어줌으로..... 1명
6. 당신은 전도하는데 있어서 다른 교우와 의논했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7명  
 생각은 했지만 용기가 없어서..... 1명  
 항상 하고 있습니다..... 11명
7. 의논하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친척..... 3명  
 친구 교우 또는 평신교..... 3명  
 교회 직분자..... 6명

### 30) 성가대 활동

1973년 10월 7일 주일에는 본교회 성가대가 Germantown에 있는 미국인 장로교회 예배에 초청되어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예배 후에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31) 야외 예배

1973년 10월 21일 주일에는 야외예배가 Valley Forge 공원에서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백합화를 보라"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각종의 친목 순서들이 있었다. 이 야외예배에도 이 지역에 새로이 온 분들이 다수 참석하여 귀중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이날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오목사의 글이 실려져 있었다.

####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최근 이미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처음으로 오늘 나와주

신 형제자매들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귀중한 교제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낮선 이 땅에 와있는 우리 교포들의 피곤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갈한 심령의 샘터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으로 향할 때에 품었던 그 꿈들이 헛것이 되지 않고 진정한 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라면 다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32) 여전도회 활동

1973년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는 Media에 있는 미국인 장로교회 선교모임에 초대되어 한국식사로 이 모임을 돕고 친밀한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었다. 이 선교모임의 설교자는 오기항목사였다.

### 33) 한인환선생 장로장립예배

1973년 11월 11일 주일에는 한인환선생의 장로장립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란 설교, 본교회 찬양대원의 기악 사중주 "천사의 노래" 그리고 계속해서 장로서약, 안수기도, 선언의 순서가 있었고 장로에 대한 권장은 Dr. Luther P. Fink (Manoa United Presbyterian Church) 목사님이 하셨다. 한인환 장로의 대략의 경력은 다음과 같다.

1914년 3월 1일 함경남도 함흥시 한영호장로의 가정에서 출생

1937년 서울 연희 전문학교 상과 졸업

오늘에 이르기까지 35년간 여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 교회 중에는 함흥 중앙교회, 서울 새문안 교회, 서울 영락교회, 서울 남산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온 후에는 우리교회에서 수고하셨다. 사모되시는 김은경 여사와의 슬하는 2남 3녀, 자녀 중에는 우리 교회 집사였던 사위 되신 이보민씨와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피아니스트 한동일씨 등 있다.

### 34) 제자훈련 프로그램

1973년 11월 11일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제자훈련 프로그램 알림이 게재되어있었다.

"매주일 밤 7시 30분에는 교회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꿈을 효과 있게 실천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젊은이들의 신앙 훈련과 친목을 위한 프로그램이 새사명회 주최로 코리아센터에서 있습니다"

### 35) 한미기독인 조찬기도회

1973년 12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한미기독인의 친목을 위한 조찬기도회가 오인 호기념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이날 이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신 분은 Woll 목사님이셨다.

### 36) 감사절예배

1973년 11월 25일 주일에는 감사절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아름은 어디 있느냐?" 란 제목 하의 설교, 성가대의 특별찬양, 세례성찬식으로 예배가 끝나고 제2부 순서로 어린이 주일학교, 청년회, 여전도회 주최로 성대히 끝났다. 이렇게 이 학생 교회가 특별한 때를 중시하여 온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유학생과 우리 교포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었기 때문이었다. 교회 설립 이래 교회를 찾게 되고 또 주님을 알게 된 분들 중에는 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기타 하명회 등 특별집회를 통한 분들이 많았다. 이날 세례 받으신 교우들은 다음과 같다.

장년세례: 손학실교우, 최순복교우

영아세례: 전해복(전상완집사 아기), 권경주(권오영집사 아기), 이수정(이진홍집사 아기), 이수연(이희봉교우 아기), 이은이(이기원 의사 아기)

감사헌금: \$2,201.30

이날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오기항목사의 글이 실려져 있었다.

"감사를 통한 승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를 잊고 헛된 신을 섬기며 죄에 빠져 멸망에  
로 향하고 있었을 때 이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너희  
는 애급의 종이 되어 학대를 받고 고통의 부끄러움을 당하며 소망이 없이 살고 있었  
던 때를 생각하라. 홍해를 갈라 너희를 건너게 하고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밤이면 불기  
둥으로 인도해주신 너희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같  
은 이 말씀 가운데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축복을 받게 하는 길을 보여주는 능력의 말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도 같은 경험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  
로는 애급의 학대도 있었을 것이며 때로는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거기에서 인도해 내어 주신 이는 우리 하나님  
이시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며 감사에 넘쳐 사는 한  
사람을 멸망에로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죄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 37) 1973년 성탄절을 앞두고

1973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바로 맞는 준비에 대한 오기항목사의 글이 성탄절  
을 앞둔 12월 9일 주일과 16일 주일 주보에 실려져 있었다. 그 글들은 다음과 같다

#### "주님의 이 말씀을" (12월 9일 주일 주보)

성탄절을 맞기 위한 준비에 사람마다 바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날에 우리들이 친구를 청하고 선물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쁜 날을 맞기 위해서  
분주히 지내다 보면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귀중한 것을 잊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  
을 청하며 남을 대접 할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차  
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눅 14  
장 12~14절) 하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맞이할 성탄을 준비할 때 "나는 네  
가 준비한 잔치와 선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줄 믿

습니다.

### "주님을 모시는 성탄절" (12월 16일 주일 주보)

찬송가 479장 " 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을 작사한 부락씨는 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감격의 고백을 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주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활이 신앙인의 생활이요 또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을 더 기뻐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73년의 성탄절을 맞는 우리 교회에서는 다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하겠으며 또한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 중 아직까지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셔들이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기회에 결심하시고 주님을 그 마음에 모셔들이는 일이에요 둘째로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성도된 우리에게 이번 성탄절이 그리스도에게 더욱 더 의탁하는 생활로 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므로 이번 성탄절이 참다운 기쁨과 평화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 38) 성탄축하예배

1973년 12월 23일 주일에는 성탄절 축하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첫번 크리스마스"란 제목의 설교, 성가대의 헨델의 메시아 중 "주의 영광" 지휘 한인환 장로, 세례식과 성찬식의 순서로 예배가 끝나고 어린이 주일학교가 준비한 제2부 순서가 있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에는 청년회 주최 성탄축하 촛불예배와 친목 순서가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성탄절 헌금은 \$1,757.85 였다.

이날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오기항목사의 성탄절을 맞는 글이 실려져 있었다.

####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뻐하시고 가인의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불원천리하고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왔던 세 박사의 성의와 아낌없었던 정성의 예물들을 생각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드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통회하는 마음과 정성에 넘치는 감사의 마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39) 1973년을 보내는 주일예배와 송구영신예배

1973년 30일 주일에는 이 해 마지막 주일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승리의 고백"이란 제목의 이해를 보내는 설교가 있었고 31일 밤 11시 30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인 30일 주일 주보에는 이 해를 보내는 오기항목사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다.

#### "다시 한번 더 생각함"

시간은 돈이다(Time is money) 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말을 "일촌광음 일촌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보면 돈과 금은 갔다가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은 한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금보다 귀한 광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광음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썼는지 우리의 장부를 다시 한번 더 훑어볼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보다 귀한 광음을 주 위해 바치세", "광음을 아끼라 이때가 악하니라" 했는데 내 목적, 내 욕심, 내 편리, 내 기쁨이라는 명목이 "주님을 위해서"란 명목보다 너무나도 많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도로 찾으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어떤 장부를 들고 그의 앞에 서게 될 것인지요? 1973년을 보내며 1974년을 맞게 되는 문턱에 서게 되는 우리 각자마다 다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 1974년 -

### 1) 신년예배

1974년 1월 6일 주일에는 이 해 첫 주일로 신년 축하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새 사람을 찾는다"란 제목의 신년설교가 있었다. 이날 주보에는 신년을 맞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 "자기를 이기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

오늘은 1974년 새해를 맞는 첫 주일어요 또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더하시기를 빕니다. 고향을 떠나 먼 땅에 와있고 또 우리들의 생활 형편이 각각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모시고 같은 교회에서 따뜻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받드시는 일에 지난해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요한복음 16장 24절)라고 가르치셨는데 이 해 이 첫출발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 즉 자기를 이기는 일과 십자가를 지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 2) 교회 집회들

1. 교회 주일예배: 매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교회당
2. 새벽기도회: 매 주일 새벽 6시, 장소: 기념센터
3. 수요일예배: 매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기념센터
4. 금요성경공부와 기도회: 매 금요일 밤 7시 30분, 장소: 코리아 썬타
5. 새벽기도회: 매 주일 새벽 6시, 장소: 기념센터
6. 어린이 주일학교: 매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교회당
7. 영재 한국학교: 매 토요일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장소: 코리아센터
8. 여전도회: 정기 총회, 월례회, 헌신예배, 기타 특별집회
9. 청년회: 정기총회, 월례회, 헌신예배, 기타 특별집회
10. 신앙훈련회: 매주 밤7시 30분, 장소: 코리아센터
11. 구역예배: 각 가정에서

### 3) 금년 새해에 봉사할 교우들

집사: 권만강, 권오영, 김월일, 박형균, 오동호, 윤원길, 이병훈, 장영완, 정대현,  
이진홍, 조영복, 전상완, 황현배

권사: 이봉원, 김명환, 김은경

찬양대지휘: 한인환, 피아노: 김은경

유년주일학교 부장: 이정숙

친목부: 박상익

한국소식: 이희봉

### 4) 청년회 총회

1974년 1월 13일 주일예배 후에 청년회 정기 총회가 있다. 선출된 새해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오철호, 부회장: 윤영숙

총무: 조영창

신앙전도부: 허영애

친목활동부: 박종숙, 오훈호

문화부: 주연상

### 5) 신년 공동의회

1974년 1월 20일 주일에는 신년 공동의회가 있었다. 지난해 재정보고와 새해 예산이 통과되었다.

지난 해 재정보고: \$11,993.36

새해 예산: \$14,230.00

이날 후보에는 다음과 같은 오기항목사의 글이 실려져 있었다.

## "기도에 힘쓰자"

주님은 분주한 시간을 피하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할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바랄 때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야 하겠습니다.

## 6) 유아양육 강의

1974년 1월 20일 주일예배와 공동의회가 끝난 후 친목시간에는 여전도회 주최 유아양육 강의가 약 한 시간 있었다. 초청된 강사는 필라델피아시 교육위원회의 영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Stephen 여사였다. 참석한 여교우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 7) 한미 조찬기도회

1974년 2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한미 기독교인 조찬기도회가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Woll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가 있었다.

## 8) 새해와 봉사의 마음

1974년 1월 20 주일 주보에는 새해에 가질 봉사의 마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오기항 목사의 글이 실려져 있었다.

###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빈들에서 시장한 5천명을 먹인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살펴보면 그 큰 기적이 한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인 떡 다섯 덩어

리와 물고기 두 마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나 또 그저 순진한 마음에서 바친 이 소년 자신에게는 그 작은 도시락이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아신 일이에요 이루신 일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는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하실 때 주님께 바친다면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보다 주님 손에 있을 때 더 큰 결과를 가져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9) 청년회 헌신예배

1974년 2월 24일 주일 밤 7시 30분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청년의 헌신과 그 결과"란 제목의 설교와 조영창군의 첼로독주가 있었다. 헌신예배 후에는 친목순서가 있었다.

## 10) 제55회 3.1절 기념예배

1974년 3월 3일 주일에는 제 55회 3.1절 기념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3.1절의 현재적 의미"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전 주일인 1974년 2월 24일 주일 후보에는 3.1절을 맞기 위한 오기항목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 후보에 실려져 있었다.

### "3.1절과 이 두 정신"

3.1 운동에 나타난 근본정신을 둘로 간추린다면 그 하나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 평등이요 다른 하나는 민족애이다. 이 운동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유와 그와 같이 많은 희생자를 내었던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을 받침하며 키워주고 있는 정신에는 말씀드린 이 두 정신이 거기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두 정신을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모든 부당한 죄의 억압에서의 자유해방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사에 나타난 참다운 애족심의 고귀함을 보게 된다. 자유해방과 민족애의 정신이다. 3.1 운동이 있는 후 반세기를 넘긴 오늘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현실은 어떤가? 우리가 한때 기대했던 그 기대에서 너

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맞이할 제 55회 3.1절은 우리 민족이 3.1 운동을 통해서 발휘했던 이 두 정신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11) 청년회 주최 워싱턴 벚꽃 관광

1974년 4월 6일 토요일에는 청년회 주최 워싱턴 벚꽃 관광이 있었다. 참석자는 38명이었다.

## 12) 종려주일에배와 세례식

1974년 4월 7일에는 종려주일에배와 세례식이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이란 설교가 있는 후 세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세례 받으신 교우들은 다음과 같다.

장년세례: 김병운, 서분숙, 이재호, 유경임, 안영숙, 강경희, 최병규, 오선에  
이상 8명이었다.

이날 주보에는 성찬식에 관한 오기항목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 "성찬식의 깊은 뜻"

오늘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날 친히 떡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행하심으로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다음 몇 가지로 그 깊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떡과 잔은 주님의 살과 피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뜻합니다. 우리육신이 먹고 마시는 것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또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믿음 없이 귀로 흘려보내면 헛것이 되는 것처럼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맛 볼 수 있는



떡과 잔을 주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믿음 없이 받으면 헛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죄가 됩니다.

셋째, 이 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주안에서 서로가 다 한 몸이요 지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한 피와 한 살에 속하는 한 권속이요 한 골육이 되며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13) 성경다독대회 중간보고

1974년 4월 7일 주일 주보에는 청년회가 주최하고 있는 성경 다독대회 중간보고가 다음과 같이 실려져 있다.

참가인원 10명, 최대 다독자 장수: 196장(3월 중)

### 14) 부활절예배

1974년 4월 14일 주일에는 부활절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부활절 설교와 성가대의 특별 찬양 순서가 있었다. 성가대의 특별 찬양은 다음과 같다.

"왕 되신 우리주" Teschner..... 성가대  
"영광" Mozart..... 성가대  
"거기 너 있었는가"..... 여성 4중창 (손민자, 김혜원, 김혜경, 서동혜)  
"기억하소서 주여"  
"혼성 2중창"..... 최수혜, 천소용  
"알레루야" Mozart..... 김자영  
"다시 사셨다" H. Von..... 성가대  
"할렐루야 주 부활하셨다" F.E. 메가..... 성가대

### 15) 교회가 가져야할 참 모습

1974년 4월 21일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오기항목사의 글이 실려져 있었다.

## "교회가 가져야할 참 모습"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는 그 출발에 있어서 예루살렘 한 구석에서 일어난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이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거나, 지식층의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후일 세계 온 민족과 나라 그리고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폭발력과 요소를 충분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순종심 그리고 기도의 힘과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포와 불의 그리고 헐박과 핍박이 이들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불꽃이요 새 세력이었습니다. 사랑과 기쁨, 사명과 소망을 이들은 공유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뜨거운 열성과 신선한 힘과 폭발력을 다시 초대교회에서 배워야할 줄 믿습니다.

## 16)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 공고

1974년 4월 21일 주일 후보에는 청년회 주최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 공고가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다.

일시: 1974년 5월 5일 어린이 주일예배 후

지정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고린도전서 13장, 시편 23편(영어성경도 가함)

참가신청서: 4월 24일 주일까지 주일학교 부장 이정숙선생에게

## 17) 어린이 주일예배

1974년 5월 5일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다음 세대의 주인"이란 제목의 어린이 주일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청년회가 주최한 어린이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다. 이날 교회 후보에는 어린이들의 신앙을 위한 오기항목사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다.

### "어린이들의 영적 성장"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주님의 3면 즉 육체적 면, 지적 면, 그리고 영적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은 육체와 지혜만이 아니라 영적 면에서도 순조롭게 자란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만 사랑스러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라난 모습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이들의 건강과 학교 교육에 쓰이는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자람에 쓰이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어린이들을 가진 많은 부모님들의 현실이 아닌지요? 어린이들의 영적 자람에 좀더 힘써야 할 때라고 봅니다.

## 18) 어머니 주일예배

1974년 5월 12일은 어머니 주일이어서 어머니 주일예배가 있었다. "신앙의 어머니"란 제목의 오기항목사의 어머니 주일 설교와 김명환권사와 이진호집사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신앙간증이 있었다. 이날 주보에는 "한국교회와 어머니들의 수고"란 제목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다.

### "한국교회와 어머니들의 수고"

빌리 그램의 대전도집회가 한국에서 있는 후 종종 미국 교인들로부터 한국교회의 열성과 신앙부흥에 대한 찬사를 듣게 됩니다. 선교를 받은 지 불과 한 세기밖에 안 되는 교회로서 그와 같이 많은 교세를 가지고 있고 또 계속 부흥의 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역사라고 믿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와 같이 교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성도들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교우들 중 어머니들의 희생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분주한 살림에 하루도 빠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에 모여 눈물로 열심히 기도를 드리던 어머니들의 모습! 가난한 가운데서도 아끼지 않고 한술 두술 모아서 교회에 바치던 어머니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증축할 때에는 건축할 돌들을 머리에 이고서라도 가져오고야 안심하던 교회 사랑의 책임감! 이런 아름다운 희생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는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어머니들의 희생정신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간들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야 말 것입니다.

## 19) 코리아센터 제 16회 연례 뱅킷

1974년 5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오인호 기념 코리아센터 주최 본교회 후원의 제 16회 연례 벅킷이 필라 서부 Chester Avenue선상에 위치한 Trinity Lutheran Church에서 있었다. 순서에는 본교회 성가대의 각종 음악과 한국식사 그리고 친목순서들로 즐길 수 있었다. 많은 한미 교인들의 참석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 20) 야외예배

1974년 6월 2일 주일에는 야외예배가 Valley Forge 국립공원에서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하나님의 세계"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점심식사가 끝난 후에는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특별친목순서들이 있었다. 어른들의 친목순서는 청년회에서 맡아 진행되었다. 새로이 이 지역에 온 여러 교포들도 참석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날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오기항목사의 글이 실려 있었다.

### "새와 꽃을 보라 "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뜰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나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중의 새와 뜰에 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새들을 기르시고 꽃들을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얼마나 더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을 향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야외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으신 대자연을 대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의 사랑과 그의 공의를 더욱더 느끼고 사시는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 21) 성경다독대회

1974년 6월 16일 주일 주보에는 청년회 주최 성경다독대회 결과가 보도되어 있었다. 그 해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된 결과다.

1등: 이정숙 850장, 2등: 김정기 507장, 3등: 김청자 335장, 4등: 황현배 200장

## 22) 청년회헌신예배

1974년 6월 23일 주일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이 헌신예배 설교에는 하병국 목사가 초청되었다. 하병국목사는 한국 경상남도 5.6도 나병환자 교회에서 10년간 목회하셨다. 설교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였다. 이날 예배순서에 참가한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 회장 오철호

성경봉독: 총무 조영창

기도: 신앙부장 허영애

찬양: 성가대원

셀로 2중주: "나는 하나님이사라"(Collins) 윤영숙, 조영창

신앙간증: 회장 오철호

성경다독대회 시상: 주례 오기항목사

이번 헌신예배 준비를 위한 오기항목사의 글이 1974년 6월 9일 주일 주보에 실려져 있었다.

### "헌신적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생활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찬송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심령과 그 생활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그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것이라는 관념에서부터 떠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일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이 가능한 것이지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은 다 내 것이라는 욕심에서 살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생의 불안과 신앙의 무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나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6월 23일에 있을 헌신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장 19~20절)

### 23) 제4회 영재 한국학교 하기학교 개학 중

1974년 7월 2일 화요일에는 영재 여름학교가 개교식이 있었다. 등록 학생은 42명이었다. 학생 부담금은 없었다.

### 24) 친선교회 대항 운동경기대회 참가보고

1974년 7월 4일 (미 독립기념일)에 있는 친선 교회대항 운동 경기대회에 참가한 본교회 청년회 보고에 의하면 본교회팀은 발리볼에서 2등을 차지했다고 하며 전체 참가팀은 다섯 교회였다고 했다.

### 25) 제22회 새사명 하령회를 위한 위한 준비

1974년 7월 7일 주일 주보에는 계속해서 알려오던 7월 10일 수요일부터 있을 제22회 새사명 하령회 준비를 위한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져 있었다.

#### "제22회 새사명하령회"

제22회 기독교 새사명하령회가 오는 7월 10일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4일간 포코노산에 위치한 파인부룩 기독교 수양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한 20장 21절)란 전도적 주제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새사명 하령회는 과거 20여년간 본교회 오기향목사의 인도와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 동포들의 신앙 향상과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계속되어온 신앙 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온 교우들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26) 제 22회 새사명하령회

1974년 7월 10일(수)부터 13일(토)까지 4일간 포코노산에 위치한 기독교 수양관인 파인부룩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다. 이 모임은 우리 교회 후원과 새사명회 주최였다. 새벽기도회, 아침예배, 성경공부, 신앙간증과 토의, 특별세미나, 그리고 산책, 수영, 보트, 승마 기타 레크리에이션의 즐거운 순서들로 짜여 있었다. 이번 모임에 참석 수는 어른 46명 어린이 10명 총 56명이었다. 하령회 중 염려된 것은 참석했던 오훈호군이 다리에 상처를 입어 입원했던 일이다. 그러나 큰

어려움은 없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 27) 하령회를 끝내고

1974년 7월 14일 주일 후보에는 지난 주중에 있는 새사명하령회 폐회 소감이 다음과 같이 실려져 있었다.

### "하령회 소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한복음 20장 21절) 하신 주님의 말씀 중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가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포코노에서 모였던 제22회 기독교 새사명하령회의 주제였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전도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중요한 전도의 사명을 보다 더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를 찾아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을 줄 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모임에서 전도의 중요성은 잘 확인하지만 그 실천이 항상 말과 이론을 잘 따르지 못하는 점을 보게 된다. 이번 하령회에서 확인되고 진지하게 토의된 결과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보다 더 실천에 옮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 28) 제29회 광복절 기념예배

1974년 8월 18일 주일에는 제29회 광복절 기념 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참 자유와 해방"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날 후보에는 "참 자유"란 제목의 오기항목사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져 있었다.

### "참 자유"

1941년 정월 6일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연설에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에서의 자유, 그리고 공포에서부터의 자유를 말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회 파리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이 네가지의 자유와 권리를 기초로 해

서 세계 모든 인류가 공유해야 할 이 인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화국이요 현대국가라 자칭하는 모든 나라들은 대소를 막론하고 이런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유와 권리가 많은 지역에서 너무나 짓밟히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숨길 수 없다.

성경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런 천부의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유에 한정되지 않은 보다 더 본질적인 자유를 뜻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요 내적이며, 심령적인 자유와 해방을 뜻한다. 모든 외적 자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내적인 참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속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아들이(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한 8장 36절).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을 선언하는 동시에 이 참 자유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참 자유의 길은 만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 29) 청년회 헌신예배

1974년 9월 8일 주일에는 청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운영숙 부회장의 사회와 이보민 집사의 "복음적 자유"란 제목의 설교와 손민자 회원과 조영창 회원의 첼로 2중주가 있었다. 이날 후보에는 오기항목사의 "누구의 자녀"란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 "누구의 자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넓은 일반적인 면은 나타내지만 성경이 말하는 좀더 깊은 의미의 내용은 뜻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요한복음 8장 44절)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



로 시인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요한 1서 2장 23절)

### 30) 수재 구제금 모금

1974년 9월 15일 주일 교회 주보에는 다음과 같은 한국 제주지방 수재 구제금에 관한 글이 실려 있었다.

#### "따뜻한 손길"

교우 여러분께서도 신문보도 등으로 잘 아시는 대로 본국에서는 지난 8월 28일에 전남과 제주지방을 휩쓴 폭풍우와 홍수로 인하여 2만여명의 이재민을 내고 가족과 집을 잃고 있을 곳이 없어 구제의 손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본교회 청년회에서는 수재민 구호를 위해 구제금을 모아 본국으로 보내기로 하고 모금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동포애로 힘이 자라는 대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후 같은 12월 15일 주보에 의하면 157불이 모아져서 적은 정성이지만 본국 전남 총 여전도회 차순애 전도부장 앞으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 31) 그리스도인과 충성

1974년 9월 22일 주보에는 그리스도인과 충성이란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 "그리스도인과 충성"

윌리엄 스컷이라는 젊은 병졸이 중요한 보초 중 졸았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아주 충성스럽고 용감한 군인이어서 그의 직속상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사형 24시간 전에 대통령 특별사죄 청원을 올렸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 사유를 잘 읽고 들여본 후에 마음에 결정하고 산적한 많은 공무를 제쳐놓고 이 병졸의 병영에까지 친히 찾아가서 "너는 내일 총살형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 직권으로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이 병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젊

은 병졸에게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는데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젊은 병졸은 너무나 기뻐서 "내 부모나 내 친구에게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구해서 갚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내 비용과 시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니 군인으로서의 네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 32) 청년회 주최 음악 감상회

1974년 9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청년회 주최 음악 감상회가 이승택회원 가정에서 있었다. 음악 해설은 손민자회원과 윤영숙회원이 맡으셨다. 장소와 식사는 이승택 회원이 제공해주었다.

### 33) 야외예배

1974년 10월 13일 주일에는 야외예배가 Valley Forge공원에서 있었다. 이날 설교는 한국에서 최근에 도미한 김정국목사가 맡아 주셨다. 설교 제목은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었다. 예배 후에 청년회에서 준비한 야외 찬목순서들이 있었다. 이 지역에 새로이 온 분들의 참가 등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34) 금요성경 기도회를 금요일예배로

1974년 10월 13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던 금요성경 기도모임을 금요일 또는 5일 예배 모임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고 장소는 기념 코리아센터였다.

### 35) 신앙훈련회 1주년과 새 계획

지난 해 11월에 시작한 신앙훈련회는 10월을 마지막으로 1주년을 맞았다. 다음 신앙훈련회 모임부터 오는 몇 모임 동안은 쉐퍼드 박사 저 "Escape from Reason"의 내용 분석과 요한복음 연구 등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챌린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가 실려져 있었다.

### 36) 주보에서

1974년 11월 3일 주일 주보에는 오기항목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져 있었다.

#### "비위에 맞는 신앙"

"An Exposi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산상보훈 주석)의 저자 핑크 박사는 그 책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과 같이 교회에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기만당하고 있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신앙 정도가 확실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들의 심령상태를 그대로 말해 주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비위에 맞도록 안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P.377) 또 히틀러 나치스당에 의해서 제 2차 대전 중 독일이 패전하기 직전에 순교한 Dietrich Bonhoeffer목사는 그의 저서 "제자로서의 책임과 희생"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값싼 은혜라는 것은 회개가 요구되지 않는 용서, 교회 훈련이 없이 베풀어지는 세례, 신앙고백이 없는 성찬, 구체적인 진실한 참회가 없는 면죄의 설교이다. 즉 값싼 은혜는 훈련 없는, 십자가 없는, 살아계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우리 모두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하겠다.

### 37) 감사절 전 세례식과 성찬식

1974년 11월 17일(감사절을 앞둔) 주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었다.

### 38) 감사절예배

1974년 11월 24일 주일에는 감사절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란 제목의 감사절 설교와 특별찬양 등이 있었다. 예배 후에는 감사절 식사와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년회 여전도회가 준비한 친목 순서들이 있어 새로이 참석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역에서의 고독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39)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한 임시공동의회

1974년 12월 8일 주일예배 후에는 교회 장소 이전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있었다. 토의 내용은 예배장소 이전 건이었다. 토의가 있는 후 장소를 필라델피아 서부에 위치한 Eastern Baptist Seminary Chapel에 이전키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보았다. 주소는 City Line and Lancaster Avenue, Philadelphia 였다. 옮기게 된 중요한 이유는 교인들이 점차 광범위로 산재해 있어 교통상 불편을 느껴서였다. 1966년 말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모이던 곳을 떠나게 되어 다들 섭섭한 감도 없지 않았다.

#### 40) 연말을 앞두고

1974년 연말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목사님의 글이 주보에 실려 있었다.

##### "마지막까지"

제2차 대전 중인 1944년 5월 첫 주간에 일어난 일이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이름을 떨친 롬멜 독일군 장군은 연합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 서부 해안지대 방위책을 맡고 물샷틈없이 준비해놓고 긴장한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 연합군이 한치라도 이 해안지대 상륙에 성공한다면 이것은 독일군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6월이 되면서 이 해안지대의 기후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6월 6일인 자기 부인의 생일을 맞기 위해서 5일 베를린으로 떠났다. 그는 그 이튿날인 6일에 연합군이 상륙 작전을 개시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잃지 않고 깨어 있어 기다렸기 때문에 혼인 잔치에 참석하는 기쁨을 가졌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시작도 함께 하고 수고도 함께 했지만 마지막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소망의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마지막까지 참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남은 이 해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욱 더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 41) 새 예배장소에 이전

1974년 12월 15일 주일부터 City Line and Lancaster Avenue에 위치한 Eastern Baptist Seminary의 Chapel로 옮겨 예배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 사무실은 계속 기념 코리아센터를 쓰게 되었다. 이날 교회 주보에는 오기항목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

려 있었다.

"새 장소로 옮기며"

온 교우들이 여러 달 동안 기도해오던 새 예배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와 학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일은 우리 교회 공동의회에서 잘 의논한 후 만장일치로 결정한 일 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이라 오시기에 낯선 길이어서 다소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온 교우들이 협력하고 노력 하는 가운데 모든 불편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거 8년 동안 을 예배 장소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던 미국인 제일장로교회와 장커목사님께 감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 귀한 장소를 감사한 마음으로 책임있게 깨끗 이 사용함으로 이 학교에는 물론이요 여러 미국 신앙의 형제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 기를 바랍니다.

## 42) 성탄절예배

1974년 12월 22일 주일에는 새 예배장소에서 오전 11시에 성탄절 축하예배를 가졌 다. 오기항목사의 "천사의 메시지"란 성탄절 설교와 성가대의 특별 찬양, 조영창군의 "거룩한 성" 첼로 독주, 서동혜, 손민자, 김혜경교우의 3중주, 최수혜교우의 "오-거룩 한 밤" 소프라노 독창, 손민자, 윤영숙 교우의 첼로 2중주 등 다채로운 순서의 축하 예배였다. 축하예배 후 주일학교 학생들의 축하순서가 있는 후 기념센터에서 축하 식 사가 있었다.

이날 후보에는 오기항목사의 성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교우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넘 치시기를 빕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제자 요한은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그는 곧 하나님이시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창조된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 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 된 분이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시 며 생명과 빛의 근원이시오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 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맛을 크리스마스는 이 주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키 위하여 오시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빌2장 7,8절) 자기 땅에 오시고 자기 백성에게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과 모든 찬양으로 그에게 드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 43)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예배

1974년 12월 24일 (성탄절) 화요일 밤 8시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예배가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촛불예배가 끝난 후에 가진 축하 친목순서 중에는 선물교환, 어린이들을 위한 산타 선물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44) 이 해의 마지막 주일예배

1974년 12월 29일 주일예배는 이 해 마지막 주일예배였다. 오기항목사의 "청산할 때가 있다"란 이 해 마지막 주일예배 설교가 있었다. 이날 주보에는 오기항목사의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란 제목의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 "주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오늘은 금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이 큼니다. 지난해를 되돌아 볼 때 약한 우리들이었지만 온 교우들이 여러가지 형편에서도 다 합심해서 교회에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니라"(고전 15장 58절)

### 45) 1974년도 회계보고

회계보고 (1974년 1월 1일~12월 31일)

수입 - 주정현금..... \$5,332.17

일반헌금.....	1,057.85
주일학교.....	2,376.00
특별헌금.....	183.09
부활절헌금.....	921.00
감사절헌금.....	1,929.00
성탄절헌금.....	1,133.00
기타.....	21.86

-----

합계 - \$12,952.97

전년도 이월금..... \$3,230.96

총합계 - \$16,183.93

-----

지출 - 교회사용비.....	\$575.00
청소비.....	315.00
문서우송비.....	449.77
전화비.....	225.89
찬양대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	
목사님사례.....	6,600.00
목사님 자선 전도비.....	924.00
목사님 교통비.....	
음악부 및 성가대.....	423.45
청년회 보조금.....	200.00
봉사부.....	437.65
전도부.....	20.00
다과비.....	354.00

주일학교 보조비.....	330.88
영아부.....	
초청강사비.....	20.00.
경조비.....	82.55
성탄절 행사비.....	25234
예비비 및 기타.....	767.17
-----	
지출합계 - \$12,975.70	
현재은행잔고.....	\$4,208. 23
총합계.....	\$16,183.93
건축현금 12/30/74.....	\$3,385.91

#### 46) 재적 교인 수

1974년 12월 현재 재적 교인 수는 장년 136명, 어린이 53명 합 18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재적 교인 수 외의 참석자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47) 송구영신예배

1974년 12월 31일(화) 밤 11시 30분에는 송구영신예배가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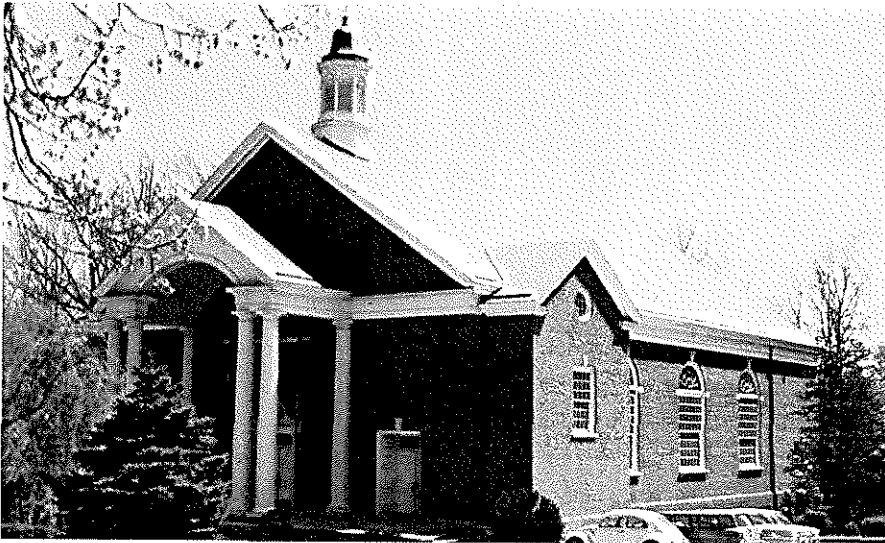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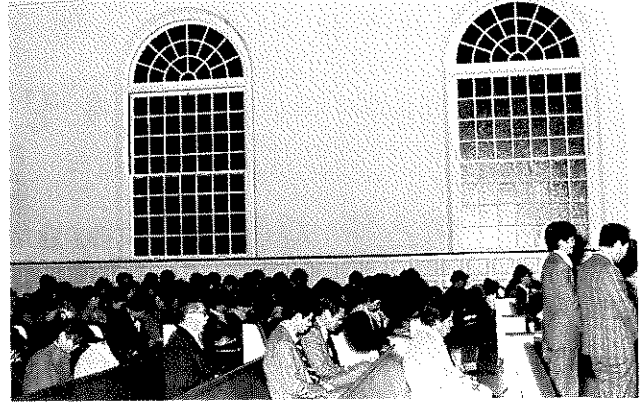
## 제 4 장

### 이스트튼 채플(Eastern Chapel)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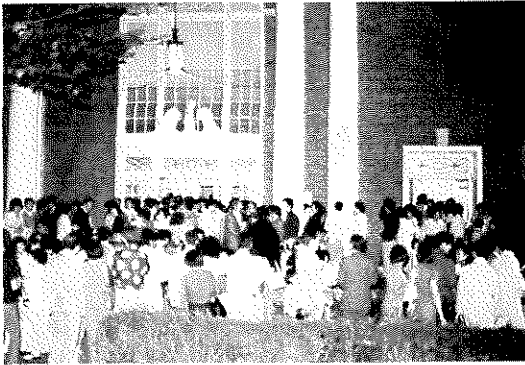
(1975년~1979년)



Eastern Baptist Seminary Chapel  
City Line & Lancaster Ave. Phila., PA.



← ↑ 새 예배장소에서 주일예배



주일예배가 끝나고

— 1975년 —

### 1) 1975년도 예산

1975년도 예산은 \$21,203.23 이었다.

## 2) 장로 장립예배

1975년 4월 20일 주일에는 장로 장립예배가 있었다. 이 예배의 설교자는 Eastern신학교와 대학의 총장 와이즈박사였고 기도는 프린스턴 한인 교회 장우익목사였다. 장로에 임명된 분은 전상완집사, 이진홍집사, 박형균 집사였다. 세분의 경력은 다음과 같았다.

전상완집사 - 서울대 석사학위, Faith 신학교졸, 현재 박사학위송부

이진홍집사 - 서울 의대졸, 현재 교환의사

박형균집사 - 카톨릭 의대 졸, 현재 교환 의사

## 3) 선교 사역

청년회에 몇 해 전부터 돕고 있는 한국 전남 추월산 개척교회를 이 해에도 계속 돕고 있었다.



한국 전남 추월산 교회  
본 교회 청년회에서 돕고있는 개척교회

- 1976년 -

### 1) 교회 제직과 재직 교인 수

1976년도 교회 기록에 의하면 당회원 6명, 남녀 집사 37명, 권사 4명, 재직 교인 수 310명이었다.



부흥집회



강사 신현군 목사

## 2) 장학금

1976년 1월 11일 주보에 의하면 \$500을 Eastern 신학교에 전했다고 기록되어있었다.

## 3) 교회용 대형 스쿨버스 구입

1975년 2월 4일에는 교인들의 교통 특히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교통편을 위해서 \$13,865.00에 구입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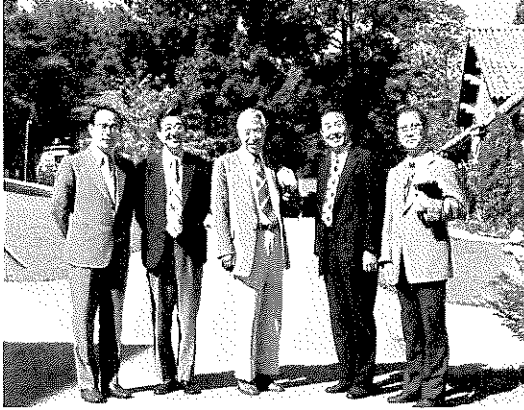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회 school bus →

## 4) 미 독립 200주년 필라델피아 한인 복음화 대회

1976년 7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미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필라델피아 한인 복음화 대회가 우리 교회 주도하에 시 서부에 위치한 이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처음 있는 가장 큰 집회였다. 일반 교인집회, 청소년집회, 분과별 세미나와 좌담회, 그리고 특별 기도회 등으로 큰 은혜의 집회였다. 이 집회를 위해서 특별히 초청된 강사 다섯 분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이권찬목사, 장운상목사, 오기형교수, 광선희목사, 일본에서 이성덕목사



76' 복음화 대회 초청 강사 (오기형교수, 김성덕목사, 이권찬목사, 정운상, 광선희목사)



복음화 대회중 청소년 연합 대집회



미독립 200주년  
복음화 대회의 한 광경  
(1976년 7월 1일~11일)

## 5) 성경부흥회

1976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성경 부흥회가 개최되었다.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었다. 초청된 한국에서 오신 강사 세분은 다음과 같다.

권동현목사, 김동일목사, 김상규목사

## 6) 장로 장립예배

1976년 10월 10일 주일에는 장로 장립예배가 있었다. 다음 두 분이 장로로 임명되었다.

오동호집사, 진원진집사

## 7) 1976년도 재정보고

1976년도 재정보고는 다음과 같다.

총수입: \$44,383.37, 총지출: \$38,944.30, 잔고: 5,339.07

## - 1977년 -

### 1) 김형태목사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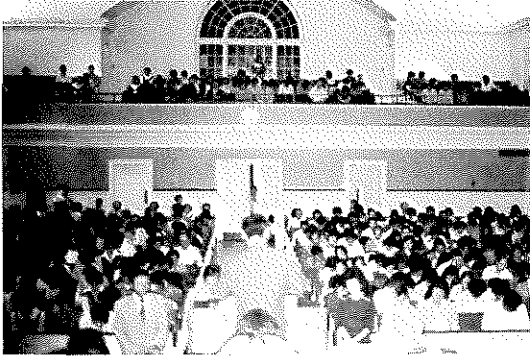
1977년 6월 26일 주일에는 한국에서 오신 연동교회 김형태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 2) 1977년도 교세

## - 1978년 -

### 1) 이기혁목사 설교

1978년 7월 23일 주일에는 한국 인천제일교회 이기혁목사님의 "거룩한 씨가 이땅의 그루터기"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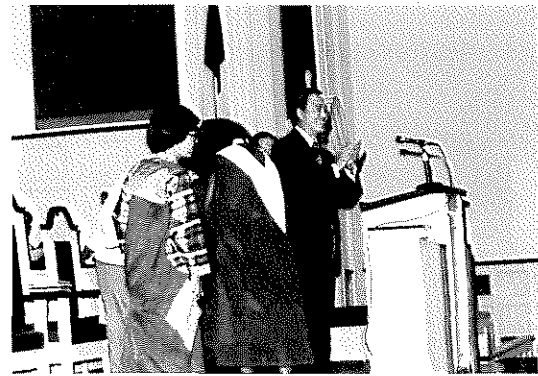
부흥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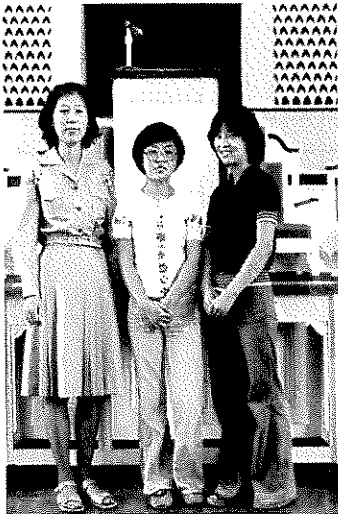
부흥집회



부흥집회 (강사: 박조준 목사)



성경암송대회 (서신 분이 박조준 목사)



성경암송대회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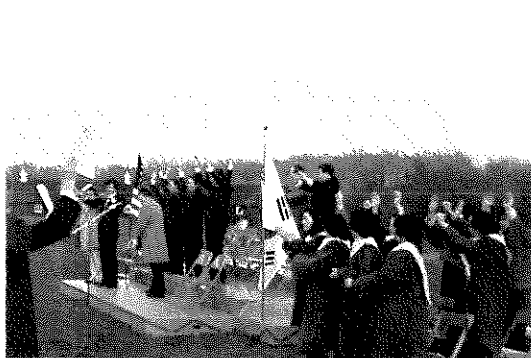


부활절 새벽연합집회 (Philadelphia Arts Museum 앞)





서재필 기념비 제막식  
1975년 11월 22일(토) 필라 한인교회 성가대  
Real Tree Park, Media, PA



서재필 기념비 제막식(본교회 성가대)  
1975년 11월 22일(토)



1978. Pocono 하령회 광경



휴식시간. 임덕상박사 사택 swimming pool



1975. Pocono 하령회

## - 1979년 -

### 1) 재적 교인 수

1979년이 되면서 재적 교인 수는 이해 9월 기록에 의하면 171명으로 유아 47명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아직 입교하지 않은 예배 참석자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 2) 자체 교회건물 구입

1979년 11월 15일 차체 교회건물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이 교회당 건물은 펜 캠퍼스에서 운전으로 약 10분 떨어진 시 서부에 위치한 지은지 30년 가량 되는 교회 건물로 약 1에이커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2층 건물이다. 2층에는 약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과 네 개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하층에는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합실 그리고 두개의 화장실, 두개의 회의실 등이 설비되어 있어 편리한 장소이다. 구매 가격은 모든 비용을 합하면 20만 불을 넘었다. 그 당시의 우리의 재정적 형편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온 교우들의 희생적 협력으로 구입할 수 있었음을 감사한다.



## 제 5 장

### 자체 교회당 기간

(1980년 1월~2003년 현재)

제 5 기간 - 1980년부터 200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2년간은 자체의 건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인 나로서는 지금까지 원해왔지만 분주한 환경 속에서 이루지 못했던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말씀을 중심으로 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민 인구가 증가함을 따라 교회도 충분히 많이 서가고 교회 사역자 수도 충분한 형편이어서 내가 늘 바라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참된 인재를 바라는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겸손과 사랑과 성실로 봉사할 인재가 오늘날처럼 요구되는 때는 더 없는 듯 느껴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새로 장만된 자체교회

### 1) 교회 헌당 예배

1980년 1월 20일주일 오후 5시에는 헌당 예배가 있었다. 그 당시로는 자체 건물을 소유하는 일이란 희귀한 일이어서 많은 동포들의 참석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롭게 끝났다.



1980년 1월 20일 주일, 헌당 예배



1980년 1월 20일 주일, 헌당 예배



1980년 1월 20일 주일, 헌당 예배



싱가대원 1980년 1월 20일 주일  
교회 헌당 예배



예배후 친목실의 광경



예배후 친목실의 광경

## 2) 장로 장립예배

1979년 1월 20일 주일 오후 5시에는 현당 예배와 함께 오상백집사의 장로 장립식도 겸하여 있었다. 오상백 장로님은 연세 의대 출신으로 신앙이 돈독한 교우였다. 예배 후에는 현당 축하와 함께 장로 장립 축하도 겸해서 있었다.



오상백 장로 장립식 (1980, 1, 20 주일) →

## 3) 성령부흥회

1980년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한국에서 초청받아 오신 윤석주목사 인도 하에 성령 부흥회가 있었다.

## 4) 대 필라델피아 지역 교회 협의회 창설

1980년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8시에는 대 필라델피아 지역 교회 협의회가 우리 교회당에 개최되었다. 당시 이 지역의 한인 교회 수는 약 30교회였다. 초대 교회협의회 회장에는 오기항목사가 피선되었다.

## - 1981년 -

### 1) 1981년도 예산

1981년 새해 공동의회에서는 새 해 예산을 \$67,036.54로 책정했다.

## - 1982년 -

### 1) 새 학생 환영회

1982년 9월 17일에는 우리 교회 후원 오인호 기념센터 주최 이 지역에 온 우리 유학생 환영회가 있었다.

### 2) 코리아센터 새 건물 봉헌예배

1982년 10월 22일 오후 7시에 새로 장만된 건물 봉헌예배가 있었다.



오인호 기념 코리아 센터

### 3) 오철호집사 안수

1982년 11월 22일 오후 7시에는 오철호집사 안수집사 예배가 있었다. 오철호 집사는 여러 해 동안 청년회 회장으로 어린이 주일학교 선생, 책임자, 서리집사 등으로 수고해 왔다. 학력으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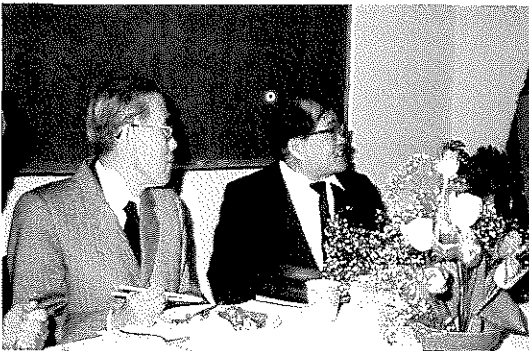
### 4) "음악과 신앙 간증의 밤" 행사

1982년 12월 19일 밤 8시에는 성가대 주최의 "음악과 신앙 간증의 밤" 행사가 있었다. 특별 순서에는 "빛의 소리 선교단"의 이인수씨 부부의 음악과 간증이 있어 더욱 은혜로웠다.

- 1983년 -

### 1) 지역 목사 간담회

1983년 4월 18일(월) 정오부터 지역 목사 간담회가 우리 교회 주최로 오인호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한국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강사로 개최되었다. 친목 점심 식사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수고하셨다.



목사 친목 모임, 한경직 목사(주빈)  
(기념센터에서)



한경직목사 초청 친목회 (1983년 5월)



## 2) 여전도회 주최 특별 좌담회

1983년 7월 2일 토요일 오후 8시에는 여전도회 주최 특별 좌담회가 코리아센터에서 있었다. 강사로 초대된 분은 김현자 국회의원이었고 주제는 "한국 여성문제"였다. 김현자 국회의원은 한국 YWCA 부회장, 세계YWCA 부회장, 세계 YWCA 실행위원, 한국 영락교회 권사이기도 하다.



여전도회 좌담회 (기념관에서)

## 3) 권연금권사 추도예배

1983년 9월 3일 오후 8시에 권연금권사님의 추도예배가 있었다. 권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 교회 조원철집사의 어머니으로 몇 일 전인 8월 31일 귀국 도중 비행기 추락으로 세상을 뜨셨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교회 집회에 참석하셔서 돈독한 신앙으로 은혜를 나누셨다.

## 4) 제3회 교육 간담회

1983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8시에는 "재미교포 제 2세 교육문제"란 주제 하의 교육 간담회가 코리아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5) 조원철집사 안수집사에 선출

1983년 10월 30일에 있는 공동의회에서는 조원철 서리집사를 안수집사로 선출했다.

조집사님은 연세대 출신으로 현재 트랙셀 대학에서 박사학위 코스를 취하고 있으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있었다.

## 6) 교회 울타리공사 시작

1983년 12월 3일 토요일부터 교회 울타리 공사가 시작되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계속하기로 했다.

## 7) 1983년도 재정 보고

1983년도 재정보고는 다음과 같다.

총수입: \$58,251.91, 총지출: \$57,276.20, 잔고: \$975.71(Saving Bank)

## - 1984년 -

### 1) 새해 예산

1984년도 예산은 \$50,740.76 이었다.

### 2) 여전도회 총회

1984년 1월 15일 주일에는 새해 정기총회가 있었다. 이 해에 수고할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회장: 채은영, 부회장: 김은숙, 총무: 장영자, 서기: 박은영, 회계: 박종숙

봉사: 정재순, 행사: 김경저

### 3) 남전도회 창립총회

1984년 2월 12일에 있는 남전도회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분들이 임원으로 선정되었다.

회장: 정기성, 부회장: 오동호, 총무: 오성호  
서기: 김성호, 부서기: 배정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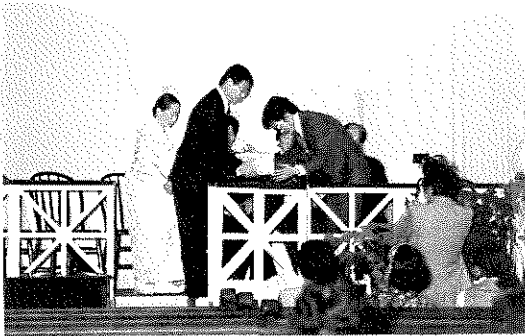
### 4) 학생 전도부 하령회

1984년 8월 14일~18일까지 5일간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학생부 주최 학생 신앙 하령회가 개최되었다.

### 5) 귀국

최근 교우 중 다음 분들이 박사학위를 끝내고 가정을 대동 귀국했다.

조원철집사(드랙셀대학), 김상훈교우(뎀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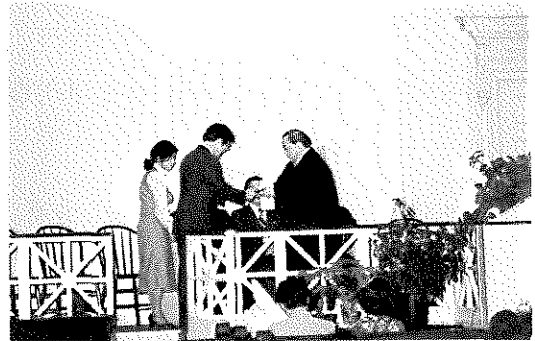
오동호 장로 송별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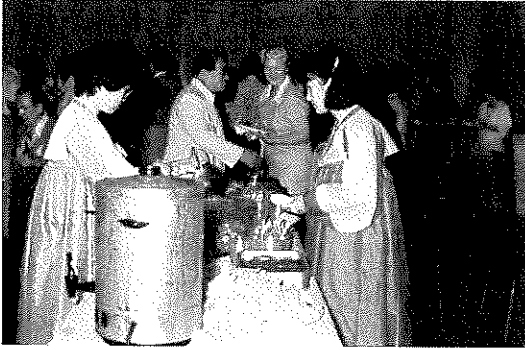
신앙 좌담회 (청년회)



이진홍 장로 송별



윤원길 집사 부부 송별 예배



예배 후 친목



성탄축하(주일 학생)

## - 1985년 -

### 1) 울타리공사 완료와 감사예배

1985년 1월 27일 주일에는 울타리공사 완료 감사예배가 있었다. 이 공사는 전 교인이 매 토요일 자원봉사자들에 의하여 1983년 12월 3일(토)에 시작한 후 1985년 1월 26일(토)까지 약 2년에 걸쳐 완공된 공사였다. 온 교인들이 수고를 잊고 감사하는 마음에 넘쳤다.

### 2) 선교예배

1985년 2월 2일 주일에는 오기형장로를 맞아 선교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의 설교는 오기형장로께서 "선교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셨다.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3)'85 전도 집회

1985년 8월 30일(금)~9월 1일(주일) 3일간은 '85 전도집회가 있었다. 이 집회는 교회와 기념 코리아센터 연합 집회였다. 금요일과 토요일 밤 그리고 주일의 낮과 밤은 교회에서 가지고 금요일, 토요일 낮은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가졌다.

강사에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인 이상현박사였고 교육선교 부문에서는 오기형장로,



국제 정치에는 오기송박사, 김현자 국회의원이 초청되었다. 다음은 이 집회의 주제와 각 강사들의 발표 제목이다.

집회주제 - "21세기를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상현 박사 - "주변성 밑에 있는 소수민족의 장래"

오기송 박사 - "남북통일의 새 개념과 선교"

오기형 교수 - "21세기를 향하는 한국 이민의 교육개혁의 사명"

김현자 국회의원 - "한국 여성의 지위와 장래"

오기항 목사 - "성경적 축복개념의 새로운 고찰"

본 교회 주최 '85전도집회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와 장래" 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는 김현자 한국 국회의원

#### 4) 학생선교회 선교 집회

1965년 11월 2일 토요일에는 우리교회 학생선교회 선교 모임의 주제는 "선교에 있어서의 지도력과 성과"였다. 주강사는 본교회 오기항 목사였다.

### - 1986년 -

#### 1) 이병섭목사 설교

1986년 1월 26일 주일예배에는 이병섭목사님의 "인간화"라는 제목하의 설교가 있었다. 이 목사님은 이화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21년간 계셨다.

#### 2) 여전도회 새 임원

1986년 2월 2일에 있는 새해 총회에서는 다음 분들을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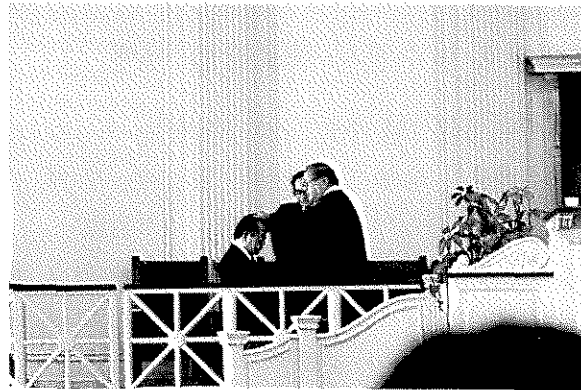
회장 - 박종숙, 부회장 - 김은숙, 총무 - 채은영, 서기 - 강은진,  
회계 - 장영숙, 봉사 - 최광순, 행사부 - 방행자

### 3) 오기형 교육선교사 임직 예비

1986년 3월 16일 주일에는 오기형 교육선교사 임직 예비가 있었다. 오기형 선교사의 "선교사에 임직하며" 라는 제목의 설교와 임직 안수식이 있었다. 오선교사는 본교회 제직회와 당회에서 제출한 본교회 선교사 추천을 금년 3월 12일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오기형 선교사는 동경제국대학교, 서울대학교, Faith 신학교, 컬럼비아 대학 교육학 박사과정을 거쳐 연세대 학생처장, 교육대학원 원장, 교육연구소 소장, 인간교육학회 회장, 영락교회장로, 이밖에 저서로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 외 11권과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어있다.



오기형 교수



오기형 교육선교사 임직식 (1986년 5월 18일 주일)

### 4) 여름 특별집회

1986년 8월 22일~24일에는 여름 특별 수련회가 개최되었다. 초청된 강사는 다음과 같다.

신앙 간증에 강영우박사, 석경숙여사  
선교 보고에 오기형선교사  
재미 교포 문제점에 유의영박사

## 5) 간염예방주사

1986년 10월 12일에는 한혜원 의학박사팀이 초청되어 원하는 교우들에게 간염예방주사가 실시되었다. 수고하신 한박사 팀에 감사했다.

## - 1987년 -

### 1) 1987년도 예산

1987년도 예산은 \$50,240.00 이었다.

### 2) 오철호 안수집사 장로장립 예배

1987년 5월 2일 주일 오후 6시에는 오철호 안수집사의 장로 장립예배가 있었다. 이 예배 설교에는 이진호목사님이 초청되었다. 설교 제목은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이었다. 오철호집사는 청년회, 주일학교, 그리고 집사로 다년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 학력으로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었다.



오철호 장로 장로 안수식

### 3) 여름 특별집회

1987년 8월 15일(토)~16일(주일)에는 여름 특별집회가 개최되었다. 초청된 강사는 한국 아시아 신학대학교 총장 한철하박사였다.

### 4) 새로 온 유학생 환영회

1987년 9월 26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후원 기념 코리아센터 이 지역 대학교에 온

우리 유학생들을 환영하는 모임이 있었다. 지역 명소 안내,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한국음식 식사 등 유익한 모임이 되었다.

## 5) 추석친목회

1987년 10월 11일 주일에는 청년회 주최 추석 친목잔치가 예배 후에 있었다. 떠난 고향을 생각하며 우리나라 전통적인 순서들로 함께 즐길 수 있었다.

## - 1988년 -

### 1) 1988년도 예산

1988년도 예산은 \$50,840,76이었다.

### 2) 학생선교회 특별집회

1988년 6월 11일에는 학생선교회(KICF)의 캠퍼스 전도를 위한 특별 집회가 있었다.

### 3) 여름 성경학교

1988년 7월 21일(토)~8월 19일(금)까지 1개월간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다.

## - 1989 ~ 1990 -



## 1) 선교주일

1989년 1월 29일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켰다. 예배의 설교에는 오기형 선교사의 "하나님의 시련"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오기형 선교사의 선교 보고와 좌담회가 있었다.

## 2) 정재숙목사 설교

1989년 10월 1일 주일예배에는 "칭찬 받는 교회"란 제목의 정재숙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 3) 학생 선교회(KICF)

1989년과 1990년 2년 동안에 있었던 교회 신앙 활동 중 특기할 활동의 하나로는 우리 교회 학생 선교회 활동이었다. 두 해 동안에 가졌던 특별 학생선교집회, 학생 소그룹 성경기도모임, 교회미화봉사, 친목집회 등 많은 모임을 통해서 전도, 친목, 봉사 등의 열매를 맺었다. 이 활동이 이렇게 진행되는 데는 이 활동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채은영, 오선애, 김현매, 정희주, 정문호, 홍진희, 오승호, 그리고 오훈호 등의 젊은 교인들의 힘이 컸다.

## 4) 치과의료원과 법률센터 봉사

이 기간 동안의 또 다른 활동의 하나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념센터의 치과 봉사 사업과 아시아 법률센터 봉사사업이었다. 이 봉사 사업을 통해서 적지 않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따뜻한 손길이 닿은 줄 믿는다. 예를 들면 이 봉사 사업의 스토리는 1990년 3월 19일 필라델피아 인콰어에도 보도된 바 있다. 치과 담당 의사는 김현매 치과의사였으며 법률센터 담당자는 오데이빗 변호사로 두분 다 우리 교회 집사였다.

## 5) 오기형 선교사의 재외 교포 2세 교육을 위한 연구와 봉사

오기형 선교사는 1989년과 1990년 2년간에도 해외 교포 2세들의 교육 연구와 봉사차

미국에만 해도 5회 이상 여행했다. 많은 연구 논문도 발표했지만 한민족 역사, 한국 말 등 각종 교재도 출판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발전 도상에 있는 각 지역 순회 연구를 계속해왔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영재학교에서도 역사, 국어, 산수 기타 시청각교재들을 20여년간 사용해왔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교육개혁 문제의 연구를 끝내고 그 실천에 힘쓰고 있다고 듣고 있다.

## - 1991년 -

### 1) 1991년도 예산

1991년도 예산은 \$75,200.00 이었다.

### 2) 신년 예배

1991년 1월 6일 주일에는 신년축하 예배가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100배 60배 30배"란 제목의 신년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가 준비한 떡국을 주로 하는 신년 축하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 3) 학생선교회 활동

1991년 1월 13일 주일에는 학생선교회 새해 첫 모임이 있었다. 한 해에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다.

### 4) 어린이 여름학교와 캠프

1991년 6월 11일 화요일부터 한 달 동안 어린이 여름학교와 캠프가 시작되었다. 오덕호목사와 민경옥선생께서 특별히 수고하셨다.

## 5) 교회 미화와 수리

1991년 8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1개월간 주말마다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 페인팅, 교회당 벽수리 등 미화에 힘을 썼다.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한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다음 분들이 있었다. 오기항목사와 김자영사모, 오훈호집사와 채은영집사, 홍금수집사 내외, Jonathan Graystone, Mr Harvy, Frank Heler, 오 엠마, 정희주, 무스랏, 김현매, 정문호, 오 데이빗 등이었다.

## 6) Asian Leadership Conference

1991년 9월 13일(금)~14일(토)까지 2일간 본교회에서 Asian Leadership Conference 가 있었다.

## 7) 오기형 선교사의 설교와 선교 보고

1991년 9월 15일 주일예배의 설교는 오기형선교사가 맡아주셨다. 예배 후에는 선교 보고와 친교의 모임이 있었다.

## 7) 영재학교 학생 발표회

1991년 12월 21일(토)에는 영재학교 학생 발표회가 있었다. 학부형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영재학교 학생 발표회



영재(한국학교) 컴퓨터교실

## 8) 오기억장로 소천

1991년 12월 22일 주일 새벽 4시에 오기억장로님이 노환으로 세상을 뜨셨다. 오기억장로님은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으로 교회를 위해서 많이 힘쓰셨다. 미국에 오시기 전에는 서울 연동교회 시무 장로로 계셨다.

## — 1992년 —

### 1) 신년 예배

1992년 1월 5일 주일에는 신년 축하 예배가 있었다. "깨어있으라"란 제목의 신년 오기향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신년 축하 식사와 친목 순서가 있었다.

### 2) 부활절 예배

1992년 4월 19일 주일에는 예년과 같이 부활절 예배가 있었다. 오기향목사의 "부활의 첫 열매"란 부활절 설교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가 준비한 부활절 식사와 친목 순서가 있었다. 부활절 헌금은 \$2,605.00이었다.

### 3) 영재 여름학교

1992년 7월 14일(토)~8월 15일(토)까지 1개월간 영재여름학교가 있었다. 예년과 같이 교과 내용은 성경, 한국말, 산수, 컴퓨터, 영어, 음악 그리고 운동 등이었다.

영재(한국)학교 학생



### 4) 흥기표목사 설교

1992년 8월 2일 주일에는 흥기표목사의 "하나님의 질문"이란 설교가 있었다. 흥기표목사는 일본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로 일본 동경 내리 국제교회 목사이다.

### 5) 교회 가을 대심방

1992년 10월중에는 예년과 같이 가을 대심방이 있었다.

## - 1993년 -

### 1) 신년 예배

1993년 1월 3일 주일에는 신년 예배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드문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어 있어서 모일 수 없게 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몇 사람이 목사 가정에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정식 신년 예배는 그 다음 주일인 1월 10일 주일에 가졌다. 오기항목사의 "협조의 미"라는 제목의 신년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예년과 같이 여전도회가 준비한 떡국을 나누며 신년 인사 교환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 2) 순조롭게 진행되는 교회 순서들

새해를 맞으면서 교회는 온 교우들의 봉사와 협조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교회당회, 제직회, 성가대,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반, 수요일예배, 주일새벽 기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선교회(KICF) 등 하나님의 도우심과 교우들의 열성의 결과였다고 믿는다.

## 3) 안수집사 선출

1993년 5월 2일 주일에는 안수집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다. 교회 헌장에 따라 오희호집사가 참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다. 선출된 오희호집사는 교회 주일학교선생으로, 청년회 회원으로, 서리집사로,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각종 교회 봉사에 힘써온 집사였다.

## 4) 영재 여름학교

1993년 7월 13일(화)부터 5주간 영재 여름학교가 있었다.

## 5) 특별 집회

1993년 7월 18일 주일에는 특별 선교집회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오전 11시 - 예배설교: "사랑과 용서" 오기형선교사

오후 1시 30분 - 1. 교육좌담회 "한국교육 현황" 오기형선교사

2. "구 소련 지역 여행보고" 오기송박사



오인호 기념센터 창립 40주년 기념예배



기념예배에서 기도하는 김원희 목사

## 6) 교회 미화

1993년 9월 한달 동안 매 주말마다 교회 미화봉사가 계속 있었다. 이 봉사에 수고하신 분들 중에는 오철호장로, 박종숙집사, 김현매집사, 오훈호집사, 채은영집사, 오강호집사, 강은진집사, 이창학씨 내외 등이 있었다.

## 7) Asian Leadership Conference

1993년 10월 1일(금)~2일(토)에는 우리교회 오승호집사가 주장하는 Asian Leadership Conference 가 있었다.

# - 1994 -

### 1) 1994년도 예산

1994년 1월 2일 주일예배 후에 있었던 공동의회에서 채택된 1994년도 예산은 \$78,100.00 이었다.

### 2) 여전도회 1994년도 임원

1994년 1월 16일 주일예배 후에 있었던 총회에서는 다음 분들이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회장 - 박종숙, 서기 - 채은영, 회계 - 김수경

전도부장 - 강은진, 봉사부장 - 추미자, 행사부장 - 윤혜선

### 3) 찬송가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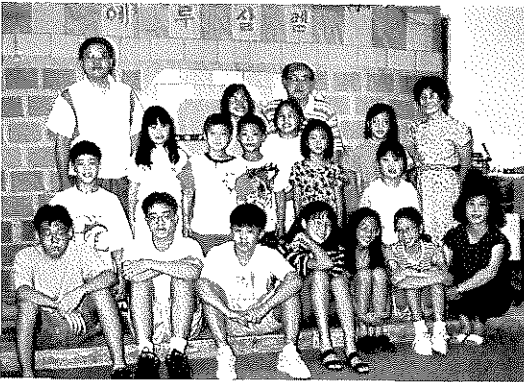
1994년 5월 8일 주일예배 후에는 본교회 성가대 주최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다.

#### 4) 춘기 야외예배

1994년 6월 5일에는 교회 야외예배가 콜 크릭 파크에서 있었다. 오기항목사의 "가장 먼저 구할 것"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예배 후에는 본교회 청년회에서 준비한 친목 순서들이 있었다.

#### 5) 영재학교 여름 캠프

1994년 7월 27일~30일 3일간 영재 여름학교 캠프가 있었다.



어린이 여름학교  
오덕호 목사 부부와 함께 (1995년 8월)



휴식시간

#### 6) 교회 미화봉사

1994년 9월 5일 월요일 노동절에는 교회 미화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이 있었다. 많은 교인들이 와서 봉사했다.

#### 7) 여전도회 헌신 예배

1994년 12월 4일 주일 저녁 5시에는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있었다. 설교는 강사로 초청된 변우연목사께서 하셨다. 예배 후에는 저녁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 - 1995년 -

### 1) 이창학씨 가정 귀국

1995년 1월 22일 주일예배 후에는 펜대학에서 학위를 끝내고 귀국하시는 이창학씨 가정 귀국 송별회가 있었다. 두 분께서는 교회 봉사에 꾸준히 힘쓰셨다.

### 2) 여전도회 선교 예배

1995년 2월 19일 주일 오후 7시에는 본교회 여전도회 주최 선교예배가 있었다. 중국 심양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이장렬선교사(의사)와 함께 사역하시는 김수자 사모 두분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이장렬선교사의 "선교사이신 하나님"이란 설교제목의 설교와 김수자선교사의 "간증과 찬양"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현금된 \$848.75는 두 분의 선교사역에 바쳐졌다.

### 3) 오덕호목사 설교

1995년 8월 6일 주일에는 오덕호목사의 "고난의 신앙생활"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 4) 오강호집사 가정 귀국

1995년 8월 20일 주일예배 후에는 오강호집사 가정 귀국 송별모임이 있었다. 드렉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게 되어 귀국하게 되었다. 두 분께서는 교회 봉사를 위해서 크게 힘쓰셨다.

### 5) 추기 대심방

1995년 10월중에는 교회 심방 달이었다. 온 교우들의 협조로 좋은 결과를 얻고 끝났다.

## 6) 분주한 교회 연말행사

11월이 되면서 감사절행사, 성탄절행사, 연말 연초행사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사들로 교회는 분주히 지내고 있었다. 이 모든 행사들은 온 교우들의 협조와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감사한다.

## - 1996년 -

### 1) 본교회 선교사를 위한 기도

새해의 기도제목 중에 본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름을 기재하기 시작했다. 오기형선교사, 이장렬선교사, 김수자선교사, 홍성우목사 등이다.

### 2) 오덕호목사 귀국

1996년 2월 25일 주일예배 후 박사학위를 끝내고 귀국하는 오덕호목사 귀국송별회가 있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설교, 어린이 여름학교, 성경공부모임 등을 위해서 부인 되시는 민경옥선생과 함께 희생적으로 봉사했다. 한국에 돌아가서는 계속 광주 장로 교 신학대학에서 교수하게된다.

### 3) 부활절 예배

1996년 4월 7일 주일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었다. "영원한 생명"이란 제목 하의 오기항 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부활절식사와 찬목 순서들이 있었다. 부활절 헌금은 \$2,738.00 이었다.

### 4) 가정달 행사

1996년 5월은 가정달로 지키는 달이었다. 이달의 설교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설교로 다음과 같았다.

5월 5일 어린이주일 - "한 소년이 바친 도시락의 결과" 요한 6장 1~1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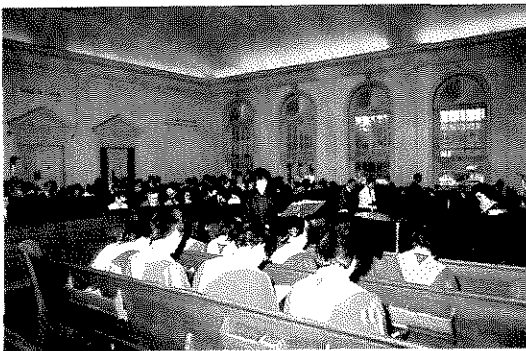
5월 12일 어머니주일 - "어머니의 믿음과 감화" 딤후 1장 5절

5월 19일 주일 - "반석 위에 선 가정" 마 7장 24~2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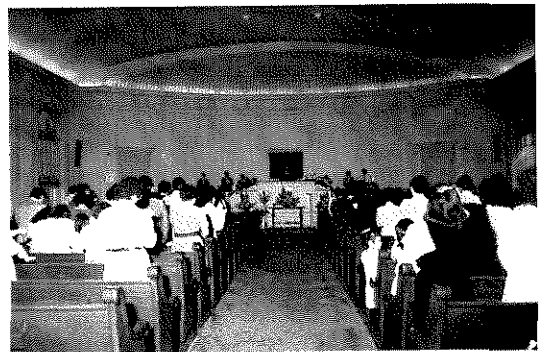
5월 16일 주일 - "축복 받는 가정" 창 18장 13~19절

## 5) 온 가정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교회

미국과 같은 다민족 다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민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세대차이의 문제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있으면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는 여러 해 전부터 교회 주일 대 예배 시에는 온 가정들이 자녀들과 다 함께 예배드리도록 힘써왔다. 그리고 세대차이의 원인의 하나가 되는 언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설교자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되 통역 없이 직접 설교해왔다. 그것은 설교자의 인격과 정신을 함께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함으로 한 제목을 한 가정이 다 함께 받아들임으로 하나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점차 자연스럽게 되었다. 각종 민족이 얹혀 사는 환경 속에서도 Generation gap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물론 숫자가 크면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 교회는 숫자보다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대로 믿음의 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님은 대설교가 대전도자였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교인 수는 열둘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많은 무리에게 설교는 했지만 Inner Circle은 작은 숫자였다고 보여진다.



1981년 예배 광경



예배 광경

## 6) 어린이 여름학교

1996년 6월 25일(화)~7월 26일(금) 한달 동안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었다.

## 7) 영재학교 개교

1996년 8월 7일(토)부터 영재학교 가을학기가 시작되었다.

## 8) 추기 야외예배와 추석잔치

1996년 9월 29일 주일에는 야외 예배가 콜크릭 파크에서 있었다. "거듭난 신앙"이란 오기향 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와 청년회가 준비한 추석잔치가 있었다.

## 9) 추기 대심방

1996년 10월은 대심방 달로 교인 가정 심방이 있었다.

## 10) 오기향목사 심장 우회수술

1996년 11월 20일(수) 에는 심장 우회수술을 받기 위해서 Presbyterian University Hospital 에 입원했다. 책임 의사는 Dr. Feinsmith 였다. 새벽 5시 30분부터 수술이 시작되어 6시간 후에 끝났다. 경과는 좋았다. 동 11월 25일(수) 오후 3시에 퇴원했다.

## 12) 성탄축하 예배

1996년 12월 22일 주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의 오기향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여전도회가 준비한 축하 식사와 친목 순서가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촛불예배는 12월 24일(화) 밤 8시부터 있었다. "세상의 빛이니"란 오기향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 13) 송구영신 예배

1996년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는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가 있었다. 서운함과 희망, 감사기도와 말씀으로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시간이었다.

## - 1997년 -

### 1) 중고등학생 캠프

1997년 3월 28일부터 29일 2일간 중고등학생 캠프가 개최되다.

### 2) 최영금권사 귀국

1997년 5월 4일 최영금권사께서 귀국하셨다.

### 3) 하기 성경캠프

1997년 7월 3일부터 이틀간 "그 안에 뿌리를 내리자"란 주제 아래 본교회 오기항목사를 강사로 전 교인 하기성경캠프가 기념센터에서 개최되다.

### 4) 기독교 교회사 특별강좌

1997년 8월 3일부터 다섯 번에 걸친 기독교 교회사 특별강좌가 본교회 오기항 목사를 강사로 개최되었다.

- 1998년 -

1) 오기형 선교사 설교와 교육강좌

1998년 5월 31일 주일에는 그의 일생을 교육 개선을 위해서 바쳤고 또 계속하고 있는 우리 교회 교육 선교사 오기형 선교사의 "그리스도의 산 증인(축매적 봉사)"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고 예배 후에는 "다음 세대를 이끌 이민 제 2세 교육"이란 주제 하의 교육좌담회가 있었다.

2) 고등, 대학생 성경캠프

1998년 6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놀라운 은혜"란 주제의 하기 중고등 성경캠프가 있었다.

- 1999년 -

1) 1999년 교회 예산

1999년도 교회 총 예산은 \$83,950.00이었다.

- 2000년 -

1) 교회 선교활동

교회가 현재 기도 또는 재정으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역은 다음과 같다.

오기형 교육선교사 - 사역 범위는 주로 한국, 중국연변, 그리고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

이요한 선교사(의사) 내외 - 사역범위는 중국 심양과 중국 기타 각지

Mr. Paul Poore - 사역 범위 필리핀, 기타 필요한 지역 순회

홍성우 목사 - 한국 충남 개척교회

Miss Victoria Shegai - 학원전도(중 아시아 킬크스탄)

## - 2001년 -

### 1) 신앙 부흥 주일

2001년 5월 13일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켰다. 예배에는 오기형 선교사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란 제목의 설교가 있는 후 교육 선교 좌담회가 있었다.

### 2) 교회 전교인 여름 신앙 부흥회

2001년 7월 15일 주일은 전교인 신앙부흥주일로 지켰다. 주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였다. 예배 후 계속된 순서들은 성경공부, 신앙좌담회, 신앙간증과 찬양 그리고 기도 시간이었다.

### 3) 감사절 학생 컨퍼런스

2001년 11월 15일에는 감사절 학생 신앙 컨퍼런스가 기념 코리아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였다.

## - 2002년 -

### 1) 오훈호집사 집사 안수식

2002년 3월 10일 주일에는 오훈호집사의 안수식이 있었다. 오훈호집사는 1993년 5월 2일에 있는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 투표로 안수집사 후보로 선출되었다.

### 2) 본교회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

2002년 3월 17일 주일예배 후에 있는 제직회에서는 오는 2004년 8월 17일에 있을 본교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할 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했다.

회 장 - 오기항목사

부회장 - 오철호장로

총무부 - 부장: 채은영집사, 위원: 오선애집사, 오수진

행사부 - 부장: 오철호장로, 위원: 김자영선생, 장영자집사, 오수만, 오수혜

홍보부 - 부장: 박종숙집사, 위원: 박을묘교우, 권광자교우

교회당 수리부 - 부장: 오훈호집사, 위원: 박을묘교우, 오승호집사, 오수미

### 3) 오기형 선교사 선교보고

2002년 31일~9월 5일 약 6일간의 중국 연변지역을 선교 순회한 선교 보고를 9월 15일 교회에 보내왔다.

### 4) 전교인 여름 신앙수련회

2002년 8월 18일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주제의 전교인 여름 신앙수련회가 기념 센터에서 개최되다.

### 5) 감사절 학생 신앙 컨퍼런스



2002년 11월 24일에는 감사절 학생 신앙 컨퍼런스가 기념센터에서 개최되다.

## 6) 2002년도 재정보고

2002년도 교회 재정보고는 다음과 같다.

총수입 - \$64,700.25

총지출 - \$57,699.25

잔액 - \$730.47

## - 2003년 -

### 1) 이요한 선교사의 설교와 선교보고

2003년 1월 19일 주일에는 "오직 예수"란 제목의 이요한 선교사의 설교와 슬라이드로 보는 현지 선교보고를 볼 수 있었다. 슬라이드 설명은 동역자인 이요한 선교사의 사모가 맡아주셨다.

### 2) 2003년도 교회 예산

2003년 2월 16일에 있는 신년도 교회 공동의회에서는 2003년도 예산을 \$88,500.00으로 책정했다.

### 3) 오훈호 안수집사 장로 안수식

2003년 7월 13일 주일예배 후에 있는 공동의회에서는 본교회 헌법에 따라 장로시취에 합격한 오훈호 안수집사의 장로 안수식을 오는 8월 17일 주일, 본교회 50주년 기념예배 시에 시행키로 결정되다.

#### 4) 오기송 원로장로, 오기형 교육선교사에게 표창하기로 의결

본교회 설립 50주년시 본교회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교회 발전에 기여한 바 큰 다음 두 분에게 표창장을 지정키로 본교회 당회의 추천과 2003년 7월 13일에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오기송 원로장로 - 본교회 최초의 장로로 1965년 3월 21일 안수 임명

오기형 교육선교사 -본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1986년 5월 18일 안수 임명

#### 5) 본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예배와 행사

2003년 8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본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가 개최되다. 본교회 오철호 장로의 사회와 오기송원로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순서의 설교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이란 설교 제목의 본교회 교육선교사 오기형선교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날 보내주소서"란 제목의 찬양, "더욱 사랑"이란 제목의 오수화 형제의 현악3중주, 오수혜양의 "기도" 특송 등이 특별 순서로 있었다. 또한 순서 중에는 본교회가 설정한 50주년 공로상 시상식과 오훈호 안수집사의 장로장립식도 있었다. 수사상자는 본교회 초대장로였던 오기송 장로와 본교회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된 오기형 선교사였다. 그리고 오기향 본교회 목사에게 증정하는 화환, 공로상 등의 증여순서도 있었다. 본교회 "50년 교회연혁"은 오철호장로가 소개했다.

예배 후에는 계속해서 50주년 기념 축하 식사와 친목순서가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미 독립 발상지 필라델피아의 첫 열매"(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50년 약사)가 분배되었다.

오기형 선교사의 설교 "소금과 빛이 되기를"의 내용과 그에 관계된 자료를 부록으로 이 책의 맨 뒤에 실었다.



필라한인장로교회가 창립 50주년 기념예배에서 오기형 선교사가 설교하고 있다. 오른쪽은 통역을 하고 있는 오종숙 집사.

## 창립 50주년 맞은 필라한인장로교회

필라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오기형)가 설립 50주년을 맞았다.

필라한인장로교회는 지난 17일 설립 50주년 기념예배를 갖고 교회 최초의 장로와 선교사인 오기송 장로와 이기형 선교사에

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오훈호 안수집사를 장로로 장립하는 등 다채로운 자축행사를 가졌다.

이날 예배에서 오기형 선교사는 '소금과 빛이 되기를'을 주제로 설교를 했다.

필라한인장로교회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필라한인장로교회 50년사'를 발간키로 하고 우선 이날 약사를 내놓았다. 이 약사에 따르면 필라한인장로교회는 지난 1953년 9월27일 창립됐다.

필라한인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예배에 대한 신문기사 '필라한인장로교회 50년사'의 발간에 대해서도 써여 있다.

#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50주년 기념 예배순서

2003년 8월 17일 주일 오전 11시

사회: 오철호장로

찬양대지휘: 김자영선생

반 주: 오선애집사

부반주: 오수만

주악(Prelude)

묵 도(Silent prayer)

교독문(Responsive reading) 8. 시편 23편

신앙고백(Apostle Creed)

찬 송(Hymn) -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성 경(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5장 13 - 16절

Matthew 5: 13 - 16

현악 3중주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 . 오수화형제

찬 송(Hymn) -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기 도(Prayer) . . . . . 오기송장로

찬 양(Choir) -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 . . . . 성 가 대

설 교(Sermon) - "소금과 빛이 되기를" . . . . . 오기형선교사

"To Be Salt and Light"

기 도(Prayer) . . . . . 설교자

공로상(Award presentation)

장로장립식(Elder ordination)

회환증정 . . . . . 주일학교어린이

찬 양 - "날 보내 주소서" . . . . . 성 가 대

바이올린 독주 - "더욱 사랑" . . . . . 오 수 향

교회 연혁(Brief History of Church) . . . . . 사 회 자

알리는 말씀(Announcement)

헌 금(Offering and Prayer) . . . . . 헌금위원

특 송 - "기도" . . . . . 오 수 혜

찬 송(Hymn)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축 도(Benediction) . . . . . 오기향목사

폐 회, 후주악(Closing the Service and Postlude)

안 내: 장영자집사

헌금위원: 박종숙집사, 자영자집사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 50주년 기념예배 순서

## 맺는 말씀

### 전교인 봉사로 자라는 교회

2003년 8월 17일로 설립 50주년을 맞게 되는 본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험로를 걸으면서도 튼튼한 반석 위에 선 교회로서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첫째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과 다음으로는 온 교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열매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교회 모든 면에서 모두들 그 받은바 은사에 따라 기쁨으로 봉사 협조하고 있다.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주일학교 책임자와 교사들, 매주 예배 후 친목식사, 교회건물과 주위 미화, 기타 각종 교회 봉사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의 따뜻한 손안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 부 록

50주년 기념예배에서 있었던  
오기형 선교사의 설교 내용과 관련된 자료



## 50주년 기념예배에서 있었던

### 오기형 선교사의 설교 내용과 관련된 자료

#### 설교 제목: 소금과 빛이 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 13~16)

제가 50주년 기념예배에서 설교한 것 자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배경을 요약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로서 교육 발전에 봉사할 준비를 정성껏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고 만 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들을 세계 각지에 파송하고 있으며 각기 정성껏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1986년에 저를 교육 발전 선교사로 임직하셨으므로 저에게는 남다른 직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1965년에 미국 연합 장로교 선교부 교육국 총무 윌슨 박사(Dr. F. T. Wilson)가 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18개국을 순방하면서 21세기의 교육 선교를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수개월씩 운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찾지 못하였는데 19번째 나라인 한국에서 1개월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오교수가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잘 살게 하는 21세기의 교육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서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분이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였지만 그 말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런 일을 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후 21년이 지난 1986년에 저는 이 교회의 교육 발전에 봉사하는 선교사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선교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착한 행실의 모범을 보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게 하고 소금과 같이 되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 선교사가 할 일이고 이런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가 선교사를 양성하도록 봉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50주년 기념 예배에서 부족한 제가 감사패를 받게 되고 설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교사들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게 하고 선교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선교사 양성의 책임을 절감합니다. 저는 1935년에 훈춘제일교회가 길선주 목사님을 부흥사로 모시고 장로님들이 밤에는 새로운 독립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모임에서 심부름을 하였습니다. 그 모임의 마지막 날 밤에 길선주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독립 운동의 방향을 요약하셨습니다.

"독립을 회복하는 길은 예수를 잘 믿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회복한 독립을 길이 길이 보전해야 하는데 그 길은 예수를 잘 믿고 널리 세계에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 치하에 있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들에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나이도 많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는 할 수 없는 일이다. .... 저 아이들의 세대가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 하나님께서 새 세대를 내세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은 "여기 계신 장로님들처럼 평신도로서 하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성경 통신과, 고등 성경 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에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말씀과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 나가면서 실천해야 할 행동의 원리로 번역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되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하는 직무나 사업을 수행할 때에 그 원리를 기준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연구에 주력하였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말한 배경에는 성경과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근거로 행동 원리로 삼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2003년 8월 17일에 제가 하는 선교사업의 보고와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50년사를 출판하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고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한 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를 선교사로 임명한 교회의 제2의 50년의 출발점에서 선교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New Millenium 선교에 착수하였습니다. 제가 착수한 사업은 한반도를 지구촌 선교와 봉사의 기지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 지구촌 봉사와 선교 기지 건설

저는 1955년까지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장기 계획으로 지구촌 봉사와 선교 기지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저는 1935년에 표현한 독립 운동의 방향을 금년 삼일절에 다음과 같이 새롭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지구촌 사람들이 평등하게 함께 살고 번영하는 평화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성도들의 과업입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고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모범을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 받은 성도들이 보이게 됨으로써 먼저 어두운 우리나라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와 같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65년부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실천 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을 성경, 사회, 수학, 영어 과목에서 시범하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지구촌에서 교육의 양적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각기 최선의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의 수요를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90년에 UN 산하 기구들이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대회를 열고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선포하였습니다. 동시에 빈부 격차 해소, 평화 문화 선언, 정보 사회 구축, 질병 해소, 지속적 발전, 노령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선언이나 UN 총회 결의나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정리하면 대체로 2015년을 목표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개년 계획으로 2035년을 전망하면서 2015년을 목표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는 것의 모범을 보이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14명의 섬기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포함해서 연간 평균 소

득 2만 불인 1만 6백명의 섬기는 공동체를 발전하게 합니다. 그 공동체가 2015년을 목표로 6만명의 섬기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포함해서 연간 평균 소득 3만불인 106만명의 섬기는 공동체를 발전하게 합니다. 그 공동체는 2035년까지 60만명의 섬기는 지도자들이 그들을 포함해서 연간 평균 소득 4.5만불인 1,060만 명의 섬기는 공동체를 발전하게 합니다. 이런 과업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1965년에 월슨 박사가 저에게 자기가 원하는 과업을 위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는 제가 이런 과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었고 위탁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50주년 기념 예배의 설교에서 지금과 같이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라고 믿고 과업에 착수하였으므로 여기서 2007년 2월까지 진행시키는 일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교육 선교에 착수한 배경: 학교를 설립·운영하지 않는 교육 선교**

저는 1965년에 미국 연합 장로교 선교부 교육국으로부터 21세기를 전망하는 교육 선교 발전 과제의 위탁을 받았습니다. 교육국 총무인 월슨 박사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 선교 발전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1939년부터 인간교육학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여서 장기·종합 계획으로 교육 구조개선의 연구·개발·발명·시범·검증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부터 환경 추모기금으로 발명·저작을 중심으로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탁하는 과업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어서 그의 위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하면서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니 그가 위탁하는 과제를 받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을 받으면 진행 과정에 회계 보고를 해야 하고 발명·저작을 포함한 것의 결과까지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때에는 제가 발명·저작을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제가 발명·저작한 것 중에서 일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저작권과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는 법이 제정·시행되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작권과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받는 것의 범위에서 제가 저작·발명한 것으로 교육 선교에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를 설립·운영하지 않는 교육 선교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고, 실천 체제의 일부를 시범·검증하고, 지적 자산까지

축적하였으므로 과업에 착수합니다.

## 새로운 교육 선교의 필요성

첫째로 질 좋은 교육 평등화를 통해서 선교하는 길을 열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학교들 중에는 폐교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북한을 포함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육 선교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외의 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는 교육 선교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민 치하에 있던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학교를 국·공립학교로 운영하여 선교학교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UN 회원국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대세이므로 교육 선교는 제한을 받으나 국민의 신앙생활의 자유는 인정합니다. 이런 역사적·국제적 변화와 발전의 흐름 속에서 질 좋은 교육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하여 교회로 나오게 하는 길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선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기독교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교육과 예배시간 외의 교과 교육은 다른 학교들과 기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 교육에서 일류 또는 명문 학교의 진학률을 높이거나 취업 경쟁력을 올리는 일에 주력하여 일류 학교가 되도록 주력하고 있는 것도 대세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발명은 현경 추모기금으로 진행시키고 1965년까지 제가 발명한 것을 근거로 시범·검증하기로 하고 기독교학교 교장들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5개 고등학교의 성경과 교육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면서 향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을 저는 시범·검증이라고 합니다. 그 합의한 내용을 총무에게 알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경 교육 분야의 교수들이 시범을 지원할 자료의 원고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는 인쇄 자료를 기술자들이 작성하게 하고 당시에 EDP 모형이라고 한 수업 모형으로 교원 연수를 하였습니다. 재정 지원은 모범을 보이는 시범하는 것을 지원하는 자료를 정비하는 것에 한정하였습니다.

3년 간 시범하는 과정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확인하고 1968년에 현장 관찰과 검증 결과 자료 전시를 포함하는 공개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발표회에는 청와대,

문교부, 시도 교육청의 관련 분야 장학관을 포함하는 공무원들도 참가하였습니다. 그들의 보고를 받은 문교부 장관은 공립학교에서도 시범하도록 봉사할 것을 요청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사회과 교육에서 시범하기로 하였습니다. 문교부는 담당 편수관과 장학관들로 TF를 조직하고 시범 자료 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는 기독교인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 모범을 보이게 하는 학습 내용을 반영시켜서 교재를 개발하고 현직 교원 연수를 하였습니다. 즉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 자질을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게 하는 것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학습 내용은 인간교육학의 기본적인 3개 계통 학습 내용 중의 제 1계통의 원리 실천 학습 내용의 개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립학교에서 우선 수학과 언어 교육에서 평신도 교사가 성서를 기초로 하는 법과 원칙을 실천하도록 수업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념적으로는 기독교인 교육자를 양성하여 수학과 언어 교육에서 기독교 원리로 교육하는 모범을 보이고 존경과 신뢰를 받게 하는 것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엔 현장과 인권 선언이 선포된 후 서구인들의 식민 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한 나라들이 미션 스쿨을 국·공립학교로 운영하게 되면서 식민 치하에서 해방된 나라에서 기독교 학교를 통한 선교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선교를 할 수 있게 봉사하는 저의 선교 과제가 필요하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2005년 삼일절에 이런 선교를 포함하는 "지구촌 봉사 기지 건설"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다음에서 소개합니다.

## 지구촌 봉사 기지 건설

오 기 형

교육 발전 선교사

생활·교육 환경개선 공동체 대표

인간교육학회 창립 회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2005년 3월

생활·교육 환경개선 공동체

<http://www.humanedu.org>

[khoh62@hanmail.net](mailto:khoh62@hanmail.net)

02-2679-2218, 2223

## 기지 건설에 착수하고

우리는 2035년까지 한반도에서 천만 명 규모의 평화 문화 공동체가 지구촌에 봉사하게 할 기지 건설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평생교육 평등화·지식 산업의 일자리 창출·나라의 균형 발전·동포의 화합·지구촌 봉사의 모범을 보이면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시범·검증의 중심이 되는 지구촌 봉사 기지 건설에 착수해야 하고,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착수하는 것을 미루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첫째로 여러 가지 선언과 활동계획 같은 것으로 표현된 지구촌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2015년까지 실천에 옮기도록 봉사해야 한다. 그래서 기지 건설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통합적 개념 체계를 기초로 실천 체제, 장기 종합 계획안, 지적 자산 축적 등으로 지구촌 봉사의 기반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기지 건설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2015년까지 6만 명의 섬기는 고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106만 명의 평화 문화 공동체를 발전시켜야 2035년부터 안정하게 봉사하게 된다. 그래서 기지 건설 착수를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통합적 개념 체계는 이념적·이론적·사실적·제도적 실체를 바탕으로 하는 개념을 일관성 있게 검증하고 통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념 체계는 이념 따로, 이론 따로, 수단과 방법 따로, 제도 따로, 전문 분야별로 체계화된 것이다. 지구촌 봉사의 기초가 되는 개념 체계는 지금까지의 개념 체계와 차별화 되는 구조적으로 통합된 것이다.

## 지구촌 봉사: 나라의 창조적 발전 과업

우리나라에 지구촌 봉사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지구촌에 봉사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창조적 국가 발전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지구촌 봉사의 규모는 방대하고, 내용은 통합적 개념 체계를 기초로 평화 문화의 대세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안정하게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다. 봉사 과제는

60만 명의 섬기는 고도 전문가들이 분담·협력하여 주도하는 1,060만 명의 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는 방대한 규모의 것이다. 처음에는 이 과업을 통합적 개념을 기초로 제대로 알고 분담·협력하게 할 514명의 고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1만 6백명의 공동체를 2007년 2월까지 발전시킨다. 그 공동체가 2015년까지 6만 명의 고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106만 명, 2035년까지 60만 명의 고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1,060만 명의 공동체로 발전시킨다. 이렇게 지구촌에 봉사하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의 창조적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다. 무슨 근거로?

첫째로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변동 때문에 지구촌 사람들의 삶의 패러다임이 유례 없이 변하고 있다. 출생아 수는 1950~1960년 생은 연간 1,00억 명, 2010~2020년 생은 연간 1.37억 명, 2040~2050년 생은 1.25억 명 내외로 될 것이다. 평균수명은 각각 49세 내외, 68세 내외, 74세 내외로 될 것이다. 이런 변동과 동시에 지구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50년에 25억 명, 2020년에 75억 명, 2050년에 90억 명으로 될 것이다. 주목할 것은 선진 지역은 1950년의 8.13억 명이 2050년에 1.52배인 12.36억 명으로 증가하고, 개발도상 지역은 17.07억 명이 4.6배인 78.4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050년에 개발도상지역의 65세 이상 인구는 11.44억 명으로 되어 선진지역 인구 12.36억 명과 비슷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구요인의 변동 때문에 개발도상 지역의 인구 증가 억제책을 포함하는 폭넓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55~1960년 생이 52.6세가, 2045~2050년에 84.4세로 되고, 출생아수는 1955~1960년에 연간 평균 106.2만 명이, 2045~2050년에는 36.1만 명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총 인구는 1961년에 2,577만 명이 2020년에 4,996만명으로 증가하다가 2050년에는 4,23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계하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1955~1960년에 78.7만 명으로 비율은 3.3%, 2020년에는 722.0만 명으로 15.6%, 2050년에는 1,541.2만 명으로 34.5%로 될 것이다. 고령 인구 부양 비율은 1960년에 5.3%, 2020년에 21.8%, 2050년에는 69.4%로 급속히 높게 될 것이다. 이런 인구요인 변동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저 출산과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구 변동에 대비하는 폭넓은 가치 지향적·미래 관리적 대책을 시범·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이 장수하게 되므로 장수가 복이 되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인구 증가 억제의 실적을 올린 경



힘이 있으므로 인구 변동의 조정을 시범·검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복지 후생은 물론이고 평생 동안 취업하거나 봉사하면서 보람 있게 사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시범·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삶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1990년의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이 선포한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의 제1조 목적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Every person - child, youth and adult - shall be able to benefit from educational opportunities designed to meet basic learning needs." 그리고 선언의 내용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평생교육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 후에 UN을 포함하는 정부 기구와 비정부 기구들이 2015년을 목표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질 좋은 평생교육 평등화를 추구하는 것을 선언과 활동계획으로 표현하였다. WSIS의 정보화 사회 구축 원리 선언이 2015년까지 지구촌의 모든 학교를 ICTs로 연결시키기로 한 것은 평생교육 평등화에 공헌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 기회의 평등화는 물론이고 고등교육의 기회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되었다. 그런데 삶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과 연계시키지 못하여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다. 노령 부양비가 급년에 12.6%인 것이 지금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60세 내외로 되는 2050년에는 69.4%될 것인데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을까? 본인 자신을 포함하는 모두가 책임지고 분담·협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초등학교 학생부터 평생 학습·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취업하고 봉사하면서 평생 동안 학습하고 연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개발도상지역에서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 사회로 되어 "질 좋은 평생교육 평등화"가 필수적인데 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2015년에는 고령 사회에 가깝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평생교육 평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개발도상국에 봉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삶과 교육의 불평등이 심하게 되고 있다. 급년이 UN현장이 선포된 후 60주년이 되는 연도인데 그 현장의 기본 정신을 기초로 하는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에 선포되었다. 지구촌은 그런 선언의 정신이 실현되고 있

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04년에 GDP per capita의 세계 평균은 8,200불이고 국가들 중의 최고는 55,100불, 최저는 500불 미만으로 빈부의 격차는 심하다. 그리고 2,900불인 인도에 세계 4위인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가 있다는 것은 국가 안에도 심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불평등은 국내의 내분과 국가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평등하게 공존·공영하도록 하는 평화를 지구촌은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무역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GDP per capita는 1만불 대에 머물고, 고용 없는 경제 성장, 일자리 부족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삶의 패러다임의 가치 지향적·미래 관리적 발전과 질 좋은 평생교육 평등화와 동시에 지구촌 평화에 봉사할 산업 패러다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자원·용역과 의식주·양육·교육·복지·후생 등과 관련되는 기본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지식산업의 모범을 보이면 되는 것이다. 이 산업은 국제 교육 표준 분류(ISCED), 표준 직업 분류, 표준 산업 분류를 거시적인 틀로 삼고 각기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면서 분담·협력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1,060만 명 규모의 평화 문화 공동체를 발전시켜야 되므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 삶과 교육과 산업의 연계

지구촌 봉사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장수하는 삶과 평생교육과 지식 산업을 일관성 있게 연계시키는 체제의 모범을 보인다. 이 기지 건설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될 21세기에 20세기까지의 대세를 평화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전환시키지 아니 하면 20세기의 세계 대전과는 다르게 지구촌을 파멸시킬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려하는 학식과 덕망과 경륜이 있는 국내·국제적인 기관의 지도자들이 부여한 과제이므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동참하여 기반을 완성하였다. 기대를 걸고 기다리던 새 천년의 초기 2001년에 9.11 사건이 일어났고 테러 대 반테러 전쟁은 변형하면서 지금 네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지구촌 봉사의 핵심은 지금 세계 후진·개발도상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의 81% 내외인 52억 명 정도가 후진·개발도상 지역의 사람들이다. 21세기 중에 그런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삶과 교육과 산업이 천년대적인 전환점

에서 가치 지향적·미래 관리적으로 발전하도록 봉사해야 한다. 특히 UN과 NGO들이 2015년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선포한 선언과 활동 계획들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업이다. 그리고 삶과 교육과 산업을 연계시켜서 지구촌이 건전하고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봉사해야 한다.

이런 봉사를 1965년에 국제기구의 위탁을 받기 시작하고 1989년에는 정부의 제3 세계 지원 사업의 하나로 ESA 국제 세미나를 주관하였다. 1994년에 EFA Forum으로부터 공식적인 협조의를 받고 인간교육 발전 제5차 10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6개 분야 종합·장기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그 과정에 국내에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구촌 봉사와 나라의 창조적 발전 과제를 연계시켜서 지구촌 봉사가 그대로 국가 발전 봉사 과제로 되게 하였다. 그것이 2035년을 전망하면서 60만 명의 섬기는 고도 전문가들이 분담·협력하여 1,060만 명 규모의 평화 문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공동체는 질 좋은 평생교육 평등화·일자리 창출·나라의 균형 발전·동포의 화합·지구촌 봉사를 일관성 있게 통합하여 한반도에서 모범을 보인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지구촌에 봉사할 사명감이 강한 봉사 공동체의 규모 1,060만 명으로 크고, 연간 평균 지식 산업 투자 규모 2,385억불인 부유한 나라로 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을 지구촌이 바라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지구촌의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지구촌에 봉사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가 4,500만 이상이고 GDP per capita가 1만 불 이상인 나라로 세계 상위권 제7위의 나라이다. 앞으로 남북과 해외 동포가 화합하여 인구 규모 8천만이고 지구촌에 봉사하는 나라로 됨으로써 새천년대의 지구촌에 모범을 보이는 나라로 되는 것이다.

지금 지구촌의 자라는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인류의 역사에 빛나는  
지구촌 봉사 기지 건설에  
참가하기를 바란다.





미 독립의 발상지 필라델피아시의 첫 열매

1953년 9월 27일~2003년 현재

#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 50년사

2003년 8월 17일로 설립 50주년을 맞게 되는 본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험로를 걸으면서도 튼튼한 반석 위에 선 교회로서 오늘에 이르게 된 데는 첫째로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손과 다음으로는 온 교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은 열매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교회 모든 면에서 모두들 그 받은바 은사에 따라 기쁨으로 봉사 협조하고 있다.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주일학교 책임자와 교사들, 매주 예배 후 친목식사, 교회건물과 주위 미화, 기타 각종 교회 봉사에 이르기까지 온 교우들의 따뜻한 손안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